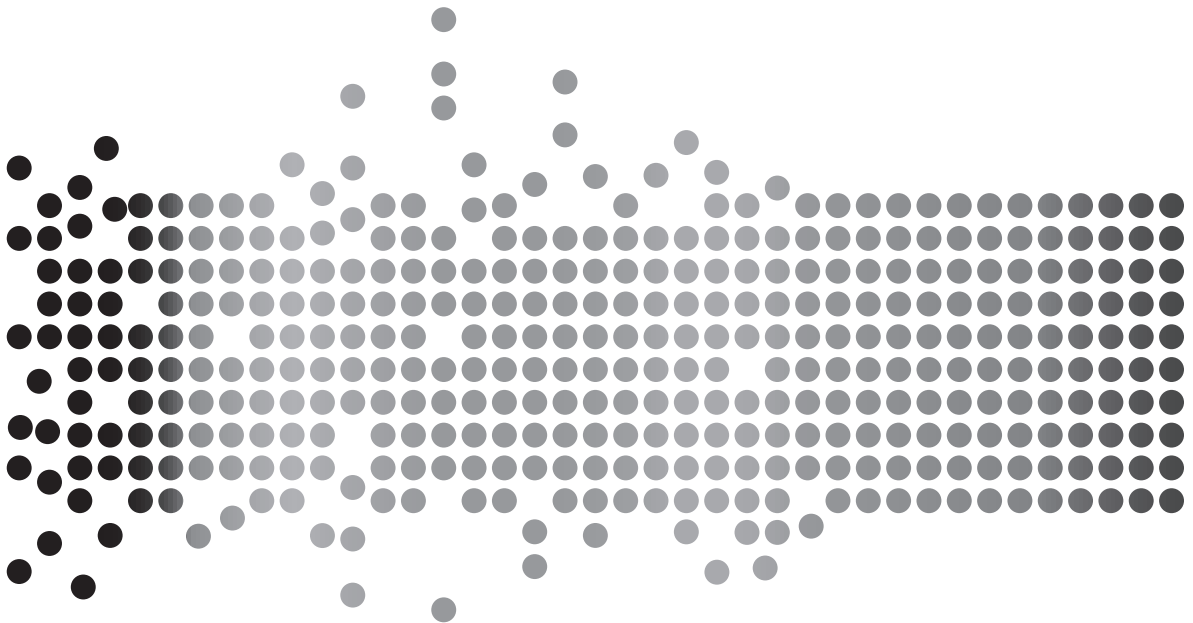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Lifestyle Analysis of the Poor Using Time Use Survey and
Time Geography: Implications for the Community Care Facilities

염주희 · 정홍원 · 최준영 · 손정렬 · 권규상



연구보고서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케이션
제공방안 연구**

발 행 일 2012년
저 자 엄 주 희 외
발 행 인 최 병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범신사
가 격 7,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ISBN 978-89-8187-961-7 93330



머리말

빈곤연구의 흐름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진행되었음에도, 이들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며,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많은 이들이 시간도 중요한 재원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근로빈곤층의 시간 부족이나,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들의 시간 사용과 같은 연구 영역이 주목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한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내의 사회 서비스 시설들에 대해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때 접근성은 빈곤한 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적 접근성을 지칭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빈곤층의 시간 사용 형태를 살펴보고 이를 빈곤하지 않은 계층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시간지리학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이들의 재량시간 분포를 계산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서비스 이용 지점까지 이동 가능한지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접근성 정도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빈곤층은 시간 활용에 있어서 비빈곤층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는 시간이 길며, 혼자 식사를 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며 은행 및 관공서 이용 시간이 길었다. 또한 빈곤층 중에는 비근로자가 많아 이들의 재량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동수단은 제한적이고 이동에 따른 비용부담 또한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의 접근성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이 재량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간대로 사회서비스 시설의 운영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이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와 지리학의 접목을 통하여 기존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분석방식을 제시하였기에, 차후에 다른 빈곤 연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염주희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에서는 최준영 연구원과 정홍원 박사가 참여하였고, 원외에서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손정렬 교수와 권규상 연구원이 참여해 주셨다. 연구진은 연구 집행에 도움을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태진 박사께 고마움을 표하고, 보고서를 검독하고 조언해주신 강혜규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맹다미 박사(서울연구원), 남기철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황성철 교수(신라대학교)께도 감사를 전한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시간 사용을 통해 본 빈곤 연구의 필요성	13
제2절 커뮤니티 케어 시설의 시간적 접근성 연구의 필요성	18
제3절 보고서의 구성	19
제4절 연구 방법의 개요	19
제2장 이론적 배경	23
제1절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연구	23
제2절 시간지리학을 통해 본 시간 사용 연구	32
제3절 빈곤층의 접근성 분석	34
제4절 시간지리학을 이용한 접근성 분석	38
제5절 복합적 커뮤니티케어	42
제3장 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및 비빈곤층과의 시간사용량 비교	47
제1절 생활시간조사데이터	47
제2절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48
제3절 응답자의 라이프스타일: 빈곤층 대 비빈곤층	50
제4절 소결	75

제4장 빈곤층 커뮤니티 케어의 접근성 분석	81
제1절 분석방법론	81
제2절 분석결과	97
제5장 사례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155
제1절 생활시간 분석의 시사점	155
제2절 빈곤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160
제6장 결론 및 제언	173
제1절 주요결과요약	173
제2절 정책제언	176
참고문헌	179
부록	189

표 목차

〈표 2- 1〉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설명	24
〈표 2- 2〉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 나타난 소득 관련 변수	26
〈표 2- 3〉 2009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26
〈표 2- 4〉 2009년 생활시간조사 표본 규모	27
〈표 2- 5〉 주거 소유형태 및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본 소득빈곤	27
〈표 2- 6〉 커뮤니티 케어 시설 종류	43
〈표 3- 1〉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인구학적 배경	49
〈표 3- 2〉 수면 및 식사 관련 활동 시간	51
〈표 3- 3〉 개인관리 관련 활동시간	53
〈표 3- 4〉 일 관련 활동 시간	54
〈표 3- 5〉 근로여부 및 빈곤층으로 살펴본 표본 구성	54
〈표 3- 6〉 일(고용된 일 또는 자영업) 관련 활동시간	55
〈표 3- 7〉 학생의 정규수업 관련 활동시간	57
〈표 3- 8〉 음식준비 관련 활동시간	58
〈표 3- 9〉 여성의 음식준비 관련 활동시간	58
〈표 3-10〉 의류 관련 활동시간	59
〈표 3-11〉 청소 및 정리 관련 활동시간	60
〈표 3-12〉 주거전용면적 및 가구원 수	61
〈표 3-13〉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관련 활동시간	61
〈표 3-14〉 가정경영 관련 활동시간	63
〈표 3-15〉 가족보살피기 관련 활동시간	64
〈표 3-16〉 배우자 및 (조)부모 보살피기 관련 활동시간	65
〈표 3-17〉 교제활동 관련 활동시간	67

〈표 3-18〉 빈곤여부별 미디어이용 관련 활동시간	68
〈표 3-19〉 20대 이상 일반인 학습 관련 활동시간	70
〈표 3-20〉 종교활동 관련 활동시간	71
〈표 3-21〉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 관련 시간	72
〈표 3-23〉 이동 관련 활동시간	74
〈표 4- 1〉 분석흐름도	82
〈표 4- 2〉 의무활동과 시설의 조합 가능한 공간배치	91
〈표 4- 3〉 의무활동(fixed activities)의 분류	99
〈표 4- 4〉 요일구분에 따른 빈곤층/비빈곤층의 재량시간 차이	101
〈표 4- 5〉 재량시간 1구간 당 평균 재량시간	102
〈표 4- 6〉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빈곤층/비빈곤층의 재량시간 차이 ..	103
〈표 4- 7〉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빈곤층 내 재량시간 차이	106
〈표 4- 8〉 전일제 근로 빈곤층/비빈곤층의 의무활동 및 재량활동 순위(12시~13시)	114
〈표 4- 9〉 전일제 근로 빈곤층/비빈곤층의 의무활동 및 재량활동 순위(18시~22시)	115
〈표 4-10〉 커뮤니티 케어별 운영시간 및 최소요구활동시간	121
〈표 4-11〉 각 이동수단별 속도 (m/분)	122
〈표 4-12〉 은행에 대한 빈곤층/비빈곤층의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124
〈표 4-13〉 은행에 대한 빈곤층/비빈곤층의 잠재적 이동가능거리	127
〈표 4-14〉 빈곤층/비빈곤층의 접근가능한 은행범위(시간)	128
〈표 4-15〉 빈곤층/비빈곤층의 접근가능한 은행범위(거리)	129
〈표 4-16〉 보건소에 대한 빈곤층/비빈곤층의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	131
〈표 4-17〉 보건소에 대한 빈곤층/비빈곤층의 잠재적 이동가능거리 ..	132
〈표 4-18〉 빈곤층/비빈곤층의 접근가능한 보건소의 범위(시간)	133

Contents

〈표 4-19〉 빈곤층/비빈곤층의 접근가능한 보건소의 범위(거리)	135
〈표 4-20〉 병/의원에 대한 빈곤층/비빈곤층의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136
〈표 4-21〉 병/의원에 대한 빈곤층/비빈곤층의 잠재적 이동가능거리	137
〈표 4-22〉 빈곤층/비빈곤층의 접근가능한 병/의원의 범위(시간)	140
〈표 4-23〉 빈곤층/비빈곤층의 접근가능한 병/의원의 범위(거리)	141
〈표 4-24〉 빈곤층/비빈곤층의 접근가능한 병/의원의 범위(시간)	142
〈표 4-25〉 커뮤니티 케어별 빈곤층/비빈곤층의 1구간 당 접근가능한 범위	144
〈표 4-26〉 커뮤니티 케어별 빈곤층/비빈곤층 시설이용불가비율(%)	145
〈표 4-27〉 시설이용이 가능한 표본만 포함한 하루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및 거리 최대값의 평균	146
〈표 4-28〉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표본을 포함한 하루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및 거리 최대값의 평균	146
〈표 4-29〉 시설이용이 가능한 표본만 포함한 접근가능한 시설의 최대범위에 대한 평균	147
〈표 4-30〉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표본을 포함한 접근가능한 시설의 최대범위에 대한 평균	147
〈표 5- 1〉 빈곤층 시간 활용의 특징	157
〈표 5- 2〉 빈곤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168

그림 목차

[그림 2- 1] 시공간 경로(왼쪽)와 시공간 프리즘(오른쪽)	38
[그림 4- 1] 시공간 프리즘(space-time prism)을 이용한 분석방법 모식도	86
[그림 4- 2] 재량시간과 운영시간의 시간적 배치를 고려한 이동가능범위의 산출 예	93
[그림 4- 3] 빈곤층/비빈곤층 시간대별 평균 재량시간 분포	108
[그림 4- 4] 요일구분에 따른 빈곤층/비빈곤층 시간대별 평균 재량시간 분포	109
[그림 4- 5]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빈곤층/비빈곤층 시간대별 평균 재량시간 분포	110
[그림 4- 6] 임금노동자 중 빈곤층/비빈곤층 시간대별 평균 재량시간 분포	111
[그림 4- 7] 근로형태에 따른 빈곤층/비빈곤층 시간대별 평균 재량시간 분포	111
[그림 4- 8] 전일제 근로 빈곤층/비빈곤층 요일별 평균 재량시간 분포 ..	116
[그림 4- 9] 요일구분에 따른 빈곤층/비빈곤층(10대) 시간대별 평균 재량시간 분포	117



Abstract

The Lifestyle of the Poor Using Time Use Survey and Time Geography: Implications for Community Care Facilities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lifestyle of the poor and the non-poor by analyzing their time use patterns. Using 2009 Time Use Survey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the first half of the report illustrates how individuals with low-income spent their time on self-care, household chores, family caregiving, work-related activities, educational activities and leisure. By comparing their time use to the non-poor's, the authors attempt to portrait the daily lives of poor families. The second half of the report adopts GIS-based time geography and calculates the level of access to various community care facilities. The findings show that individuals with low-income exhibit lifestyle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non-poor: they are more likely to be isolated from the community and less likely to have access to community care. From the findings the authors draw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among others, offering more flexible service hours at community care facilities and ensuring adequate mobility tools for the low-income families.

요약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빈곤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전통적인 빈곤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기존의 빈곤 연구를 통해서는 위의 문제제기에 답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이는 빈곤이라는 개념을 다루는 데에 있어 시간이라는 측량치가 배제되었기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복합적인 빈곤연구에 있어 선행조건이라고 보고, 라이프스타일 연구의 한 방식으로 시간사용을 살펴보고자 함

II. 이론적배경

- 빈곤층의 조작적 정의
 -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변수들을 가지고 빈곤층을 조작적 정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음
 - － 소득관련 응답 항목에서는 중앙값 또는 대리값을 설정하여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기준으로 미달한 경우 소득빈곤이라고 보았음
 - － 또한, 주택소유형태에서는 월세/사글세/보증부월세라고 응답한 경우를 자산빈곤이라고 보았음

-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에서 모두 빈곤한 가구를 빈곤 가구라 정의하고 이러한 가구의 구성원을 빈곤층이라고 보았음

□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의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근린시설, 문화여가시설, 사회서비스시설, 공공서비스 시설, 금융 및 교육 시설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사용가능한 제반시설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커뮤니티 케어를 사용하기로 함
- 또한, 커뮤니티 케어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어떤 운영시간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운영 시간에 있어서 특색을 가지고 있는 은행, 병원, 보건소를 추후 시공간적 심층분석의 사례로 선정하였음

III. 주요 연구방법 및 결과

□ 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및 비빈곤층과의 시간사용량 비교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9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는 총 40,526개의 시간일지를 포함함
 - 응답자의 시간사용 범주는 크게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의 8가지 행동을 기준으로 나뉘짐. 이 8가지 범주에 걸쳐 40여개의 중분류가 있고 각각의 중분류 아래에는 하위범주로 2개에서 8개의 소분류가 분포하고 있음

□ 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및 비빈곤층과의 시간사용량 비교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건강관리 등 ‘개인유지’와 관련

된 시간 사용결과

- 낮잠과 수면을 모두 포함한 수면 총시간에서 빈곤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에 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
- 식사 및 간식으로 대표되는 식품섭취관련 행동은 비빈곤층이 빈곤층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반적으로 의료건강을 위한 활동시간은 빈곤층이 많음을 알 수 있음. 그 중에서도 자가치료와 아파서 쉬는 시간의 경우가 빈곤층에서 많이 나타남

○ 둘째, ‘일’과 관련된 시간활용 결과

- 빈곤여부별 일 관련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구직활동을 위해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음

○ 셋째, 정규수업, 정규수업 외 학습에 관련한 시간활용 항목

- 학생의 정규적인 활동시간은 학령기의 아동가구원을 살펴보기 위해 10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학생 정규 관련 활동시간은 별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에서의 기타 학습관련 행동시간은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길게 나타나 학교에서 기타 학습관련 활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학생의 정규수업시간 외 관련 활동시간은 비빈곤층은 빈곤층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학교 밖의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음

○ 넷째,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 활용 결과

- 가정경영 관련 활동시간 중, 괄목할만한 점은 은행 및 관공서 일 보기의 경우, 빈곤층 평균이 비빈곤층 평균에 비해 두 배 가량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즉 빈곤층은 빈곤하지 않은 계층에 비해 은행 및 관공서로 일을 직접 보러가는 빈도가 많거나, 한번 방문시에도 업무를 마치는데 더 오래 걸렸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임

○ 다섯째, ‘교제 및 여가활동’과 관련한 시간사용 결과

-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매체를 활용한 교제 활동은 빈곤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미디어이용 관련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TV를 더 오랜 시간 보고, 잡지 읽기, 라디오 듣기, 음악듣기, 인터넷 사용과 같은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시간을 더 길게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 빈곤한 성인들은 학생의 정규 수업과 같은 의무 사항이 아닌 여가 활동으로서의 학습을 하는데 일정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빈곤층 커뮤니티케어의 접근성 분석 연구방법

○ 빈곤층의 시공간 접근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함.

-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시간일지에 응답자의 하루 생활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함
- 응답은 매 10분 간격으로 작성되며, 개인이 각 10분의 구간동안 수행한 행동과 동시행동, 같이 한 사람, 이동수단 등을 기입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시간일지가 완성됨. 각 10분 동안 수행한 행동은 행동분류코드표에 의거 코딩된 상태로 제공되며, 행동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뉘어 매우 세부적으로 제시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근·통학 자료를 사용하여 통근거리와 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각 시도별로 이동수단별 평균 통근속도를 계산하였음

- 이는 이동수단의 종류와 평균속도에 따라 접근 가능한 공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임

- 국내에서는 각 시도별로 이동수단별 평균속도를 집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추정하였음

□ 빈곤층 커뮤니티 케어의 접근성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더 많은 재량시간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
- 둘째, 빈곤층 내부에서는 연령에 따라 재량시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근로유형에 따라 재량시간의 차이가 나타남
- 셋째, 재량시간을 하루 24시간의 시간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업무시간인 9시 ~ 12시, 13시 ~ 18시 사이에는 재량시간이 적고 점심시간인 12시 ~ 13시와 퇴근시간인 18시 이후로 재량시간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넷째, 빈곤층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특히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점심시간에 재량시간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이는 점심시간에도 주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비빈곤층보다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 다섯째,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접근성을 은행, 보건소, 병/의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특히 전일제로 근무할수록 접근 가능한 공간범위나 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빈곤층일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재량시간의 양이 더 많고 시간대 분포가 보다 유연적이므로 더 많은 이동가능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섯째,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이동가능시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비빈곤층과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게 되며, 이동수단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이동가능

거리와 접근가능한 시설의 공간범위를 거리의 형태로 변환시키면 오히려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남

- 일곱째, 시설의 운영시간을 고려할 경우 일반적으로 재량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12시 ~ 13시, 18시 이후에 시설이 운영될 경우 접근성이 보다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산출하는데 있어 운영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

□ 사례 중심의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 개인 영역의 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케어는 개인의 행태와 인식 변화라는 목표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삶의 목표 설정, 동기유발, 자아존중감, 자발적 선택과 의사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함
- 또한 수단적 측면에서 시간관리, 가계부 작성 등 계획과 실천행위를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내용의 서비스가 필요함
- 관계 영역의 시간 사용과 관련된 커뮤니티 케어는 의사소통 증진, 인간관계 지식 및 기술의 훈련과 습득이 중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 사회 영역의 시간 사용과 관련된 커뮤니티 케어는 근로계층과 학생을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근로 빈곤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는 구직알선, 공공근로 등을 통한 취업 지원과 비교적 장기의 직업훈련과 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이 필요하며, 고용지원 서비스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지역사회 차원의 커뮤니티 케어 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이며, 생활시간에 대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성에 대한 제약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여 접근

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임

— 첫째는 비용적 측면의 접근성 제고임

- 빈곤층은 비용부담의 제약으로 인하여 앞에서 제시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장기 직업교육 및 훈련, 사교육,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음.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공공 영역이 대체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임

— 둘째는 시간적 제약의 완화를 통한 접근성 제고임

- 근로 빈곤층의 경우 재량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커뮤니티 케어의 제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특히 평일에 재량시간을 확보하기 용이한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로 빈곤층은 커뮤니티 케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는 공간적 제약의 완화를 통한 접근성의 제고임

- 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은 이용자들의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방안, out-reach 방식을 활용한 케어 및 지원 서비스의 대상자 발굴,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시설(농어촌 지역의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방문서비스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IV.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 설계 시 응답자의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헌과 데이터의 사용가능한 범위에 의하여 결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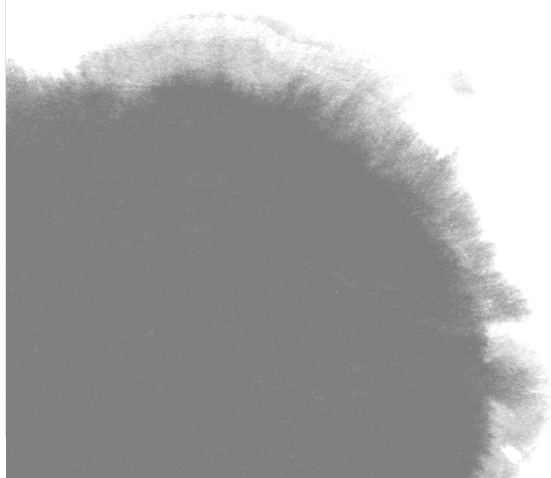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 그러나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나 기초생활수급 여부, 영구임대주택 거주 여부와 같은 변수들이 제공되었다면 응답자 수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봄

- 소득과 관련한 문항은 사회과학 기초 조사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항목이므로 앞으로도 필수 항목으로 포함 될 터인데, 이에 대한 보완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시간 사용과 빈곤을 연구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간지리학 기법은 개인의 공간정보를 알고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연구 방법이 달라짐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와 같은 공적 데이터의 경우 응답자 보호와 연구적 역량 확보라는 두 가지 이슈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자와 연구자가 함께 고민하여 심층적인 연구 설계가 가능하도록 조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공한 분석 모델은 다른 종류의 서비스 제공 시설의 사·공간적 접근성을 평가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활용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사회서비스를 디자인·개발하고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다룰 때 있어 본 연구와 같은 방식을 접목해 봄으로써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되는 면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임
- 특히 본 보고서에서 분석 예로 제시하였던, 보건소, 병원, 은행을 다른 영역의 커뮤니티 케어 시설로 대치해 보면 이용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맞는 접근성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음

*주요용어: 빈곤층, 시간지리학, 접근성 연구

1장

서론



제장 서론

제1 절 시간 사용을 통해 본 빈곤 연구의 필요성

빈곤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소득을 중심으로 근로빈곤층의 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도 있고(노대명·최승아, 2004), 자산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을 연구하기도 한다(남상호, 2009). 또한 빈곤층의 근로 경험은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방식도 있다 (이현주·안서연·박경희, 2009) 하지만 전통적인 빈곤 연구 방식은 빈곤한 이들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며 시간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에 제약은 없는지 알아보는데 제한적이다. 이는 빈곤을 다루는데 있어 시간이라는 측량치를 중심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빈곤층의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복합적인 빈곤 연구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선행조건이라고 볼 때, 라이프스타일 연구의 한 방식으로 시간 사용을 살펴보는 방식은 의의가 있다. 본 절에서는 빈곤층의 시간 사용을 분석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의 필요성을 조명해본다.

1. 정책적 유용성

시간 사용 분석은 라이프스타일 연구이다. 연구자는 응답자들의 시간 사용을 연구함으로써 이들이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서 어떤 행동에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하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고, 복지정책 수립에 도움을 준다(통계청, 2009). 시간 사용을 통해 빈곤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하는 데에는 빈곤한 사람들의 시간 사용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가정이 뒷받침되어 있다. 빈곤층이 시간 사용량이나 시간 이용대에서 특징적인 형태를 보인다면 이는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 특히 공공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시간 사용 패턴이나, 근로 및 구직활동에 할애하는 시간량 파악 등은 구체적인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시간 사용을 중심으로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추하기로 한다.

2. 시간과 빈곤을 연관 지은 연구의 부재

최근에 들어서야 빈곤층은 소득기준으로만 빈곤을 겪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도 빈곤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노혜진·김교성, 2010). 빈곤 연구에서 시간 빈곤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이유는, 저소득층의 시간 사용이라는 연구 분야 자체가 광범위하게 다루어지지 않은데서 기인한다. 근로빈곤층의 경우, 장시간 임금 노동을 하기 때문에 돌봄이나 가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 게다가 이들의 임금 수준 또한 높지 않아 적절한 소득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간과 소득이 부족한 상황을 동시에 겪게 된다(노혜진·김교성, 2010). 본 보고서와 같이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빈곤층의 시간 사용 형태를 파악하는데 의의를 둔다고 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식의 연구적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이용하는 자원을 돈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 화폐로 놓고 보았을 때, 빈곤층의 시간 사용 형태를 연구하는 것은 빈곤의 원인, 빈곤의 지속 이유, 탈빈곤 저해요소 등 다양한 시각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3. 지리학적으로 빈곤을 연구할 때 공간적 접근성에 중심을 둬

접근성은 공간적 측면 및 시간적 측면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대다수의 지리학 연구에서 접근성을 연구할 때는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주로 살펴보았다. 즉 빈곤층의 주거지역과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보거나(배미애, 2007), 이용자가 사회복지시설까지 거리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손정렬·오수경, 2007) 공간적 접근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접근성은 가까이 있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실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때에만 유의미하다. 따라서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간적 측면 또한 접근성을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Kim, 2005). 또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목적지까지 거리가 멀다 하여도 대중교통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긴 이동시간을 참아내는 동안 소모되는 시간과 개인의 노력을 다른 활동들에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만큼의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에 빈곤연구에 있어서는 공간적인 접근성 연구만이 아닌 제한된 시간 내에 이동 가능한 거리, 시간적 접근성을 감안한 다른 연구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지리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빈곤층의 접근성 수준을 분석하여 이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시공간적 배제(spatio-temporal exclusion)의 유무를 판단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간적, 공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접근성(accessibility)을 주된 개념으로 삼고 이를 분석하는

것은 이것이 개인 혹은 가구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분업화가 진전되면서 일상적인 여러 가지 활동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삶을 올바르게 영위하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분리된 활동들을 극복하는 행위인 교통 또는 통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의미한다(노시학, 1996). 특히 통행에 있어 개인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통행이 개인의 삶을 위한 여러 지점들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특정 지점에 얼마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때 접근성은 개인 혹은 집단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도시공간구조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단의 특성에 따라 접근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어린이, 빈곤층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교통약자라 부르는 집단의 경우 사회·경제적, 신체적인 차이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지점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적 제약(spatial entrapment)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참여의 밖으로 밀려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연구하는 것은 이들의 삶을 사회 속으로 온전하게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배경 하에 빈곤층에 대한 접근성 분석에 주목한다. 빈곤층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가구의 가처분 소득에서 통행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이다. 이들이 공간적 제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들에 물리적으로 근접해 있거나, 값싼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따른 긴 이동시간과 불편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활동들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입지해있지 않으며, 특히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주거비용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빈곤층은 공간이 초래하는 빈곤의 악순환에 내몰릴 수 있다. 따라서 빈곤층의 접근성을 분석하는 그 자체 외에도 이들의 접근성을 어떤 관

점에서 분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빈곤문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빈곤이 단순히 근로능력의 상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질적 수준이 낮아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한다(지은정, 2007). 특히 저차노동과 고차노동의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빈곤층은 구조적으로 상향이동이 불가능한 저차노동에 속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이 진행되고 주변 노동시장을 전전하게 된다(송호근, 2002; 나금실, 2005; 장원봉·정수남, 2005). 비록 이것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일지라도 개인에게 있어서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질적 수준이 높은 직종의 소득기회를 얻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는 금전적 문제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활동들을 포함함으로써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빈곤층을 위한 고용지원센터나 자활센터, 지역 내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사회복지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은행이나 병원 등은 공간상의 특정 장소에 입지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별 시설에는 모두 운영시간(opening hours)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을 모두 중시하는 최근의 시간지리학적(time geography) 연구방법을 통해 빈곤층의 접근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빈곤층의 접근성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간주되어왔던 공간적인 해결방법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의 방안도 함께 제시할 것이다.

제2절 커뮤니티 케어 시설의 시간적 접근성 연구의 필요성

1. 시간 지리학을 통한 접근성 연구의 부재

지리학에서 접근성 연구를 할 때는 주로 공간적 제약을 살펴보았다. 사회서비스의 지리적 제공 범위 및 인구분포도를 분석함으로써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높은지를 조사한 것이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적 접근성 연구는 빈곤연구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접근성 연구를 공간적으로만 살펴보는 영역에서 벗어나, 시간적 접근성을 살펴보고 시설 운영에 참고가 되는 제한점을 생성해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같은 사회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두고 이용자에 따라서 시간접근성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인데, 여기에서는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자유재량시간 소유 형태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시간지리학을 이용하여 빈곤층의 재량시간을 살펴보고, 이를 커뮤니티 케어 운영시간과 대조 분석해 봄으로써 빈곤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시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은 새로운 연구적 시도로 빈곤층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 빈곤층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케어 연구의 필요성 증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시설은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형태에 따라 주요하게 이용되는 계층이 생긴다. 따라서 빈곤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시설을 연구할 때는 종합사회복지관, 고용지원센터, 자활센터,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기관 등 특성화된 영역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은 행정 구역 또는 지역별로 영역을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리적 접

근성이 좋은 편이다. 그렇다면 빈곤층이 과연 이들의 일상에서 커뮤니티 케어 시설을 이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 및 여가, 건강, 금융,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 중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커뮤니티 케어 시설의 개발 및 평가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제3절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문제를 다루었다. 제2장은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와 선행 연구 검토를 포함하였다. 제3장에서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시간 사용량을 분석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조명한다. 제4장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시공간 접근성을 추정하는 분석을 포함하였다. 제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요약과 함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에 관한 제언을 포함하였다.

제4절 연구 방법의 개요

본 보고서는 선행 연구 검토, 2차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및 공간지리학적 접근, 사례 중심의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 방안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연구 방법은 각 장에서 기술하기로 하고 제 1장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선행 연구 검토는 빈곤층의 조작적 정의 방식, 시간 사용을 통해 본 라이프스타일 연구 방식, 지리학을 접목한 빈곤 연구,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연구의 네 가지 절을 다루고 있다.

양적 분석에서는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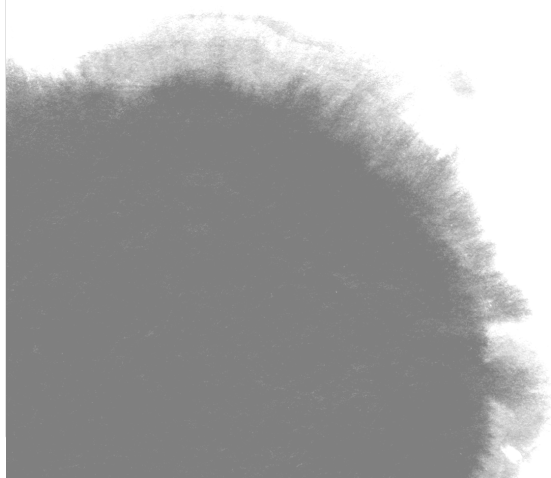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교차분석, t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를 기준으로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의 7가지 영역의 시간사용량을 빈곤층과 비빈곤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시간지리학을 이용한 시공간 접근성 분석에서는 시간이용대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재량시간과 커뮤니티 케어 시설의 운영시간을 살펴보고, 시간대별·요일별·근로형태별 차이 등을 빈곤층과 비빈곤층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 방안 연구에서는 시간 사용 형태로 유추해본 빈곤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고, 커뮤니티 케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운영에 관한 제안을 서술한다. 이 때 빈곤층의 특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탐색하며,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의 운영 시간대를 조절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2장

이론적배경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 절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연구

1. 빈곤층 정의

빈곤의 측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2006년에 발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구조분석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빈곤 상태를 중위소득 50%를 빈곤 기준선으로 하여, 소득이 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빈곤하다고 보았다(이현주 외, 2006). 이는 빈곤연구에서 사용되는 상대빈곤선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 외에도 최저생계비를 중심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선보다 적으면 빈곤하다고 정의하는 절대빈곤선을 이용한 방법도 있다. 최근에는 빈곤의 다차원적 연구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결핍이 나타나면 이를 빈곤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김경혜 외, 2011).

또한, 가구의 빈곤지위는 가구규모나 다른 가구특성이 고려된 해당가구의 빈곤선과 실질가구의 소득액을 비교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빈곤 지위는 절대적 빈곤선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정부가 공식 발표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해당가구의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빈곤선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즉, 가구의 빈곤여부는 거주하는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정부가 발표하는 해당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액수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가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욕구-소득비(income-to-needs ratio)를 부분적으로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가구의 빈곤여부에 대한 정의로

빈곤율을 추정해본 결과, 전체가구 중, 빈곤가구의 비율은 19.4%였다(구인회, 2002).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가구율(전가구기준)을 살펴보면, 경상소득 기준 2009년 8.5%, 2010년 7.6%(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이었으며, 1인가구 포함 및 농어가가구 제외의 경우, 2009년 12.2%, 2010년 11.7%로 나타났다(김문길 외, 2011).

그러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빈곤층을 보는 것 외에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과 경상소득을 적용하여 다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된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재산을 환산할 수 있는 변수가 주택 소유형태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시간 사용 형태를 연구하였고, 이들이 커뮤니티 케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간적 접근성 산출을 위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근·통학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두 가지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표 2-1〉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설명

구분	2009년 생활시간 조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기관	통계청	통계청
조사 년도	2009년	2005년
조사 대상	전국 약 8,100가구의 만10세 이상 가구원	조사 기준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
조사 방법	조사원 면접, 응답자 직접 기입	조사원 면접, 응답자 직접기입, 인터넷 조사방식 병행
조사부문	▶가구관련 사항 ▶개인관련 사항 ▶시간일지 ▶생활시간사용 만족도	▶인구관련 사항 ▶가구·주택 부문 ▶인구이동, 통근·통학 부문 ▶산업·직업, 주거·복지 부문 ▶여성·아동, 고령자, 1인가구 부문

자료: 통계청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자산’을 이용하여 빈곤한 계층을 측정하여 이들의 생활패턴을 보고자 하였으므로 정부발표 최저생계비를 1차 기준으로 사용한 후, 자산 형태를 고려하여 빈곤층을 설정하고자 한다.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변수들을 가지고 빈곤층을 조작적 정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는 소득 및 주택소유형태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월평균 소득을 11가지 항목 중에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택소유형태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전세 또는 월세(사글세, 보증부월세 포함), 무상주택/사택인지 제시하고 있다. 소득관련 응답 항목에서는 중앙값 또는 대리값을 설정하여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기준으로 미달한 경우 ‘소득빈곤층’라고 보았다.

주택소유형태에서는 월세/사글세/보증부월세라고 응답한 경우를 ‘자산빈곤층’이라고 보았다. 이는 빈곤층, 특히 근로빈곤층의 주거형태로 월세가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존연구에 기초한 것이다(노대명, 2004). 이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빈곤층을 연구한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데 주택 소유 형태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30.1%가 영구임대, 20.8%가 월세라 답하였다(김남줄, 2005).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영구임대라는 응답항목이 없고 월세/사글세/보증부월세라는 항목에 포함되어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에서 모두 빈곤한 가구를 빈곤 가구라 정의하고 이러한 가구의 구성원을 빈곤층이라고 보았다. 이는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보다 구체적으로 빈곤층을 구분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및 자산 빈곤을 모두 겪는 가구만을 빈곤층으로 설정함으로써 보수적 형태의 조작적 정의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표 2-2〉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 나타난 소득 관련 변수

구분	원자료에 나타난 응답 형태	조작적 정의시 사용한 중앙값 또는 대리값
월평균소득	없음	0원
	50만원 미만	50만원
	50-100만원 미만	75만원
	100-150만원 미만	125만원
	150-200만원 미만	175만원
	200-250만원 미만	225만원
	250-300만원 미만	275만원
	300-350만원 미만	325만원
	350-400만원 미만	375만원
	400-500만원 미만	450만원
소유형태	500만원 이상	500만원
	자기집, 전세, 월세/사글세/보증부월세, 무상주택, 사택	월세/사글세/보증부월세라고 응답한 경우, 자산빈곤이라고 정의

통계청의 원자료 조사 시기가 2009년이었으므로 빈곤층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는 2009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2-3>는 2009년 기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나타낸다. 생활시간조사표에 나타난 가구별 특성에 따르면 최대가구원수가 10명이므로 10인 가구까지 포함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2-3〉 2009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가구원 수	2009년 최저생계비(원)
1	490,845원
2	835,763원
3	1,081,186원
4	1,326,609원
5	1,572,031원
6	1,817,454원
7	2,062,877원
8	2,308,300원
9	2,553,723원
10	2,799,146원

자료: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응답자별 월평균소득을 포함하고, 가구별 소득을 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가구원 총 소득의 합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가구별 평균 소득을 계산한 후, 가구원 수를 반영하여 그 가구가 소득기준으로 빈곤가구인지 아닌지 선별하였다. 빈곤가구의 가구원은 소득기준으로 빈곤하다고 보았다. 또한 주거 소유형태에서는 월세, 사글세, 보증부월세에 해당하는 이들을 자산을 기준으로 빈곤하다고 보았다. 이는 생활시간조사 전체 표본에서 수도권 지역 응답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에, 이들의 자가 및 전세 거주 형태를 제외하고 빈곤가구를 선정하고자 하는 연구진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즉 소득이 2009년 최저생계비기준으로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고, 월세/사글세/보증부월세에 사는 사람을 ‘빈곤층’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음의 <표 2-4>은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 포함된 표본규모와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2-4> 2009년 생활시간조사 표본 규모

구분	수
최종응답가구	8,090가구
최종 응답가구원 (총응답자 수)	20,263명
최종분석에 사용된 시간일지	40,526일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지침서

<표 2-5> 주거 소유형태 및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본 소득빈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소득 또는 자산빈곤층	3,588	17.7
자산빈곤층	2,223	11.0
소득빈곤층	2,059	10.2
소득 및 자산빈곤층	347	1.7

주: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 시간 사용을 통해 본 라이프스타일 연구

시간 사용은 이미 많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주요 사회지표로 이용된 바 있다. OECD가 발간한 자료 ‘한눈에 보는 사회 2011 아시아/태평양판’에서는 무급노동과 여가시간 사용에 중점을 맞추어 해당지역 국가 간의 시간사용을 비교하였다. 이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기존의 소득 기준 방식의 전통적 사회 지표를 이용하면 자유시간과 여가시간의 양을 측정하는 연구를 불포함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2011, OECD/Korea Research Centre).

여가시간 사용의 차이를 사회계층별로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12년 이상의 학교 이수 과정) 와 낮은 응답자를 구분하여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남자, 여자 두 집단 모두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TV시청, 친구랑 시간 보내기, 영화 관람 등의 여가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ttanasio, Hurst, and Pistaferri, 2012).

최근에 보도된 미국의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자녀들이 빈곤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보다 전자기기(컴퓨터, 게임기, TV) 사용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이전에는 소득수준별로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보유 유무에 차이가 있었다면, 각 가정마다 디지털 기기가 거의 보급된 현 시대에는 시간 사용에 차이를 보이는 형태를 띤다. 이 때 중요한 점은 단순한 시간 사용의 격차가 아닌 ‘시간 낭비의 격차’가 조사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부모의 학력 수준이 고졸이하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유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주정부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빈곤한 부모들이나 실직자 중심으로 IT기기 사용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경향신문, 2012).

국내에서 발표된 시간활용 관련 주요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시간조사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더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성별을 나누어 집단을

구분하는 시간조사비교법은 비교적 많이 연구되었다. 남성주부와 여성주부의 생활시간사용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이 두 집단이 생리적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문화적시간 사용에서 모두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성은숙, 2007). 같은 주부역할을 수행한다하여도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가사노동에 시간을 덜 할애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시간은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처럼 한부모가 자녀 양육을 하는 가정에서의 시간 사용 차이를 비교했을 때에는 싱글맘이 싱글대디보다 가사와 일의 이중역할에 더 많은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은숙, 2007).

또 다른 시각에서 시간 사용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 연구로는 서머타임의 도입효과를 살펴본 보고서를 들 수 있다. 김미숙과 동료들은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설문조사 하면서 친교활동, 문화활동, 자원봉사, 종교 및 쇼핑활동, 운동/산책/스포츠 관람, 외식 및 회식, 공부활동, 집밖에서 활동하는 횟수 등을 질문하였다(김미숙 외, 2009).

문화욕구 차원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한 유승호(2005)의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이용시간과 생활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정보화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영화, 운동, 공부, 직장업무, TV, 신문, 라디오, 가족대화, 수면, 취미생활, 사회관계에 대한 응답자의 시간 사용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뚜렷한 사용 목적 없이 인터넷 접속 자체를 중요시하는 주유형 이용자의 경우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감소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사용과 관련한 연구들 중에서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남녀의 시간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유소이·최윤지(2002)의 연구에서는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 및 육아에 사용되는 시간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각각의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가에 대한 성인 남녀의 시간배분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지만 가사노

동 및 육아활동에 투입되는 시간량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기여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가정 내에서 남성의 기여도에 대한 시간 배분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급노동의 책임은 여성에게 더 지우고 있는 실태를 분석하고 있는 손문금(2005)의 연구에서는 199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무급노동시간량에서 맞벌이 부부의 여성은 남편보다 무급노동시간이 더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주된 가사노동은 여성이 그 외 가사노동은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남성의 무급노동시간량은 전통형 부부의 남성의 무급노동시간량보다 길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의 남성과 여성 모두 생애과정과 시간자원이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일은 여전히 여성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성역할 분담에 의한 시간사용이 확고함을 보여주었으며,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완화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었다.

손문금(2010)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04년 생활시간조사 시간량 및 시간대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대상(20~59세 서울시민)의 이동행동의 특성은 성역할의 차이와 활동공간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주요 결과로는 남성의 경우 유급노동 관련 이동시간량이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무급노동 관련 이동시간량이 더 많았다. 또한, 혼인경험이 있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이동행동의 특성은 낮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제한된 패턴을 보였다. 반면, 미혼여성은 남성들보다도 더 많은 이동시간량 등을 보임으로써 활발한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본 김진욱(2006)의 연구에서는 2004년 생활시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세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른 연령층과는 구별되는 노인의 일반적인 생활 세계를 파악하면서 일, 가족, 여가 등 구체적인 항목에서 나타나는 노인의 이질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은 노년기가 되면 개인유지활동이 증가하고, 일과 관련한 생활시간은 크게 감소하는 한편 여가시간의 양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그 질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가족과 관련된 노인들의 생활시간의 사용에는 성별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노인들의 연령, 농가여부, 혼인상태, 지역,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생활세계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김진옥(2006)외에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한 노인 대상의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김주현, 2007; 정경희 외, 2009; 문정란, 2011).

마지막으로,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탈빈곤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소득 뿐만 아니라 시간을 고려한 대안적 빈곤측정과 분석을 시도한 노혜진·김교성(2010)의 연구에서는 가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을 통한 탈빈곤만을 강조하는 복지정책에는 한계성이 존재함을 입증하였으며,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그리고 여가 간의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함을 제언한 바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에서 시간생활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적인 금전적 가치만큼이나 희소한 가치를 지니며, 이러한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시간을 잘 관리하며, 개개인의 생활양식을 나타내주는 지표(한경미, 1991; 문숙재, 1994; 유소이·최윤지, 2002)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듯 빈곤층 역시 시간 활용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인구(대상)집단별 시간사용을 토대로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한 자료들과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은 보고된 바 있지만, 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많이 연구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시간활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빈곤층이 비

빈곤층과 어떠한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시간 이용 형태나 근로 및 구직활동에 할애되는 시간량을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시간 지리학을 통해 본 시간 사용 연구

지리학에서 다루는 접근성 연구는 사회적 또는 신체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빈곤층의 특정 시설이나 복지서비스로의 접근성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빈곤층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배미애(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부산을 대상으로 빈곤층의 공간적 분포를 지도화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시설들의 위치와 빈곤층의 공간적 분포가 얼마만큼 일치하는지를 분석하면서 결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빈곤계층과 사회복지서비스 시설간의 공간적 불일치로 인해 특정 지역에는 서비스가 과대공급 되고 특정지역에는 과소공급 되는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설 혹은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접근성 분석이 가지는 한계점은 이러한 접근성 분석이 시간에 대한 측면을 분석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빈곤 연구와 시간지리학이 만날 수 있는 교차점은 서비스 이용시간이다. 모든 커뮤니티 케어 시설은 운영시간대 (opening hours)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바로 가까이에 있는 시설도 시간대가 맞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직장, 육아, 간병 등으로 하루 대부분의 시간 중 자유재량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 이용자가 되기 어렵다. 은행에 가려고 해도 직장에 매여 있어서 은행 업무 시간에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병원에 가야하나 진료시간이 너무 늦게 시작해서 아침에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받고 싶으나 낮에만 개설되어 있어서 참가가 어려운 경우 등 여러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살펴

볼 수 있는데, 커뮤니티 케어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공간적 접근성을 분석할 때 이와 유사한 사례로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 연구를 검토해볼 수 있다. 대중교통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분석을 할 때 다음의 6As 이론을 살펴볼 수 있다 (Burkhardt, McGavock, Nelson, Mitchell, 2002).

Acceptability: 이용자들 사이에 이 서비스가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 평가할 것

Accessibility: 서비스가 지리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 할 것

Adaptability: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변화 적응할 수 있는지 평가 할 것

Availability: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평가할 것

Affordability: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지 평가할 것

Alternatives: 한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시 대안적 서비스가 있는지 평가할 것

이 중 **availability**는 서비스 제공 시간대와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하기를 원하고 이용 가능한 시간대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영역이다. 이는 커뮤니티 케어의 운영시간대와 이용자들의 재량시간대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지 살펴보려는 본 연구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개념이다. 즉 응답자의 위치 및 이동반경이라는 지리학적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생활시간 조사데이터에도 시간지리학 (time geography) 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면,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을 함께 측정하여 빈곤층의 접근성 문제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는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동수단별 평균 통근 속도를 다른 이차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뒤 변수로 변환하였기에 가능한 것으로 데이터의 한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 재구성하여 학문적 의의를 높이려는 연구진의 시도를 반영한 것이다.

제3절 빈곤층의 접근성 분석

접근성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를 막기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되면서 다양한 접근성 연구들, 특히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해외에서는 대체로 취업기회에 대한 접근성 연구가 주로 다루어졌는데 교통약자 중 장애인에 주목한 연구(Church and Marston, 2003; Casas, 2007)나 인종이나 민족적 차이가 소득이나 교육수준, 거주환경 등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측면에 주목한 연구(Raphael, 1998; Cervero et al., 1999; Gautier and Zenou, 2008), 노인의 접근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Metz, 2000; Jamie et al., 2009) 등이 주를 이룬다. 최근에 수행된 다수의 연구들은 여성이 처한 젠더화 된 규범 등이 여성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접근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도 많다(Kwan, 1999; Kim, 2005; 김현미, 2007; 김현미, 2008).

국내에서는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노인(노시학, 1994; 윤대식·안영희, 2003; 노시학·조창현, 2011)이나 여성(노시학, 2000; 이은숙·정희선, 2003; 정현주, 2007)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특정 교통약자집단의 통행패턴과 통행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비교집단에 비해서 통행거리나 시간, 수단이용의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교통약자들이 보다 넓은 지역에 접근하지 못함을 주장하고 있다.

노인이나 여성과 함께 교통약자 중 하나로 간주되는 빈곤층의 접근성을 분석한 연구는 지리학과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빈곤층을 소득구분에 따라 저소득층이라고 간주할 경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생각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접근성이 낮다는 것이다(Wach and Kumagai, 1973). 하지만 소득이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낮은 소득이 대중교통에 비해 자가용 승용차와 같은 보다 값비싼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낮춤으로써 기동성의 측면에서 이들의 접근성이 고소

득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지만(김태경, 2007), 소득에 따른 주거선택의 영향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미의 경험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기회는 도시외곽의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있는데 반해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싼 도시 중심부에 거주함으로써 교통비용에 따른 취업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Kain, 1992; Preston and McLafferty, 1999; Cervero et al., 1999; Chung et al, 2001).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이용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는 고소득층에 보다 유리하게 진행되면서 저소득층은 접근성이 보다 낮은 곳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북미처럼 자동차 중심의 도시공간구조가 구축되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체계가 미비한 국가에서는 소득에 따른 적절한 교통수단 이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됨으로써 이들의 공간적 배제를 쉽게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Kawabata and Shen, 2006). 뿐만 아니라 소득이 단순히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개인의 특성, 즉 인종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상기할 때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른 접근성 문제는 단순히 소득 그 자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국가 혹은 지역의 다양한 사회공간적 맥락(socio-spatial context)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국내에서는 빈곤층의 공간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최근에서야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기존에 국내에서 수행된 빈곤층에 관한 연구는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를 탐구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구인회, 2002; 최옥금, 2005; 홍경준, 2005). 하지만 이들 이론들은 빈곤층 개인에 집중하면서 빈곤이 모이고 집중하는 공간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간과하였다. 실제로 빈곤은 공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북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활동하는지는 이후의 활동에 있어 많은 제약을 초래한다. 결국 빈곤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

빈곤문제를 공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다. 첫째는 빈곤과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공간적 속성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원호, 2006). 또 다른 측면은 빈곤층의 공간분포를 지도화하여 이들이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목표지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현주 외, 2006).

빈곤층에 대한 공간적 접근이 가지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들은 빈곤층이 공간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빈곤층의 접근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개인이나 집단의 접근성에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도시나 지역이 지닌 공간구조나 맥락, 제도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해외에서는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에 따른 다양한 접근성 분석이 수행되었는데, 북미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교통체계와 도시공간구조는 우리나라와 매우 차별적이어서 기존의 해외의 연구를 그대로 국내적 상황에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장소에 기반한 기존 연구들은 실제 빈곤층이 공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측면을 제시해주지 못한다(Kwan and Weber, 2003). 즉 특정 장소와 공간을 중심으로 한 빈곤지리에는 집중하지만, 개인 혹은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빈곤지리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맥락에서 개인 혹은 집단으로서 빈곤층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성 분석은 일반적인 접근성 분석과 함께 이들을 위한 특정 시설에의 접근성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시설들의 수요 증대와 함께 시설의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도모하고자 한다(손정렬·오수경, 2007; 송경언 외, 2008). Hawthorne and Kwan(2012)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분석하면서 시설에의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인지적 거리

(perceived distance)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손정렬·오수경(2007)은 서울을 대상으로 GIS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노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접근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시설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 지수와 동별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성 지수를 산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신설 혹은 확장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후보지를 제안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산출하면서 특정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인근의 다른 이용자들이 얼마만큼 집중할 것인가를 함께 판단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접근성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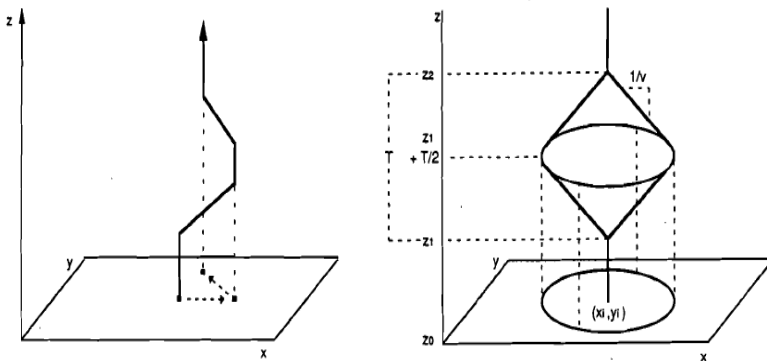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시설로의 접근성 연구가 이뤄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빈곤층의 특정 시설이나 복지서비스로의 접근성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빈곤층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배미애(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부산을 대상으로 빈곤층의 공간적 분포를 지도화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시설들의 위치와 빈곤층의 공간적 분포가 얼마만큼 일치하는지를 분석하면서 결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빈곤계층과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간의 공간적 불일치로 인해 특정 지역에는 서비스가 과대공급 되고 특정지역에는 과소공급 되는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설 혹은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접근성 분석이 가지는 한계점은 이러한 접근성 분석이 시간에 대한 측면을 분석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간적 측면 또한 접근성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Kim, 2005; Kwan et al., 2003). 따라서 기존의 거리근접성에 기초한 ‘공간적’ 접근성에서 탈피하여 시간과 공간이 서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고 개인이 직면한 다양한 제약과 특성, 그리고 그를 둘러싼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시공간적 접근성(space-time accessibility) 측면에서 접근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Kwan and Weber, 2003; 김현미, 2008).

제4절 시간지리학을 이용한 접근성 분석

공간 뿐만 아니라 시간적 측면을 강조하는 접근성 분석방법은 Hägerstrand(1970)의 시간지리학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Miller, 1991; Kwan et al., 2003; Kwan and Weber, 2003). 특히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Lenntorp이 시공간 제약(space-time constraint)과 시공간 프리즘(space-time prism)의 개념을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나타나는 개인의 활동가능공간(potential activity space)을 활용하는 방법이다(김현미, 2005). 즉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패턴과 각각의 활동이 발생하는 위치의 시공간적 고정성을 전제로 하여, 개인이 닿을 수 있는 기회와 수가 얼마인지를 측정함으로써 개인의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Kwan et al., 2003).

[그림 2-1] 시공간 경로(왼쪽)와 시공간 프리즘(오른쪽)



자료: Miller(1991: 290)

시공간 경로는 2차원 평면의 공간에 시간적 차원(z축)을 도입하는 것이다. 즉 (x, y) 좌표축을 특정한 활동이 발생하는 공간적 차원으로 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위치를 3차원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x, y) 좌표 상에서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발생한 시간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름을 의미하며 이를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볼 경우 개인 하루 활동의 시공간 패턴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시공간 프리즘은 시공간적 차원에서 접근성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개념이다. 시간지리학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약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능력제약(capability constraints)은 식사나 수면과 같은 활동에 대한 물리적 능력에 따른 제약을 의미한다. 결합제약(coupling constraints)은 타인이나 혹은 물리적인 사물과 연계된 제약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반드시 만나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일 경우 이는 특정 시공간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위제약(authority constraints)은 법이나 규범, 제도 등의 영향에 따른 제약조건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제약 하에서 개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시공간적으로 고정되는 다양한 의무활동을 가진다. 시공간 프리즘은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이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직장은 일종의 의무활동이며 이는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는 켜기에 해당한다(허우궁, 2006). 의무활동 사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재량시간으로 보는데 이 재량시간 동안 개인이 최대한 이동할 수 있는 공간범위를 활동가능공간(potential activity space)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활동가능공간이 넓을수록 개인의 접근성이 보다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활동가능 범위는 개인의 여건이나 기동성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재량시간이 많을수록 이용 가능한 통행수단이 보다 빠를수록 개인의 활동가능공간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접근성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들은 개인의 접근성을 개인의 일상적인 의무활동 스케줄, 연쇄적인 통행패턴,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고려하여 분석한다(Kim and Kwan, 2003; Neutens et al., 2011). 즉 시공간 제약과 시공간 프리즘의 개념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활동(직장근무, 수면 등)을 개개인의 루틴 속에서 시공간적으로 고정된 활동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시간, 즉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을 추출하여 의무활동의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접근 가능한 기회의 범위를 찾아내는 것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Kim and Kwan(2003)과 Kim(2005)은 기존의 시공간 프리즘에 의한 분석방식이 일상생활에서의 시간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차원의 ‘시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시공간적 접근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시간적 차원을 보다 현실적인 의미로 복원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시공간 접근성의 측정방식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만을 고려할 뿐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 지속시간, 효용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참여시간 등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간의 요소들을 분석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재량시간의 총합보다 특정 활동에 최소한의 요구조건만큼 참여하고 다시 의무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을 만큼의 재량시간이 언제, 얼마만큼 확보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실질적인 접근성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시공간 프리즘에 의한 분석방식이 이용 가능한 기회로서 활동시설들을 분석에 포함시키면서도 실제로 개별 시설의 운영시간(opening hours)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특정 시간에 이용가능한 시설의 시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기회는 매우 달라지며, 이는 공간적으로 아무리 근접해있더라도 특정 시설이 운영되는 시간에 충분한 수준의 재량시간이 없다면 접근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제기한 시공간 접근성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실질적인 분석을 수행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현미(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미국 포틀랜드를 연구지역으로 삼고 기혼 여성의 자녀 연령별로 도시기회에 얼마만큼 접근가능한지를 시공간적 접근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전제로 한 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가족의 재생산 활동에 보다 얽매이면서 자녀를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쏟아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량시간이 부족하고, 특히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이들을 돌보아야하는 시간상에 제약이 있으므로 도시 내에 분포한 다양한 기회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시간에 따라 매우 상이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분석결과 여성의 경우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접근성의 변화폭이 크게 나타나며, 특히 0~3세를 둔 시간

제 근무 여성이 전일제 근무 여성보다 현저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공간적으로 활동이 근접하더라도 가사 및 육아의 부담에 따른 여성의 시간적 구속으로 인해 여성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을 논증한 것이다. 즉 다양한 활동기회들에 대한 실질적 접근시간을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종의 권위제약이자 결합제약으로서 기능하며, 이를 고려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개인의 접근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접근성에 대한 분석방식의 변화는 특정 시설들에 대한 개개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공간적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특정 시설을 공간상의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와 더불어 해당 공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대는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Boilin, 2005). 이러한 정책방안은 실제로 최근 유럽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Mückenberger and Boilin, 2002). 특히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사설서비스(private services)와 다르게 공공서비스는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최대편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간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Neutens et al., 2011).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앞에서 언급한 시공간 접근성의 개념을 사용해서 접근성에 따른 편익이 가장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시설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모형들이 개발되고 있다(Neutens et al., 2010a; Neutens et al., 2010b; Neutens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시간지리학의 시공간 접근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층의 커뮤니티 케어에 관한 접근성을 분석할 것이다. 다만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기존의 모형을 접근성에 대한 하나의 수치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층이 접근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 연구방법론에 관한 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제5절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 케어를 정의하는 방식은 크게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다. 김용득은 유럽의 커뮤니티 케어를 연구하였는데, 영국의 경우 커뮤니티케어를 정부 사회복지 부서에 의해 제공 또는 관리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Brayne and Carr, 2003; 김용득, 2006). 이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보호)를 사회복지적서비스 차원에서만 접근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아동에 관한 서비스 불포함).

- “노인, 약자, 장애인, 빈곤자 등을 위한 거주시설 배치
- 장애인을 위한 케어 서비스와 고용 지원 서비스
-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사람들을 위한 케어 서비스
-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 어린 아동의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Brayne & Carr, 2003; 김용득, 2006)

이러한 협의의 커뮤니티 케어 시설 이용자들의 이동 특성 및 서비스 시간대에 대한 욕구는 많이 연구된 바가 없다. 하지만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 이용자들의 욕구를 추론해 보기로 한다. 2010년 대전시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고객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점이 발표되었다. 복지관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2.4%가 10분 미만, 22%가 20분 미만, 19.7%가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14.3%는 60분 이상 걸린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는 커뮤니티 케어 시설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도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용수단에서는 자가용이 제일 높고 (35.1%), 셔틀버스 (18.5%), 일반버스 (15.9%) 로 나타났다 (대전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2011). 이는 장애인 복지관의 특성상 이용자들이 차량을 이용한 통근을 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커뮤니티 케어를 보다 넓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근린환경, 공공문화복지시설 등도 커뮤니티 케어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

다. 빈곤문화를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근린환경은 주거환경의 특성과 “거주 지역의 도로체계나 문화 시설의 존재 여부(김남줄, 2005)”를 나타낸다. 열악한 근린환경이라고 하면 주거의 안정성이 낮고, 편리하지 않으며 주거로서의 쾌적함이 높지 않은 형태를 띄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연구하며 근린환경을 접근하였는데 근린시설의 예로 우체국, 의료시설, 보육원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을 포함하였다.

앞서 언급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데이터에서는 응답자들이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만 어떤 장소에서 그 행동을 하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즉, 여기에 할애한 시간, 의료에 할애한 시간, 은행 업무에 할애한 시간, 학교 수업에 할애한 시간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를 통해 빈곤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살펴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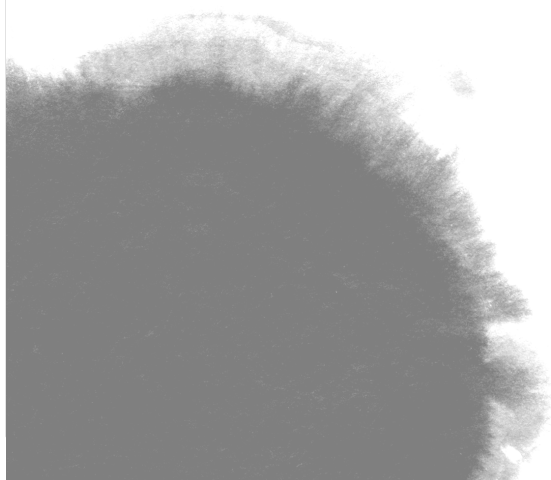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표 2-5>에 제시된 것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근린시설, 문화여가시설, 사회서비스시설, 공공서비스 시설, 금융 및 교육 시설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사용가능한 제반시설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커뮤니티 케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시간 사용을 통해서 알아 볼 수 있는 빈곤층의 라이프스타일은 정형화된 운영시간대(opening hours)를 가지고 있는 복지관 중심의 케어 시설만을 놓고 비교 분석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떤 운영시간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운영시간에 있어서 특색을 가지고 있는 은행, 병원, 보건소를 추후 시공간적 심층분석의 사례로 선정하였다.

〈표 2-6〉 커뮤니티 케어 시설 종류

경로당	여가시설	체육시설	복지관	주민센터
공공문화복지시설	구민회관	마을회관	은행	관공서
학교	도서관	병원	보건소	

3장

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및 비빈곤층과의 시간사용량 비교



제3장 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및 비빈곤층과의 시간사용량 비교

제1 절 생활시간조사데이터

1.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9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는 총 40,526개의 시간일지를 포함한다. 이 중 빈곤층을 예시로 들면 전체 표본의 1.7%에 해당하는 694개의 시간일지로 빈곤층 347명이 이들에 걸쳐 작성한 자료이다(347명 x 2일= 694개 cases). 따라서 빈곤층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고할 때에는 347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고(표 3-1 참조), 시간 사용에 대한 평균을 분석할 때는 시간일지의 첫째날과 둘째날을 모두 포함하여 694 케이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3-2 참조). 또한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에서 제시한 주행동과 동시행동 중 주행동을 기준으로 시간사용 결과를 기술하기로 한다. 이는 미국의 시간사용 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에서 주행동(primary activity)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한 연구방법을 빌려온 것이다.

시간 사용 범주는 연구 목적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 김현미(2007)는 시간지리학을 이용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의무활동을 집안일, 직장일, 개인 용무, 학업이라고 보았다. 또한 장원봉(2002)은 교제활동을 중심으로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빈곤층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친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 나타난 행동분류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응답자의 시간사용 범주는 크게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의 8가지 행동을 기준으로 나뉜다. 이 8가지 범주에 걸쳐 40여개의 중분류가 있고 각각의 중분류 아래에는 하위범주로 2개에서 8개의 소분류가 분포하고 있다. 소분류에 해당하는 세부행동 내용을 담은 행동분류표는 <부록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시간사용을 살펴보기 위해 행동분류표에 나타난 소분류와 중분류를 모두 이용하였다.

제2절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시간사용의 차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그 수치는 <표 3-1>에 나타나있다. 빈곤층과 비빈곤층 모두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혼인상태(20대 이상)는 유배우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연령대는 빈곤층에서는 10대의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으며, 60대가 18.7%로 그 뒤를 이었다. 비빈곤층에서는 40대가 20.2%, 60대가 18.4%의 순이었다. 또한, 빈곤층의 가구원수는 2인가구가 4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인가구 23.3%, 4인가구 19.3%순이었다. 응답자 전체에서 농가에 해당하는 비율은 매우 적었는데, 특히 빈곤층은 1.2%만이 농가로 구분되었고, 비빈곤층은 7.6%가 농가에 해당되었다. 근로여부를 살펴보면, 빈곤층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75.2%로 일을 한 사람보다 훨씬 높은 반면, 비빈곤층은 일을 했었다는 비율이 54.5%로 더 높았다.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 평소 바쁜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빈곤층 68.9%, 빈곤층 55%로 빈곤층에 비해 비빈곤층이 바쁘다고 느끼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시간사용 만족도 역시 보통이상이 비빈곤층 82.9%, 빈곤층 76.4%로 비빈곤층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다.

〈표 3-1〉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인구학적 배경

구분		빈곤층 수 (%)	비빈곤층 수 (%)
성별	남성	156 (45)	9558 (48.0)
	여성	191 (55)	10358(52.0)
혼인상태 (20대 이상만 분석에 포함)	미혼	55 (23.0)	2612 (16.0)
	배우자 있음	126 (52.7)	11856 (72.6)
	사별	22 (9.2)	1376 (8.4)
	이혼	36 (15.1)	496 (3.0)
교육수준	무학	9 (2.6)	903 (4.5)
	초등학교	71 (20.5)	2937 (14.7)
	중학교	60 (17.3)	2919 (14.7)
	고등학교	135 (38.9)	6770 (34.0)
	대학 (4년제 미만)	22 (6.3)	2503 (12.6)
	대학 (4년제 이상)	50 (14.4)	3884 (19.4)
연령	10대	108 (31.1)	3576 (18.0)
	20대	53 (15.3)	2352(11.8)
	30대	39 (11.2)	3514(17.6)
	40대	57 (16.4)	4030 (20.2)
	50대	25 (7.2)	2785 (14.0)
	60대 이상	65 (18.7)	3659 (18.4)
가구원수	1인가구	25(7.2)	1,391(7.0)
	2인가구	164(47.3)	6,252(31.4)
	3인가구	81(23.3)	4,702(23.6)
	4인가구	67(19.3)	5,627(28.3)
	5인가구	10(2.9)	1,559(7.8)
	6인가구 이상	0(0.0)	385(1.9)
농가구분	농가	4(1.2)	1,510(7.6)
	비농가	343(98.8)	18,406(92.4)
근로여부	일을 했음	86 (24.8)	10863(54.5)
	일을 하지 않았음	261 (75.2)	9053(45.5)
평소 바쁜가?	항상 바쁘다	67(19.3)	5,519(27.7)
	가끔 바쁘다	124(35.7)	8,213(41.2)
	거의 바쁘지 않다	96(27.7)	4,334(21.8)
	전혀 바쁘지 않다	60(17.3)	1,850(9.3)
생활시간사용만 족도	매우 만족한다	3(0.9)	383(1.9)
	만족한다	93(26.8)	6111(30.7)
	그저 그렇다	169(48.7)	10016(50.3)
	만족하지않는다	69(19.9)	2994(15.0)
	매우 만족하지않는다	13(3.7)	412(2.1)
전체		347명	19,916명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제3절 응답자의 라이프스타일: 빈곤층 대 비빈곤층

본 절에서는 빈곤층이 어떠한 라이프스타일을 보이는지 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생활시간조사에 포함된 시간량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모든 응답자들은 이를 동안 두 개의 시간일지를 작성하였으므로 빈곤층의 경우 347명의 응답자들이 2개의 케이스를 제공하여 총 694개의 시간일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빈곤층이 특정 행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는지 하는지 살펴보는 실증 연구는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겠지만, 그러한 시간 사용량이 빈곤하지 않은 집단과 견주어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모든 분석은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시간 사용량을 비교한 t-검정값을 제공한다.

1. 개인 유지와 관련된 시간 사용

2009년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에 따르면 첫 번째 시간사용 영역으로 개인유지를 들었다. 이 때 개인유지에 해당되는 행동은,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의료적 건강관리를 포함한다. <표 3-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빈곤층과 비빈곤층은 잠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 사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낮잠과 수면을 모두 포함한 수면 총시간에서 빈곤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에 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t=-3.485$, $p<.05$). 빈곤층은 하루 중 8시간 이상(490.84분)을 수면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비빈곤층은 8시간 미만(478.10분)을 쓰고 있었다. 총 수면시간을 밤에 자는 수면과 낮잠 및 졸음으로 구분해서 비교했을 때에도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수면 평균시간은 빈곤층 465.55분, 비빈곤층 456.85분으로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평균 수면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또한, 낮잠, 졸음 등의 평균시간 역시 빈곤층 25.29분, 비빈곤층 21.25분으로 빈곤층이 더 길게 나타났다.

식사 및 간식으로 대표되는 식품섭취관련 행동은 비빈곤층이 빈곤층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t=2.926$, $p<.05$). 전반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계층이 먹는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하는지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알 수 있다.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은 비빈곤층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 혼자 식사하는 시간은 빈곤층이 더 긴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t=-3.865$, $p<.05$).

〈표 3-2〉 수면 및 식사 관련 활동 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수면 총 시간 (중분류)	비빈곤층	478.10	95.34	-3.485*
	빈곤층	490.84	102.50	
수면 (소분류)	비빈곤층	456.85	90.50	-2.271**
	빈곤층	465.55	100.18	
낮잠, 졸음 (소분류)	비빈곤층	21.25	44.08	-2.130**
	빈곤층	25.29	49.66	
식사 및 간식 총 시간 (중분류)	비빈곤층	104.36	36.76	2.926*
	빈곤층	100.52	34.25	
가족과의 식사(소분류)	비빈곤층	40.12	34.88	2.554
	빈곤층	36.71	34.51	
혼자 식사(소분류)	비빈곤층	16.26	22.65	-3.865*
	빈곤층	19.87	24.41	
가족 외 사람과의 식사(소분류)	비빈곤층	21.93	26.84	0.402
	빈곤층	21.51	27.30	
간식과 음료(소분류)	비빈곤층	26.05	25.31	3.747
	빈곤층	22.42	23.65	

주: 1)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39,832 / 빈곤층= 694

2) **($p<.01$); *($p<.05$)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개인관리를 위한 활동시간은 <표 3-3>에서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빈곤층 평균 69.27분, 비빈곤층 평균 70.75분으로 비빈곤층의 평균이 미미한 수준으로 조금 더 많은 시간량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났다 ($t=0.985$, $p<.01$). 응답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관리

에 시간사용을 하였는지 살펴보면 개인위생, 외모관리(화장, 옷갈아입기 등),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소분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개인위생을 위한 개인관리 활동시간은 빈곤층이 56.54분으로 비빈곤층보다 약간 많은 시간량을 보였으며, 그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빈곤층이 개인위생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는지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개인위생을 포함한 상위범주인 개인유지 활동을 집단별로 비교한 연구에서는 실업자, 주부, 시간제 근로자, 전일제 근로자 순으로 시간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장원봉, 2002).

빈곤여부별 의료건강 관련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빈곤층 평균 9.32분, 비빈곤층 5.78분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t=-2.378$, $p<.01$). 의료건강 관련 활동시간의 유의한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 관련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자가치료를 위한 활동시간은 평균적으로 빈곤층 3.49분, 비빈곤층 1.47분으로 나타났다으며,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활동시간은 평균 빈곤층 3.5분, 비빈곤층 2.91분, 그리고 아파서 그냥 쉬는 시간 평균은 빈곤층 2.33분, 비빈곤층 1.4분으로 전반적으로 의료건강을 위한 활동시간은 빈곤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자가치료와 아파서 쉬는 시간의 경우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빈곤층이 병원의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집 안에서 특별한 방법 없이 쉬는 자가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층이 만성질환 보유율이 높고, 이로 인하여 장기간의 약물복용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과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나 대응방안이 없이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즉, 사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표 3-3〉 개인관리 관련 활동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개인관리(중분류)	비빈곤층	70.75	35.32	0.985**
	빈곤층	69.27	39.33	
개인위생(소분류)	비빈곤층	56.28	29.00	-0.205*
	빈곤층	56.54	32.85	
외모관리(소분류)	비빈곤층	13.48	14.94	2.614
	빈곤층	11.99	14.63	
이미용 (소분류)	비빈곤층	0.98	9.10	0.704
	빈곤층	0.73	7.85	
의료적 건강관리 (중분류)	비빈곤층	5.78	28.76	-2.378**
	빈곤층	9.32	39.04	
자가치료(소분류)	비빈곤층	1.47	9.52	-3.367**
	빈곤층	3.49	15.72	
의료서비스 받기(소분류)	비빈곤층	2.91	16.38	-0.934
	빈곤층	3.50	18.51	
아파서 쉬(소분류)	비빈곤층	1.40	18.28	-1.069**
	빈곤층	2.33	23.01	

주: 1)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39,832 / 빈곤층= 694

2) **($p < .01$); *($p < .05$)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 일과 관련된 시간사용

빈곤여부별 일 관련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표 3-4>에 나타난 것처럼 무급가족종사일 평균은 빈곤층 4.78분, 비빈곤층 5.79분으로 평균의 차이는 있으나, 그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 외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구직활동은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이었는데 그 중 주목할만한 점은 구직활동에서 빈곤층은 3.92분, 비빈곤층은 0.68분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t = -3.278$, $p < .01$). 이는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구직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적다는 점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표 3-4〉 일 관련 활동 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무급가족종사일	비빈곤층	5.79	47.61	0.554
	빈곤층	4.78	43.04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비빈곤층	4.10	38.03	21.517**
	빈곤층	-	-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비빈곤층	2.98	21.76	2.181**
	빈곤층	1.60	16.37	
구직활동	비빈곤층	0.68	10.60	-3.278**
	빈곤층	3.92	25.97	

주: 1)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39,832 / 빈곤층= 694

2) ** (p<.01)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구체적으로 고용된 일 및 자영업에 대한 시간 사용은 경제활동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분석은 근로자만을 선택하여, 비빈곤층과 빈곤층으로 나눈 뒤 비교하였다. 경제활동 여부를 묻는 변수를 기준으로 일을 한 사람은 근로자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비근로자로 구분하였다. 전체 표본에서 절반 이상(54.0%)이 일을 했다고 응답하였고, 비빈곤층 내에서는 54.5%가 근로자, 빈곤층 내에서는 24.8%가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근로여부 및 빈곤층으로 살펴본 표본 구성

구분	경제활동여부	
	근로자수 [일을 했음] (%)	비근로자수 [일을 하지 않았음] (%)
비빈곤층	10,863 (54.5%)	9,053 (45.5%)
빈곤층	86 (24.8%)	261 (75.2%)
합계	10,949 (54.0%)	9,314 (46.0%)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일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만을 선정하여 일 관련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의 <표 3-6>과 같다. 비빈곤층이 빈곤층에 비해 일과 관련

해 약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과 관련된 시간 사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빈곤층과 비빈곤층 사이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부업에 사용하는 평균시간에 있어서는 빈곤층은 미미한 시간사용으로 평균이 0으로 나오는 반면 비빈곤층은 3.31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였다($t=16.165$, $p<.01$).

〈표 3-6〉 일(고용된 일 또는 자영업) 관련 활동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일 관련 시간(중분류)	비빈곤층	295.67	226.43	.488
	빈곤층	287.21	228.52	
주업(소)	비빈곤층	275.48	217.42	.497
	빈곤층	267.21	215.32	
부업(소)	비빈곤층	3.31	30.16	16.165**
	빈곤층	-	-	
일 중 휴식(소)	비빈곤층	4.71	10.21	-.889
	빈곤층	5.41	10.39	
일 관련 연수(소)	비빈곤층	1.08	15.00	-.123
	빈곤층	1.22	11.61	
집에 가져와서 일함(소)	비빈곤층	3.22	19.64	.830
	빈곤층	1.98	10.52	

주: 1) 근로자만 분석대상으로 함

2)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21,726 / 빈곤층= 172

3) **($p<.01$)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3. 학생의 학습

학생의 정규적인 활동시간은 학령기의 아동가구원을 살펴보기 위해 10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전체 가구원을 분석한 내용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3-7>따르면 학생정규 관련 활동시간(10대)의 빈곤층 평

균 256.06분, 비빈곤층 평균 255.79분으로 빈곤층 평균이 조금 높기는 했으나 이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수업, 정규수업 사이의 휴식, 학교에서의 스스로 학습, 학교 행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에서의 기타 학습관련 행동시간은 빈곤층 26.25분, 비빈곤층 21.14분으로 빈곤층이 학교에서 기타 학습관련 활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t=-1.652, p<.01$).

학생의 정규수업시간 외 관련 활동시간을 10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살펴보면, 비빈곤층 평균 138.27분, 빈곤층 평균 80.46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t=9.031, p<.01$). 이는 비빈곤층은 빈곤층에 비해 학교 밖의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위의 학생의 정규수업 이외의 활동시간을 소분류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빈곤층과 비빈곤층간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정규수업 외 수강 활동시간은 비빈곤층 56.58분, 빈곤층 24.21분($t=8.597, p<.01$), 학교 외에서의 스스로 학습 활동시간은 비빈곤층 평균 75.23분, 빈곤층 평균 50.46분($t=4.956, p<.01$)으로 빈곤층에 비해 비빈곤층이 학원 또는 과외를 통한 수강과 도서관 등에서의 자율적인 학습시간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도권 교육 내에서의 정규수업시간에는 빈곤층과 비빈곤층 10대들 사이에 시간사용량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학교 밖에서의 수업 및 학습에서는 비빈곤층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즉, 비빈곤층이 빈곤층에 비해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결과로 판단되며, 이러한 차이는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비 부담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로써 교육의 누적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빈곤층과 비빈곤층 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시키는 결과로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빈곤층 학생들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및 서비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방과 후 학습지원과 인터넷 게임중심의 학생 놀이문화

의 변화를 위한 지원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표 3-7〉 학생의 정규수업 관련 활동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학생의 정규수업(중분류)	비빈곤층	255.79	216.75	-0.018
	빈곤층	256.06	221.27	
학교에서의 기타 학습관련 행동 (소분류)	비빈곤층	21.14	28.61	-1.652**
	빈곤층	26.25	45.20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중분류)	비빈곤층	138.27	123.54	9.031**
	빈곤층	80.46	91.59	
정규수업의 수강(소분류)	비빈곤층	56.58	79.82	8.597**
	빈곤층	24.21	53.56	
학교외에서의 스스로 학습(소분류)	비빈곤층	75.23	91.95	4.956**
	빈곤층	50.46	71.68	
학교외에서의 기타 학습관련 행동(소분류)	비빈곤층	6.46	14.72	0.667
	빈곤층	5.79	11.39	

주: 1) 10대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7,152 / 빈곤층= 216

3) ** (p<.01)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4. 가정관리

음식준비 관련 활동시간은 비빈곤층이 평균 45.07분, 빈곤층이 평균 46.53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표 3-8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식사준비, 설거지 및 식후 정리, 간식 및 비일상적 음식만들기의 세 가지 소분류 항목에서 빈곤층과 비빈곤층간의 차이가 없었다.

요약해보면, 응답자들은 30분 미만의 시간을 들여 식사준비를 하고, 약 15분 가량 설거지 및 식후정리를 하며 간식이나 비정기적으로 먹을 음식을 만드는데 약 5분 정도 소비하고 있었다.

〈표 3-8〉 음식준비 관련 활동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음식준비 및 정리(중분류)	비빈곤층	45.07	65.08	-0.586
	빈곤층	46.53	65.44	
식사준비(소분류)	비빈곤층	26.27	38.63	-0.971
	빈곤층	27.71	38.12	
설거지, 식후정리(소분류)	비빈곤층	14.26	22.69	-0.036
	빈곤층	14.29	22.32	
간식 및 비일상적 음식 만들기(소분류)	비빈곤층	4.53	19.52	0.011
	빈곤층	4.52	23.15	

주: 1)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39,832 / 빈곤층= 694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가정관리 항목 중에서도 음식준비 및 정리는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경향이 있기에 위의 분석을 여성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표 3-9참조). 전체적으로 시간 사용패턴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평균이 큰 차이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여성응답자들은 음식준비와 관련해서 하루에 한시간 이상을 소비하는데, 식사준비는 40분 이상, 설거지 및 뒷정리는 20분 이상, 간식 만들기도 7~8분 가량 보내고 있었다.

〈표 3-9〉 여성의 음식준비 관련 활동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음식준비 및 정리(중분류)	비빈곤층	78.97	72.48	.600
	빈곤층	70.89	73.82	
식사준비(소분류)	비빈곤층	46.34	43.06	.613
	빈곤층	42.04	42.25	
설거지, 식후정리(소분류)	비빈곤층	24.69	26.01	.811
	빈곤층	22.23	25.45	
간식 및 비일상적 음식 만들기(소분류)	비빈곤층	7.94	25.38	.121
	빈곤층	6.62	28.74	

주: 1) 여성응답자만 분석대상으로 함
2)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20,716 / 빈곤층= 382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의류와 관련한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평균의 차이는 빈곤층 평균 11.44분, 비빈곤층 평균 10.86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표 3-10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옷정리(세탁물 걷기, 옷장 정리 등), 다림질·바느질·의류손질, 의류수선 및 세탁서비스 받기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옷정리는 빈곤층 평균 3.54분, 비빈곤층 평균 2.81분으로 빈곤층의 평균 활동시간이 더 많았으며($t=-1.678$, $p<.01$), 다림질·바느질·의류손질과 의류수선 및 세탁서비스 받기는 모든 응답자들이 하루 중 1분 미만이라는 아주 적은 시간을 할애하였는데 전자와 후자 모두 비빈곤층이 빈곤층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그 외 세탁 관련 시간과 재봉, 뜨개질 관련 시간은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표 3-10〉 의류 관련 활동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의류 관리 (중분류)	비빈곤층	10.86	23.78	-0.634
	빈곤층	11.44	22.43	
세탁 및 세탁물 널기 (소분류)	비빈곤층	6.85	15.76	-0.733
	빈곤층	7.29	15.19	
옷 정리(소분류)	비빈곤층	2.81	9.83	-1.678**
	빈곤층	3.54	11.43	
다림질, 바느질, 의류손질(소분류)	비빈곤층	0.87	5.70	2.623**
	빈곤층	0.50	3.55	
의류수선, 세탁 서비스 받기(소분류)	비빈곤층	0.09	1.39	4.483**
	빈곤층	0.01	0.38	
재봉, 뜨개질(소분류)	비빈곤층	0.25	6.33	0.689
	빈곤층	0.09	2.28	

주: 1)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39,832 / 빈곤층= 694

2) **($p<.01$)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전체 청소 및 정리 관련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빈곤층 평균 19.06분, 비빈곤층 평균 18.91분으로 나타났다<표 3-11 참조>. 세부적으로 항목을 살펴보면, 방·물품정리를 위한 시간은 빈곤층 평균 4.99분, 비빈곤층 평균 4.13분으

로 빈곤층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방과 물품정리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t=-1.884, p<.01$). 그러나 그 외의 청소 및 정리를 위한 시간은 비빈곤층 평균 3.73분, 빈곤층 평균 2.62분으로 비빈곤층의 평균 활동시간이 더 많았다($t=2.732, p<.01$). 문헌을 검토하면서 청소에 걸리는 시간과 소득수준을 연관 지은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제시해 본다.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나누어 주거전용면적, 가구원대비 주거전용면적, 가구원수를 살펴본 결과, 비빈곤층의 주거면적이 빈곤층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의 평균을 살펴보면,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이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빈곤층은 주거 공간이 좁기에 수납공간 역시 부족하여 방, 물품정리(소분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고, 비빈곤층의 경우 가구원수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외 청소 및 정리 시간에 (소분류) 비빈곤층보다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볼 수 있다.

〈표 3-11〉 청소 및 정리 관련 활동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청소 및 정리 (중분류)	비빈곤층	18.91	29.12	-0.135
	빈곤층	19.06	28.05	
방 · 물품 정리(소분류)	비빈곤층	4.13	10.53	-1.884**
	빈곤층	4.99	11.85	
집안 청소(소분류)	비빈곤층	11.05	20.02	-0.525
	빈곤층	11.46	19.16	
그 외 청소 및 정리 (소분류)	비빈곤층	3.73	13.23	2.732**
	빈곤층	2.62	10.28	

주: 1)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39,832 / 빈곤층= 694
2) ** (p<.01)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표 3-12〉 주거전용면적 및 가구원 수

(단위: m², m²/명,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주거전용면적	비빈곤층	80.43	31.95	48.84**
	빈곤층	45.92	18.13	
주거전용면적/가구원수	비빈곤층	30.00	16.50	29.79
	빈곤층	19.20	9.29	
가구원 수	비빈곤층	3.05	1.20	11.26**
	빈곤층	2.63	.968	

주: ** (p<.01)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을 위한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비빈곤층 평균 9.96분, 빈곤층 평균 9.18분으로 비빈곤층의 평균 활동시간이 유의한 수준의 차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0.914$, $p<.05$). 미국 내 연구에서는 빈곤층이 비빈곤층보다 식품구입과 같은 생활용품 관련 쇼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Goodman, 2008) 본 연구 결과는 이와는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3〉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관련 활동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물품구입(중분류)	비빈곤층	9.96	24.70	0.914*
	빈곤층	9.18	22.28	

주: 1)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39,832 / 빈곤층= 694

2) * (p<.05)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가정경영 관련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빈곤층 평균 2.41분, 비빈곤층 평균 1.39분으로 빈곤층의 평균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였다($t=-1.286$, $p<.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부 정리, 가정계획을 위한 활동시간은 비빈곤층 평균이 빈곤층의 평균보다 길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은행 및 공공서 일보기의 경우, 빈곤층 평균 2.22분, 비빈곤층 평균 1.05분으로 빈곤층의

평균이 두 배 가량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t=-1.496, p<.01$). 즉 빈곤층은 빈곤하지 않은 계층에 비해 은행 및 관공서로 일을 직접 보러가는 빈도가 많거나, 한번 방문 시에 업무를 마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국내 연구 중 소득수준별 은행이용 형태를 살펴보는 논문은 찾기 어려웠지만 인터넷 뱅킹 이용자에 한해서는 일부 관련 자료가 있었다. 황경연·문희철(2001)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뱅킹이용자들은 젊고, 고학력자이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의 경우 인터넷뱅킹 이용자가 다양성을 띄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특색이 있는 점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뱅킹 또는 온라인을 이용한 관공서 이용에 한정지어 조사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빈곤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에 비해 은행 및 관공서 일 보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2007년 서울시내 은행분포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은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소득이 높은 지역에는 많은 종류의 은행과 지점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반해 소득이 낮은 지역에는 다양한 은행들이 입점해있지 않고 수도 적은 형태를 보였다(정혁준·유희곤, 2007). 즉, 빈곤층은 은행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살고 있는 가능성이 큼에도 실제 사용 시간은 비빈곤층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은행 및 관공서로 일을 보러 가는 빈도가 많거나, 한 번 방문하면 업무를 마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유추해볼 수도 있다.

〈표 3-14〉 가정경영 관련 활동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가정경영(중분류)	비빈곤층	1.39	9.68	-1.286**
	빈곤층	2.41	20.70	
가계부 정리(소분류)	비빈곤층	0.22	2.43	0.653
	빈곤층	0.16	2.04	
가정계획(소분류)	비빈곤층	0.12	3.16	0.760
	빈곤층	0.03	0.76	
은행 및 관공서 일 보기(소분류)	비빈곤층	1.05	8.65	-1.496**
	빈곤층	2.22	20.49	

주: 1)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39,832 / 빈곤층= 694

2) **($p < .01$)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5. 가족보살피기

가족 보살피기 행동은 가족 구성원의 연령대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취학 아동 보살피기 관련 활동시간의 경우, 비빈곤층과 빈곤층의 평균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다. 비빈곤층 평균은 17.95분, 빈곤층 평균은 10.25분으로 비빈곤층의 미취학 아동 관련 보살핌 활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t=3.795$, $p<.05$). <표 3-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돌보기 활동시간 평균은 비빈곤층이 빈곤층보다 두 배가량 더 길었다(비빈곤층 9.18분, 빈곤층 4.41분). 놀아주기에 할애한 시간은 비빈곤층이 5.33분, 빈곤층이 3.56분이었다. 그 밖에 공부 봐주기와 간호는 각각 2분 미만, 1분 미만의 시간사용을 보이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 제외하였다. 전체적으로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초·중고 자녀 보살피기에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였는데 계층 구분 없이 7-8분의 시간 사용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씻기거나 등하교 돕기와 같은 물리적으로 자녀를 돌보아 주는 행동은 빈곤층이 비빈곤층 응답자보다 약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나(빈곤층 4.06, 비빈곤층 3.16), 숙제·공부봐주기와 같은 학업적 측면에서는 비빈곤층이 빈곤층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비

빈곤층 3.01, 빈곤층 1.82). 그 밖의 초·중·고생 관련 보살피기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간호 및 선생님과 상담은 하루 중 1분 미만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 논하지 않았다.

〈표 3-15〉 가족보살피기 관련 활동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중분류)	비빈곤층	17.95	61.42	3.795*
	빈곤층	10.25	43.75	
신체적 돌보기 (소분류)	비빈곤층	9.18	37.57	4.677*
	빈곤층	4.41	21.81	
놀이주기(소분류)	비빈곤층	5.33	22.73	2.106*
	빈곤층	3.56	18.16	
초중고생 보살피기(중분류)	비빈곤층	7.77	28.02	-.275
	빈곤층	8.14	29.00	
씻기, 등하교 돕기(소분류)	비빈곤층	3.16	12.10	-.1558*
	빈곤층	4.06	12.48	
숙제·공부 봐주기(소분류)	비빈곤층	3.01	15.18	2.081*
	빈곤층	1.82	12.35	

주: 1) 20대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함
2)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32,680 / 빈곤층= 478
3) * (p<.05)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배우자 보살피기 관련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비빈곤층의 평균시간이 빈곤층의 평균시간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 보살피기를 위한 활동시간은 비빈곤층이 할애하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비빈곤층 평균 2.22분, 빈곤층 평균 1.05분),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였다($t=4.043$, $p<.05$).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관련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비빈곤층의 평균 시간이 빈곤층의 평균시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및 조부모 보살핌을 위한 시간의 평균은 비빈곤층 1.52분, 빈곤층 0.46분으로 비빈곤층이 더 높았다. 즉 비빈곤층이 배우자 보살핌이나 (조)부모 보살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는데 이들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표 3-16〉 배우자 및 (조)부모 보살피기 관련 활동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배우자보살피기 (중분류)	비빈곤층	2.22	12.92	4.043*
	빈곤층	1.05	6.16	
(조)부모 보살피기(중분류)	비빈곤층	1.52	17.38	4.150*
	빈곤층	0.46	5.16	

주: 1) 20대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함

2)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32,680 / 빈곤층= 478

3) * (p<.05)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6. 참여 및 봉사활동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에 따르면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와 같은 가족 구성원 중심 라이프스타일 또는 일, 학습과 같은 의무사항 이외에도 사회적 참여활동에 대해 구별해 놓았다. 이에 연구진은 응답자들이 봉사활동에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하루 중 소요시간이 1분 미만으로 해당행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작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지 않았다. 이외의 사회참여활동과 자원봉사 활동 역시 두 집단 모두 1분 미만의 시간사용을 나타내고 있어 보고서 기술에서 제외하였다.

요약하면, 빈곤층과 비빈곤층 모두 사회 참여 및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하루에 소요하는 시간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 교제 및 여가활동

교제활동 관련 활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빈곤층 평균 49.76분, 비빈곤층 평균 48.58분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화를 이용한 교제 활동시간은 빈곤층 평균 11.22분과 비빈곤층 평균 8.28분($t=-3.731, p<.01$), 인터넷을 이용한 교제 활동시간은 빈곤층 평균 2.12분과 비빈곤층 평균 1.4분($t=-1.689, p<.01$)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매체를 활용한 교제 활동은 빈곤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였다.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이나 전화/문자를 사용한 교제에서 빈곤층의 시간사용이 비빈곤층 계층보다 많게 나타나는 것은 연구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이라 볼 수 있다.

반면, 가족 및 친지와 교제 활동시간은 비빈곤층 평균 10.14분과 빈곤층 평균 6.84분($t=4.440, p<.01$), 성묘 및 벌초를 위한 활동시간은 비빈곤층 평균 1.59분, 빈곤층 평균 0.43분($t=4.039, p<.01$)으로 가족 및 친지와 보내는 시간, 성묘 및 벌초와 같이 특정 장소에 가서 활동에 대해서는 비빈곤층의 시간 사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제 및 여가활동 부분을 살펴보면 빈곤층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제한적인 공간에서 타인과 소통을 하는 반면, 비빈곤층은 가족 등 타인들과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이는 빈곤층은 보다 제한적인 공간에서 교제활동을 함을 알 수 있었으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결과의 차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표 3-17〉 교제활동 관련 활동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교제활동 (중분류)	비빈곤층	48.58	54.99	-0.557
	빈곤층	49.76	51.06	
전화(문자) 교제 (소분류)	비빈곤층	8.28	15.56	-3.731**
	빈곤층	11.22	20.66	
가족·친척과의 교제(소분류)	비빈곤층	10.14	26.35	4.440**
	빈곤층	6.84	19.27	
그외 사람들과의 교제(소분류)	비빈곤층	26.96	41.71	-1.075
	빈곤층	28.67	40.82	
인터넷을 이용한 교제(소분류)	비빈곤층	1.40	9.38	-1.689**
	빈곤층	2.12	11.19	
성묘, 벌초(소분류)	비빈곤층	1.59	17.54	4.039**
	빈곤층	0.43	7.15	

주: 1)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39,832 / 빈곤층= 694

2) ** (p<.01)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미디어이용 관련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빈곤층 평균 165.46분과 비빈곤층 평균 137.75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빈곤층이 미디어 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5.124$, $p<.01$). 즉, 빈곤층은 하루 중 2시간 45분을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을 하는데 반해, 빈곤하지 않은 집단은 2시간 17분을 사용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문을 보는 시간은 비빈곤층 평균 4.34분과 빈곤층 평균 3.27분으로 비빈곤층이 신문을 통한 미디어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모든 미디어 사용에서는 빈곤층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빈곤층은 비빈곤층보다 잡지를 읽는데 세 배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였고, 라디오를 듣는데 두 배 가량 시간을 보냈으며, 음악듣기, 검색을 제외한 인터넷 사용(개인홈페이지, 블로그 관리, 영화)에서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빈곤층은 하루 평균 2시간 23분을 TV 시청 시간에 보내고 있었는데, 비빈곤층은 같은 행동에 있어 그보다 통계적으로 적은 2시간 미만의 시간

사용을 보이고 있었다($t=-4.837, p<.01$).

즉, 빈곤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TV를 더 오래보고, 잡지 읽기, 라디오 듣기, 음악듣기, 인터넷 사용과 같은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시간을 더 길게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혼자서 보내는 여가시간이 많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교제활동에서 빈곤층의 특성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인간관계 혹은 사회관계에서 배제되어 고립적인 형태의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커뮤니티케어와 서비스는 인간관계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3-18〉 빈곤여부별 미디어이용 관련 활동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미디어이용(중분류)	비빈곤층	137.75	117.52	5.124**
	빈곤층	165.46	141.62	
신문(소분류)	비빈곤층	4.34	14.34	2.092**
	빈곤층	3.27	13.39	
잡지(소분류)	비빈곤층	0.40	4.48	-2.283**
	빈곤층	1.18	9.01	
TV (소분류)	비빈곤층	118.55	110.62	-4.837**
	빈곤층	143.14	133.15	
비디오, DVD, PMP, DMB (소분류)	비빈곤층	0.53	7.19	0.035
	빈곤층	0.52	6.45	
라디오(소분류)	비빈곤층	0.77	9.02	-1.434**
	빈곤층	1.53	13.84	
CD, TAPE, Mp3 등(소분류)	비빈곤층	0.82	6.71	-1.303**
	빈곤층	1.20	7.59	
인터넷 정보검색 (소분류)	비빈곤층	9.62	27.02	-0.750
	빈곤층	10.40	31.73	
기타 인터넷 (소분류)	비빈곤층	2.72	16.23	-1.710**
	빈곤층	4.22	23.04	

주: 1)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39,832 / 빈곤층= 694

2) **($p<.01$)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일반인 학습 관련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빈곤층 평균이 20.44분으로 비빈곤층 평균 9.65분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t=-2.961$, $p<.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어 학습을 위한 시간은 빈곤층 평균 6분, 비빈곤층 평균 1.56분이었으며, 자격증 및 취업 관련 학습 또한 빈곤층 8.79분, 비빈곤층 5.07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빈곤한 성인들은 학생의 정규 수업과 같은 의무 사항이 아닌 여가 활동으로서의 학습을 하는데 일정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국어, 컴퓨터, 자격증 학습과 같은 부분에서 비빈곤층보다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으며, 유일하게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 부분은 취미로 학습하는 영역이었다.

장원봉(2002)의 연구에서와 같이 실업자는 시간제근로자, 주부, 전일제근로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반인의 학습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빈곤층의 75.2%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앞서 언급한 논문의 실업상태의 응답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빈곤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참여를 위한 학습 관련 활동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19〉 20대 이상 일반인 학습 관련 활동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일반인학습 (중분류)	비빈곤층	9.65	54.38	-2.961**
	빈곤층	20.44	79.42	
외국어 학습(소분류)	비빈곤층	1.56	17.71	-2.213**
	빈곤층	6.00	43.91	
컴퓨터 학습(소분류)	비빈곤층	0.75	11.42	-1.217**
	빈곤층	1.67	16.60	
자격증, 취업 학습(소분류)	비빈곤층	5.07	44.66	-1.446**
	빈곤층	8.79	55.87	
취미 학습(소분류)	비빈곤층	1.10	11.75	0.222
	빈곤층	0.98	11.09	
기타 학습(소분류)	비빈곤층	1.17	17.29	-1.292**
	빈곤층	2.99	30.74	

주: 1)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32,680/빈곤층= 478
3) **($p<.01$)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종교활동 관련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빈곤층 평균 16.05분과 비빈곤층 평균 12.67분으로 빈곤층이 종교활동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1.670, p<.01$). 그 중에서도 개인적 종교활동 모임을 위한 시간은 빈곤층 평균 5.69분, 비빈곤층 평균 3.68분이었으며($t=-1.896, p<.01$), 종교 집회 및 모임 참가를 위한 시간 역시 빈곤층 평균 8.59분, 비빈곤층 평균 7.07분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t=-1.127, p<.05$)로 빈곤층의 평균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곤층의 경우에 비빈곤층에 비해 종교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빈곤층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있어서 종교기관이나 단체의 활용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3-20〉 종교활동 관련 활동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종교활동 (중분류)	비빈곤층	12.67	51.46	-1.670**
	빈곤층	16.05	52.95	
개인적 종교 활동(소분류)	비빈곤층	3.68	21.88	-1.896**
	빈곤층	5.69	27.74	
종교 집회 · 모임 (소분류)	비빈곤층	7.07	32.92	-1.127*
	빈곤층	8.59	35.29	
그외 종교 관련 (소분류)	비빈곤층	1.92	16.80	0.227
	빈곤층	1.77	13.54	

주: 1)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39,832 / 빈곤층= 694

2) **($p<.01$); *($p<.05$)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관람 및 문화 관련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빈곤층 평균 2.68분과 비빈곤층 평균 2.44분으로 하루 중 차지하는 비율이 적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영화 연극, 콘서트, 전시회 및 박물관 관람의 전 영역에서 1분 미만에서 2분 사이의 미미한 시간 사용을 보였으므로 본 보고서의 집필에서 제외하였다.

스포츠 및 레저 관련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빈곤층 평균 32.82분과 비빈곤층 평균 29.26분으로 빈곤층이 더 많은 활동 시간량을 보였으나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집단별로 어떠한 체육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걷기 및 산책을 위한 시간은 빈곤층 평균 20.26분, 비빈곤층 평균 13.4분으로 빈곤층이 걷기와 산책과 같은 운동을 즐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950, p<.01$). 반면, 등산 및 하이킹은 비빈곤층 평균 3.5분, 빈곤층 평균 0.37분으로 비빈곤층이 등산과 하이킹을 통한 스포츠를 즐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10.247, p<.01$), 이 둘은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그 외 개인적인 체력 단련과 단체 스포츠 관련 활동에 있어서는 응답자들이 평균 4-5분의 시간을 사용했는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걷기 및 산책과 같이 비교적 시간할애가 크지 않은 활동의 경우에는 빈곤층의 시간량이 더 많은 반면, 시간할애와 제한적인 장소의 선택이 필요한 등산 및 하이킹과 같은 활동은 비빈곤층의 시간량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21〉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 관련 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스포츠 및 레저(중분류)	비빈곤층	29.26	56.24	-1.655
	빈곤층	32.82	59.08	
걷기, 산책(소분류)	비빈곤층	13.40	34.60	-3.950**
	빈곤층	20.26	45.54	
등산, 하이킹(소분류)	비빈곤층	3.50	25.48	10.247**
	빈곤층	0.37	7.30	
체력단련(소분류)	비빈곤층	5.55	20.78	0.894
	빈곤층	4.84	18.80	
단체 스포츠(소분류)	비빈곤층	4.80	24.72	-0.465
	빈곤층	5.24	24.35	

주: 1)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39,832 / 빈곤층= 694

2) **($p < .01$)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취미 및 여가 관련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빈곤층 평균 73.13분으로 비빈곤층 평균 51.03분에 비해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며 큰 시간량을 보였다 ($t=-6.338, p<.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컴퓨터 게임 시간량은 빈곤층 평균 30.65분, 비빈곤층 평균 15.15분으로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그 외에도 술, 춤, 노래방을 포함한 유흥,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쉬기 등의 활동시간이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에 비해 취미 및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수치를 보여 줌과 동시에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이 게임을 하거나 쉬는 등 혼자 하는 여가 생활에 더 치중되어 있으며,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비해 취미 및 여가의 질이 그리 높지 않음 또한 유추해볼 수 있다.

이 결과를 요약해보면 빈곤층은 하루 중 1시간 10분 이상 취미 및 여가활동을 하는 반면, 빈곤하지 않은 계층은 한 시간 미만인 약 50분만을 같은 활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휴대전화 게임을 포함한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있어 빈곤층 응답자는 약 30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비빈곤층 응답자에 비해 두 배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과 <표 3-2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비용부담능력의 차이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빈곤층은 제한적인 공간에서 비용을 동반하지 않은 교제 및 여가에 치중하는 것이며, 비빈곤층은 비용 부담과 더불어 활동적인 교제 및 여가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표 3-22> 취미 및 여가활동 관련 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취미 및 여가 (중분류)	비빈곤층	51.03	71.63	-6.338**
	빈곤층	73.13	91.35	
독서(소분류)	비빈곤층	7.93	26.53	-0.943
	빈곤층	9.01	29.94	
컴퓨터 게임(소분류)	비빈곤층	15.15	46.24	-5.839**
	빈곤층	30.65	69.66	
놀이(소분류)	비빈곤층	5.76	25.79	-1.097
	빈곤층	6.84	26.44	
그 외 취미활동(소분류)	비빈곤층	1.35	14.61	1.923*
	빈곤층	0.72	8.40	
유흥(소분류)	비빈곤층	5.17	24.38	-1.555**
	빈곤층	7.09	32.42	
담배 (소분류)	비빈곤층	1.83	7.99	-0.553
	빈곤층	2.00	8.97	
아무것도 안하고 쉼(소분류)	비빈곤층	13.85	27.13	-2.354**
	빈곤층	16.82	33.04	

주: 1)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39,832 / 빈곤층= 694

2) ** (p<.01); * (p<.05)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이동 관련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빈곤층과 비빈곤의 이동 패턴 및 라이프 스타일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빈곤층은 우선 이동수단을 이용하기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고(빈곤층 2.09분, 비빈곤층 1.33분), 20대 이상 응답자에게만 해당하는 일반인의 학습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역시 두 배 이상 더 걸렸다(빈곤층 3.23분, 비빈곤층 1.42분). 반면 비빈곤층은 출퇴근하는데 빈곤층보다 두 배 이상 시간을 사용했는데(빈곤층 11.79, 비빈곤층 26.12) 이는 빈곤층이 더 가까운 곳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이라기보다, 근로하고 있는 응답자의 수가 비빈곤층보다 적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한 교제 활동을 위한 이동 시간면에서는 비빈곤층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들이 보다 넓은 반경 내에서 교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3-23〉 이동 관련 활동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비빈곤층	1.33	5.46	-2.593*
	빈곤층	2.09	7.72	
개인유지	비빈곤층	9.07	22.47	0.847
	빈곤층	8.34	20.97	
출·퇴근	비빈곤층	26.12	41.36	11.125**
	빈곤층	11.79	33.49	
그 외 일 관련	비빈곤층	8.99	30.46	6.460**
	빈곤층	3.72	21.10	
통학 및 학습 :10대만	비빈곤층	56.46	47.97	2.685
	빈곤층	47.59	43.01	
가정관리	비빈곤층	8.27	20.79	0.525
	빈곤층	7.85	17.32	
가족 보살피기	비빈곤층	4.64	19.01	1.820**
	빈곤층	3.34	18.57	
교제활동	비빈곤층	14.04	42.62	2.063**
	빈곤층	11.41	33.04	
일반인의 학습(소분류): 20대 이상	비빈곤층	1.65	12.26	-2.409*
	빈곤층	4.33	24.25	

주: 1) 통학 및 학습 관련 이동은 10대만, 일반인의 학습 관련 이동은 20대 이상을 포함하였음.

2) 총 분석 케이스 비빈곤층 n=39,832 / 빈곤층= 694

3) **(<0.01); *(<0.05)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제4절 소결

본 장은 빈곤층과 비빈곤층과의 시간사용량 비교를 통해 두 집단이 어떠한 형태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성을 파악하여 시간지리학적 접근과 함께 생활패턴을 살펴보기 위함과 적절한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장의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건강관리 등 ‘개인유지’와 관련된 시간 사용이다. 낮잠과 수면을 모두 포함한 수면 총시간에서 빈곤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에 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빈곤층은 하루 중 8시간 이상을 수면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비빈곤층은 8시간 미만을 쓰고 있었다. 총 수면시간을 밤에 자는 수면과 낮잠 및 졸음으로 구분해서 비교했을 때에도 빈곤층의 수면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식사 및 간식으로 대표되는 식품섭취관련 행동은 비빈곤층이 빈곤층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계층이 먹는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하는지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혼자 식사하는 시간은 빈곤층이 더 길었다. 전반적으로 의료건강을 위한 활동시간은 빈곤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자가치료와 아파서 쉬는 시간의 경우가 빈곤층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병원의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집 안에서 특별한 방법 없이 쉬는 자가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층이 만성질환 보유율이 높고, 이로 인하여 장기간의 약물복용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과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나 대응방안이 없이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즉, 사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둘째, ‘일’과 관련된 시간활용 결과이다. 빈곤여부별 일 관련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구직활동을 위해 시간을 더 많이 활용

하고 있었다. 근로자만을 선정하여 일 관련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부업에 사용하는 평균시간에 있어서는 빈곤층은 미미한 시간사용으로 평균이 0으로 나오는 반면 비빈곤층은 3.31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규수업, 정규수업 외 학습에 관련한 시간활용 항목이다. 학생의 정규 수업 관련 활동시간은 학령기의 이동기구원을 살펴보기 위해 10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학생의 정규 관련 활동시간은 별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에서의 기타 학습관련 행동시간은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길게 나타나 학교에서 기타 학습관련 활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의 정규수업시간 외 관련 활동시간은 비빈곤층은 빈곤층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학교 밖의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정규수업 외 수강 활동시간은 빈곤층에 비해 비빈곤층이 학원 또는 과외를 통한 수강과 도서관 등에서의 자율적인 학습시간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도권 교육 내에서의 정규수업시간에는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의 차이는 별로 없으나, 학교 밖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빈곤층이 빈곤층에 비해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결과로 판단되며, 이러한 차이는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비 부담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로써 교육의 누적효과를 생각해본다면 빈곤층과 비빈곤층 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시키는 결과로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빈곤층 학생들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및 서비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방과 후 학습지원과 인터넷 게임중심의 학생 놀이문화의 변화를 위한 지원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넷째,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 활용이다. 가정경영 관련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빈곤층 평균 2.41분, 비빈곤층 평균 1.39분으로 빈곤층의 평균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괄목할만한 점은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의 경우, 빈곤층 평균이 비빈곤층 평균에 비해 두 배 가량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층은 은행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살고 있는 가능성이 큼에도 실제 사용 시간은 비빈곤층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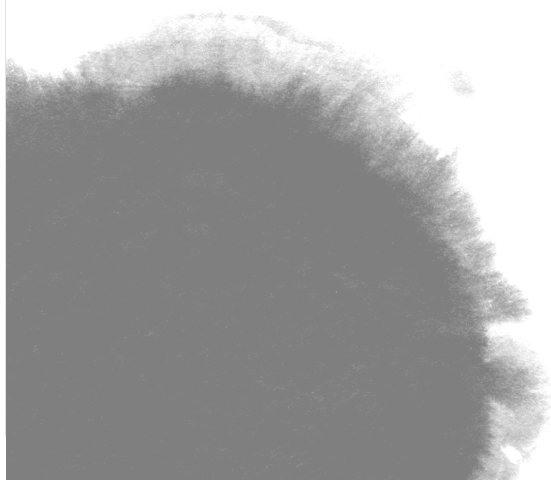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또한, 빈곤층은 빈곤하지 않은 계층에 비해 은행 및 관공서로 일을 직접 보러가는 빈도가 많거나, 한번 방문시에 업무를 마치는데 더 오래 걸렸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다섯째, ‘교제 및 여가활동’과 관련한 시간사용 결과이다.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매체를 활용한 교제 활동은 빈곤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보다 제한적인 공간에서 교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디어이용 관련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TV를 더 오래보고, 잡지 읽기, 라디오 듣기, 음악듣기, 인터넷 사용과 같은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시간을 더 길게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였다. 이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혼자서 보내는 여가시간이 많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교제활동을 위한 시간활용에서의 빈곤층의 특성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빈곤한 성인들은 학생의 정규 수업과 같은 의무 사항이 아닌 여가 활동으로서의 학습을 하는데 일정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분야는 외국어, 컴퓨터, 자격증 학습이었고, 이는 빈곤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참여를 위한 학습 관련 활동을 많이 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즉,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비용부담능력의 차이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빈곤층은 제한적인 공간에서 비용을 동반하지 않은 교제 및 여가에 치중하는 것이며, 비빈곤층은 비용부담과 더불어 활동적인 교제 및 여가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요 연구결과는 빈곤층의 라이프스타일은 비빈곤층과 비교하여 다른 점이 있으며 이것이 빈곤의 원인 혹은 빈곤의 결과로 연결 되는지를 연구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빈곤층과 비빈곤층이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공간적 접근성을 계산해 보기로 하겠다.

4장

빈곤층 커뮤니티 케어의 접근성분석



제4장 빈곤층 커뮤니티 케어의 접근성 분석

제1 절 분석방법론

1. 분석자료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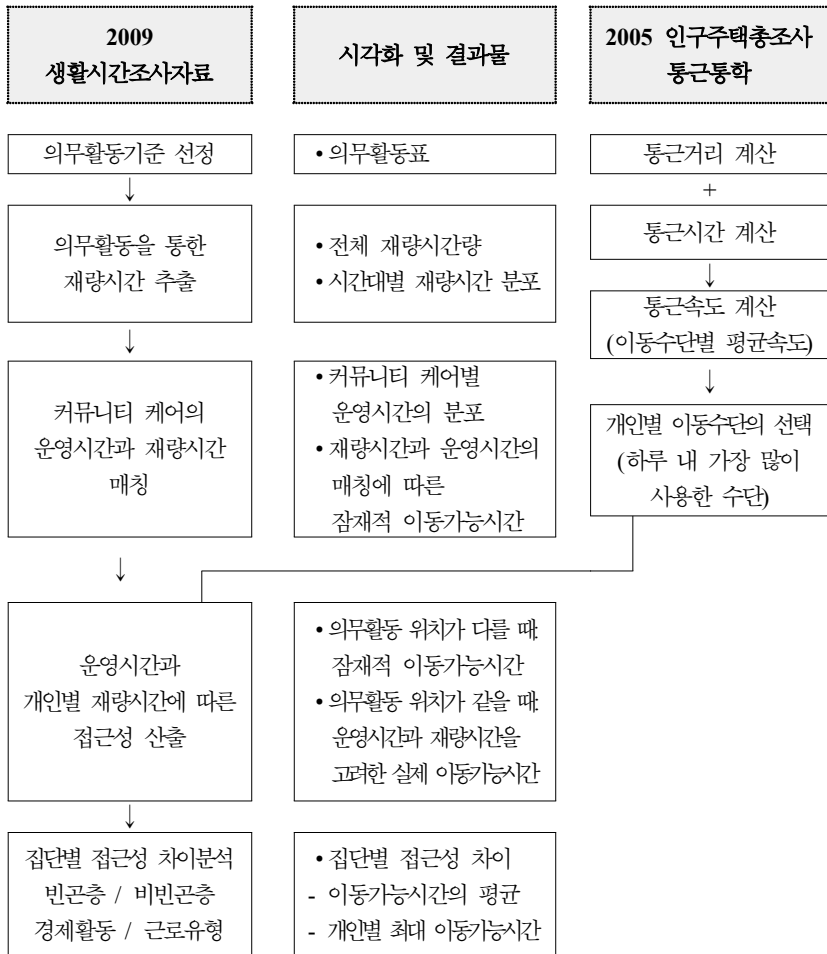
빈곤층의 시공간 접근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한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총 3회의 조사가 수행되었다. 생활시간조사는 시간일지에 응답자의 하루 생활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응답은 매 10분 간격으로 작성되며, 개인이 각 10분의 구간동안 수행한 행동과 동시행동, 같이 한 사람, 이동수단 등을 기입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시간일지가 완성된다. 각 10분 동안 수행한 행동은 행동분류코드표에 의거 코딩된 상태로 제공되며, 행동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뉘어 매우 세부적으로 제시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근·통학 자료를 사용하여 통근거리와 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각 시도별로 이동수단별 평균 통근 속도¹⁾를 계산하였다. 이는 이동수단의 종류와 평균속도에 따라 접근 가능한

1) 실제로 이동수단별 평균 이동속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계산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출퇴근 시간대에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혼잡에 따른 이동속도의 과소추정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각 이동수단별로 평균 이동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각 시도별로 이동수단별 평균 속도를 집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추정하였다.

〈표 4-1〉 분석흐름도



본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시공간 접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생활시간조사를 바탕으로 빈곤층의 의무활동을 분류하고 재량시간을 추출한 후 이를 통해 개개인의 시공간 접근성을 계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시간 지리학적 방법을 접근성 분석에 사용한 경우에는 자료 내에 개개인의 공간적 위치가 주소나 위경도 좌표의 형태로 제시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생활시간조사에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로 인해, 시·군 단위의 공간정보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형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맞춰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특성에 맞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두 가지 절차를 밟았다. 첫째, 공간정보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커뮤니티케어의 운영시간을 고려한 개인별 시공간 접근성 추정방법을 제시한다(Neutens et al., 2011). 둘째, 앞서 개발된 추정방법을 토대로 개인의 공간정보를 모를 때 시공간 접근성을 추정하기 위한 수정 모형을 제시한다.

가. 일반적 분석모형: 개인의 공간정보를 명확히 알 때(Neutens et al, 2011)

한 개인의 하루 동안의 시간일지가 주어져있다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맞게 개인별로 의무 활동을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근무, 수면 등은 일상생활에서 시공간이 고정된 활동이므로 의무활동(fixed activities)이다. 이 경우 특정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인 i 가 하루 동안 수행해야하는 의무 활동을 시간 순으로 모두 모은 집합을 X 라 할 때, 집합 $X(i)$ 의 각 원소 x_j 는 공간정보 $loc(x_j)$ 와 의무활동이 수행되는 시간대를 의미하는 시간정보 $[s_j, e_j]$ 를 갖는다고 하자. 이 때 s_j 는 의무활동이 시작되는 시간, e_j 는 의무활동이 끝나는 시간을 의미한다.

- 개인 i 의 의무활동 x 의 집합: $X(i) = \{x_1, x_2, \dots, x_n\}$
 - x_j 의 공간정보(위치) = $loc(x_j)$
 - x_j 의 시간정보(시작시간, 종료시간) = $[s_j, e_j]$
- 의무활동 x_j 와 x_{j+1} 사이의 재량시간: $ST_j = [e_j, s_{j+1}]$
- 개인 i 의 재량시간 ST_j 의 집합 = $ST(i) = \{ST_1, ST_2, \dots, ST_{n-1}\}$
- 개인 i 의 하루 총 재량시간 = $\sum_j^n ST_j$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은 첫 번째 의무활동 x_1 이 끝나는 시간 e_1 과 두 번째 의무활동 x_2 가 시작되는 시간 s_2 사이의 시간대를 의미한다. 이를 일반화하면 의무활동 x_j 와 x_{j+1} 사이의 재량시간은 $ST_j = [e_j, s_{j+1}]$ 로 표기할 수 있으며, 이때 e_j 와 s_{j+1} 은 각각 $loc(x_j)$ 와 $loc(x_{j+1})$ 의 공간정보와 연결되어있다. 즉 재량시간이 시작될 때는 의무활동 x_j 가 막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위치상 $loc(x_j)$ 지점에서 다음 행동을 시작하고, 재량시간이 끝날 때는 다음 의무활동 x_{j+1} 을 수행하기 위해서 $loc(x_{j+1})$ 에 지점에 도달해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시간지리학의 기본 모형 중 하나인 시공간 프리즘을 수식의 형태로 설명한 것이며, 위의 식들을 개인의 전체 하루활동일지에 적용할 경우 한 개인이 지니는 총 재량시간과 시간대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각 시설의 운영시간과 위치를 고려하여 모형을 보다 확장해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한 시설의 운영시간이 오전 9시 ~ 오전 11시 30분까지이고,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까지의 점심시간이며, 다시 오후 1시 ~ 오후 6시까지의 운영시간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운영시간을 가진 곳을 f 라고 할 때, 오전 9시 ~ 오전 11시 30분까지의 운영시간을 h_1 이라 할 경우 h_1 은 $[9:00AM, 11:30AM]$ 의 시간대를 갖고,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후 1시 ~ 오후 6시까지의 운영시간을 h_2 라 한다면 h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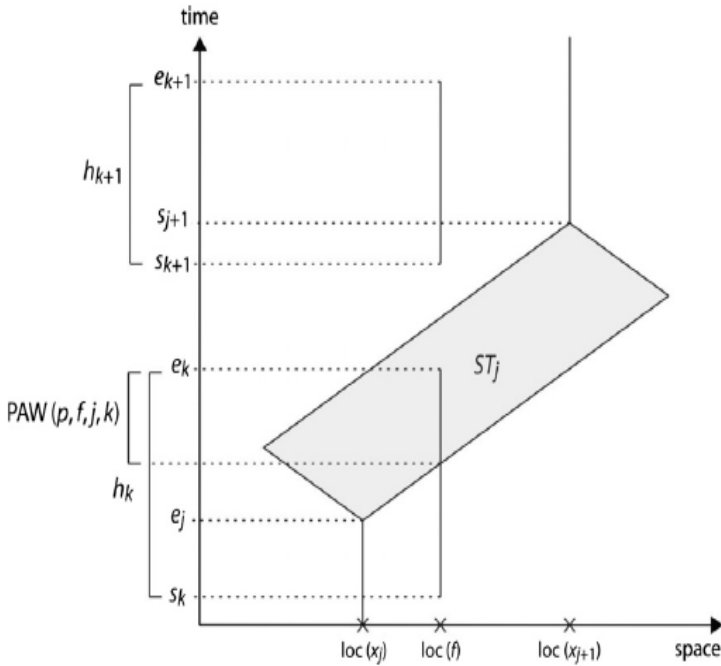
는 $[01:00PM, 06:00PM]$ 의 시간대를 갖는다. 이를 일반화해서 표기하면 시설 f 각각의 운영시간은 $h_k = [s_k, e_k]$ 이며, 시설 f 의 운영시간을 모두 모은 집합은 $H(f) = \{h_1, h_2, \dots, h_m\}$ 이다. 이 때 시설 f 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공간정보는 시간에 상관없이 $loc(f)$ 이다.

- 시설 f 의 k 번째 운영시간대: $h_k = [s_k, e_k]$
- 시설 f 의 운영시간대 h_k 의 집합: $H(f) = \{h_1, h_2, \dots, h_m\}$

이를 바탕으로 시설 f 의 잠재적 이용가능시간(Potential Activity Window, PAW)을 산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의무활동 x_j 에서 다음 의무활동 x_{j+1} 까지 재량시간 ST_j 가 주어졌고, 그 사이에 시설 f 를 이용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이동시간으로서 의무활동 x_j 가 끝나는 지점인 $loc(x_j)$ 에서 시설 f 가 입지한 $loc(f)$ 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시설 f 에서 다음 의무활동 x_{j+1} 이 수행되는 지점인 $loc(x_{j+1})$ 을 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시간대에 시설 f 가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시설 f 를 이용하기 위한 개인 i 의 잠재적 이용가능시간을 일반화된 형태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시설 f 의 잠재적 이용가능시간(Potential Activity Window, PAW)
 $PAW(i, f, j, k) = [e_j + t(loc(x_j), loc(f)), s_{j+1} - t(loc(f), loc(x_{j+1}))] \cap [s_k, e_k]$
 - 의무활동 x_j 에서 시설 f 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 $t(loc(x_j), loc(f))$

[그림 4-1] 시공간 프리즘(space-time prism)을 이용한 분석방법 모식도



자료: Neutens et al.(2011: 3)

시설에 대한 잠재적 이용가능시간만으로도 개인의 접근성 수준은 파악할 수 있다. 즉, 특정 시설에 대한 개인 i 의 잠재적 이용가능시간(PAW)이 높다면, 그만큼 개인의 재량시간과 시설의 운영시간이 일치하거나 시설이 개인 i 의 의무활동 지점에 근접해있음을 의미한다. 즉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이 높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편익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설에 관한 몇 가지 특성들을 추가하여 보다 현실적인 형태로 편익을 계산할 경우 모형은 보다 정교해진다 (Timmermans et al., 2002).

만약 시설 f 의 이용에 따른 편익을 크게 세부분으로 나눠보면 시설 f 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매력도(혹은 시설 f 그 자체의 매력도)와 시설 f 의 이

용시간인 잠재적 이용가능시간(PAW), 시설 f 를 이용함에 따라 추가로 지불되는 이동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추가로 지불되는 이동비용은 만약 차량시간에 시설 f 를 이용하지 않고 의무활동 x_j 에서 x_{j+1} 로 바로 이동했을 때 소모되는 시간을 의무활동 x_j 에서 시설 f 까지 이동시간과 시설 f 에서 다음 의무활동 x_{j+1} 까지의 이동시간을 합한 값에 빼줌으로써 구할 수 있다. 바로 의무활동 x_j 에서 x_{j+1} 로 이동했을 때 소모되는 시간을 빼주는 이유는 이 비용이 두 의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불되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시설 f 의 이용에 따른 편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특히 식을 살펴보면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 시설의 매력도와 이용시간, 추가적인 이동시간에 따른 편익을 곱셈의 형태로 나타내고, 이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편익이 0이라면, 시설 f 를 이용해도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시설 f 의 이용에 따른 편익(locational benefit)

$$LB_{PAW}(i, f, PAW) = B_A(a_f) \cdot B_D([s, e]) \cdot B_C(t(x_j, f, x_{j+1}))$$

$$- PAW = [s, e]$$

- $B_A(a_f)$ = 시설 f 의 매력도(attractiveness)에 따른 편익

- $B_D([s, e])$ = 시설 f 의 이용시간(duration)에 따른 편익

- $B_C(t(x_j, f, x_{j+1}))$ = 시설 f 를 이용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모되는 이동시간

$$t_f(x_j, f, x_{j+1}) = t(loc(x_j), loc(f)) + t(loc(f), loc(x_{j+1})) - t(loc(x_j), loc(x_{j+1}))$$

나. 분석모형의 수정: 개인의 공간정보를 모를 때

앞에서 설명한 접근성 분석방법은 하루 동안 개인의 시간일지와 공간정보가 명확하게 제시될 때만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잠재적 이용가능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의 산출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의무활동과 시설 간 이동 시간에 대한 값이 필요한데, 이는 두 개의 연속된 의무활동과 시설에 대한 위치정보를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생활 시간조사 자료는 앞서 언급한대로 활동의 공간정보가 시·군 단위까지만 제공되기 때문에 Neutens et al.(2011)이 제시한 분석모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모형의 개념과 틀을 받아들이면서 활동과 시설에 관한 위치정보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때 접근성을 추정할 수 있는 수정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수정 모형에서는 앞의 모형과 접근성에 대한 추진방식이 다르다. 앞에서 제시한 Neutens et al.(2011)의 모형이 접근성(accessibility)을 재량시간 내에서 이동시간과 시설운영시간을 고려했을 때 해당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이용가능시간’, 즉 duration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여기서는 얼마만큼 멀리 떨어진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opportunity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즉 기존 모형은 재량시간, 이동시간, 시설운영시간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시설에 대한 ‘최대 이용가능시간’을 산출함으로써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반면에 수정모형에서는 이용에 따른 편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가장 최소의 시간, 즉 최소요구활동시간(Minimum Required Activity Duration Threshold)만을 시설에서 이용한다고 간주하고 재량시간, 시설운영시간을 주어진 것으로 보았을 때, ‘접근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는 시공간 접근성에 관한 다양한 모형들 중에서 전자가 효용극대화를 강조하는 미시경제학 이론에 기초하는 반면, 후자는 이용 가능한 기회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보다 일반적인 시간지리학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Timmermans et al., 2002).

그렇다면 ‘접근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다음의 재량시간과 시설운영시간의 경우를 상정해보자. j 번째 재량시간대 $ST_j = [e_j, s_{j+1}]$ 와 k 번째 운영시간대 $h_k = [s_k, e_k]$ 가 주어져 있을 경우

시설의 이용가능시간은 ST_j 와 h_k 이 중복되는 시점, 즉 $ST_j \cap h_k = [e_j, s_{j+1}] \cap [s_k, e_k]$ 이다. 만약 시설 f 에 대한 최소요구활동시간을 $t_r(f)$ 라하고 이 값이 사전에 주어졌을 때, 개인 i 가 j 번째 재량시간에 시설 f 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필요조건은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이용가능시간이 최소요구활동시간 $t_r(f)$ 에 비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소요구활동시간이 30분일 때, 재량시간과 운영시간을 고려한 시설이용가능시간이 20분밖에 주어졌지 않다면 이동시간을 따로 고려하지 않더라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제약을 완화하더라도 최대 20분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최소요구량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은 0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시설이용가능시간으로 40분이 주어졌다면 최소요구활동 30분을 만족하고도 10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 측면에서는 시설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시간적인 필요조건을 충족시켰다면 그 시설은 얼마만큼의 공간적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지 혹은 얼마나 떨어진 시설까지 이동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접근성을 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설이 이용할 때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은 재량시간에서 최소요구활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표시된다. 왜냐하면 시설의 운영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재량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도 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시설이용가능시간대 = $ST_j \cap h_k = [e_j, s_{j+1}] \cap [s_k, e_k]$
 $= [\text{Max}(e_j, s_k), \text{Min}(s_{j+1}, e_k)]$
- 시설이용가능시간량 = $\text{Min}(s_{j+1}, e_k) - \text{Max}(e_j, s_k)$
- 시설이용가능에 대한 필요조건
 - if $[\text{Min}(s_{j+1}, e_k) - \text{Max}(e_j, s_k)] - t_r(f) \geq 0$, 시설이용가능
 - if $[\text{Min}(s_{j+1}, e_k) - \text{Max}(e_j, s_k)] - t_r(f) < 0$, 시설이용불가
-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 $(s_{j+1} - e_j) - t_r(f)$

그렇다면 잠재적 최대 이동가능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이 접근가능한 시설의 범위, 즉 접근성이 달라질 것이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첫 번째 의무활동과 다음번 의무활동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이다. 앞서 제시한 Neutents et al.(2011)의 모형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j 번째 의무활동의 위치, $j+1$ 번째 의무활동의 위치, 시설 f 의 위치 등 세 가지의 위치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이들의 공간적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조합 가능한 모든 공간배치를 판단하고, 각 공간배치를 전제로 했을 때 접근 가능한 시설 f 의 범위는 얼마만큼 될 것인지를 계산함으로써 접근성의 추정치를 제시할 수 있다.

〈표 4-2〉 의무활동과 시설의 조합 가능한 공간배치

구분	j 번째 의무활동 위치	$j+1$ 번째 의무활동 위치	시설 f 의 위치	분석고려여부
1	○	○	○	고려않음
2	○	○	X	고려
3	○	X	○	고려않음
4	X	○	○	고려않음
5	X	X	X	고려

주: ○(같음), X(다름)

의무활동과 시설에 대한 위치정보는 위의 표와 같이 최대 5가지로 조합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세 위치가 모두 동일한 경우이다. 즉 j 번째 의무활동이 끝나고 동일한 위치에 시설이 존재해서 시설을 이용한 뒤 다시 동일한 위치에서 다음 의무활동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가능한 조합은 의무활동은 서로 동일한 장소이지만 시설이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주변의 특정한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j 번째 의무활동과 시설의 위치는 동일한데 다음번 의무활동의 위치는 다른 경우이다. 이 경우 이전 의무활동이 끝나고 이동 없이 그 장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뒤 다음번 의무활동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네 번째는 $j+1$ 번째 의무활동과 시설의 위치는 동일하지만 이전의 의무활동의 위치는 다른 경우이다. 이 때는 시설이 위치한 장소로 이동한 다음 시설을 이용하고 바로 그 장소에서 다음번 의무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마지막은 세 위치가 모두 다른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는 이전 의무활동이 종료된 이후 시설이 위치한 장소까지 이동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전 의무활동과 위치가 다른 다음번 의무활동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5가지의 조합 가능한 공간배치에서 시설 f 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1번, 3번, 4번 조합은 접근성의 관점에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우선 본 분석에서 도출하려는 접근성은 ‘주어진 시간조건 내에서 접근가능한 시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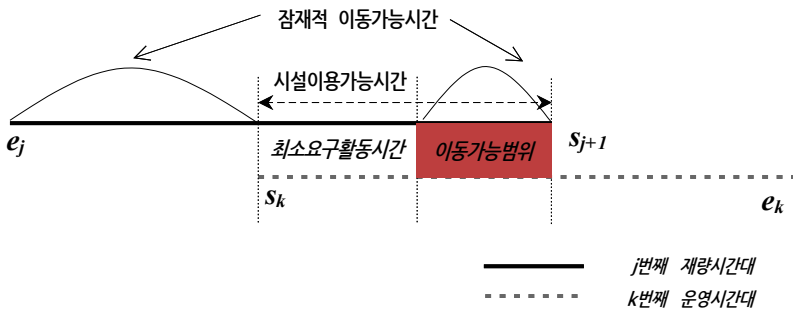
최대 공간 범위'이다. 이 경우 시설을 특정 의무활동과 동일한 장소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사전적으로 시설의 위치를 설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도출할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우선 세 위치가 모두 같다고 전제한 상태에서는 이동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은 의미가 없다. 3번째, 4번째 조합의 경우는 각각 이전 의무활동 위치와 시설의 위치가 같을 때, 시설의 위치와 다음번 의무활동의 위치가 같을 때를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얼마만큼 다음번 의무활동이 멀어질 수 있느냐'이다. 본 접근방법의 가장 토대가 되는 개념인 의무활동(mandatory activities)은 이 활동들이 시공간적으로 고정(spatially and temporally fixed)되어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데, 3번이나 4번 조합과 같은 것은 분석의 기본 전제인 의무활동의 시공간적 고정성에 위배되므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접근성 분석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2번과 5번의 조합, 즉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같을 때 혹은 다를 때 어느 범위의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판단이다.

이 때 2번과 같이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같을 때는 이용가능한 시설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만,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다를 경우에는 어떤 의무활동 지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시설의 범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재량시간이 60분, 시설이용가능시간이 40분, 최소요구활동시간이 10분일 때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같다면(예: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시설을 이용한 후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경우), 최대 25분 거리에 있는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다르다면 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50분을 첫 번째 의무활동에서 시설까지 걸리는 시간, 시설에서 다음번 의무활동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정확하게 배분하여 시설의 공간범위를 판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의무활동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시설에서 다음번 의무활동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위치정보가 없는 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간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는 처리할 수 없으므로, 두 의무활동의 위

치가 다를 때는 최종적으로 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시간으로 개인의 접근성을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다른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이 접근성을 판단하는 수치가 된다. 하지만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필수적인 고려사항으로서 재량시간과 운영시간의 시간적 배치를 고려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접근성 수치를 제시할 수 있다. 즉 재량시간과 운영시간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상당히 달라지며, 결국 접근가능한 시설의 범위도 달라진다.

[그림 4-2] 재량시간과 운영시간의 시간적 배치를 고려한 이동가능범위의 산출 예
(두 의무활동 위치가 같을 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 그림을 예로 들어보자. 위 그림은 재량시간과 운영시간을 시간적으로 배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한 사례에 해당한다. 위 사례는 재량시간이 시작될 때는 운영시간보다 먼저 시작되고, 재량시간이 끝날 때는 운영시간보다 먼저 끝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오전 8시에 출근한 직장인이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2시간 동안 은행에 다녀올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 은행은 오전 9시부터

터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때 은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지만 이 직장인이 시간을 낼 수 있을 때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이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이다. 만약 이때 최소요구활동시간이 40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은행이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용하더라도 9시 40분에야 은행에서 처리해야 할 용무가 끝날 것이다. 10시까지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 남은 시간은 20분에 불과하다. 즉 ‘최대 이동가능시간’은 전체 재량시간에서 최소요구활동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인 80분으로 계산되겠지만 재량시간과 시설의 운영시간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배치되어있는지를 고려했을 때 이 직장인이 갈 수 있는 은행의 최대 범위는 용무를 보고 회사로 돌아올 시간을 고려해야하므로 20분 거리에 있는 은행까지이다. 따라서 두 의무활동이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재량시간과 운영시간의 시간적인 배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크게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같을 때와 다를 때로 구분하여 실제 이동가능시간을 산출한다.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같을 때는 재량시간과 운영시간의 시간적 배치를 고려해서 계산하며,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다르다고 가정할 때는 전체 이동가능시간을 그 사람의 접근성으로 간주한다. 특히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같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수식으로 실제 이동가능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나, 재량시간의 시작점이 운영시간의 시작점에 비해 빠르고, 재량시간의 끝점이 운영시간의 끝점에 비해 늦은 경우에는 운영시간 전후로 이동가능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계산과정이 요구된다. 이를 수식의 형태로 정리한 것은 95페이지에 나와있는 상황 1), 2)에 정리되어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재량시간과 운영시간을 고려해서 산출된 실제 이동가능시간은 시간거리(time distance)의 형태로 표시된 접근성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간적으로 이동 가능한 범위는 개인별로 다르다. 즉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0분이라는 실제이동가능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이동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실제 공간적으로 이동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것이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도로, 승용차, 지하철, 버스 등의 평균속도를 계산하여 ‘공간적인 이동가능범위’를 계산함으로써 실제 공간적인 의미로서 접근성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접근성은 다음과 같이 산출가능하다. 앞에서 계산한 실제 이동가능시간에 이용 가능한 이동수단의 평균속도를 곱하면 실제 이동 가능한 범위가 도출된다. 이때 각 개인이 특정 재량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은 하루 동안 이용한 수단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했던 수단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그날 가장 많이 사용한 이동수단이 승용차이고 평균속도가 60km/h일 때, 특정 재량시간에 이용가능한 시설의 시간거리가 20분이라면 최대 20km 범위에 있는 시설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실제 빈곤층의 접근성 분석결과는 다음 절에서 제시될 것이다.

• 필요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두 의무활동의 위치에 따른 시설에 대한 접근성

<상황 1>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같을 때

: 재량시간/운영시간의 배치를 고려한 실제 이동가능시간

1) $e_j < s_k$ 이고 $s_{j+1} > e_k$ 일 때

① $(s_{j+1} - e_k) - (s_k - e_j) \geq 0$ 인 경우,

if $(e_k - s_k) + (s_k - e_j) - t_r(f) \geq (s_{j+1} - e_j)/2$,

→ $[(s_{j+1} - e_j) - t_r(f)]/2$

그렇지 않다면

→ $\text{Min}((s_{j+1} - e_k), \{(e_k - s_k) + (s_k - e_j) - t_r(f)\})$

② $(s_{j+1} - e_k) - (s_k - e_j) < 0$ 인 경우,

if $(e_k - s_k) + (s_{j+1} - e_k) - t_r(f) \geq (s_{j+1} - e_j)/2$

→ $[(s_{j+1} - e_j) - t_r(f)]/2$

그렇지 않다면

→ $\text{Min}((s_k - e_j), \{(e_k - s_k) + (s_{j+1} - e_k) - t_r(f)\})$

2) 그 외의 배치일 때

if $\{[\text{Min}(s_{j+1}, e_k) - \text{Max}(e_j, s_k)] - t_r(f)\}$
 $- \{(s_{j+1} - e_j) - [\text{Min}(s_{j+1}, e_k) - \text{Max}(e_j, s_k)]\} \geq 0$

→ $[(s_{j+1} - e_j) - t_r(f)]/2$

그렇지 않다면

→ $\text{Min}(s_{j+1}, e_k) - \text{Max}(e_j, s_k) - t_r(f)$

<상황 2>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다를 때: 최대 이동가능시간

= $(s_{j+1} - e_j) - t_r(f)$

제2절 분석결과

1. 의무활동기준의 선정

시공간적 접근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활동들, 즉 의무활동을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무(fixed or mandatory) 활동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해서 단기간에 시공간적인 조정이 어려운 행동(Neutens et al., 2011: 3)’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공간적 맥락에서 의무활동이 존재하는 이유는 개개인의 활동에 있어 생리적, 도구적, 인지적 한계에 따른 능력제약이나 타인 혹은 물자, 수단과의 연계에 따른 결합제약, 법이나 규칙 등에 따른 권위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Hägerstrand, 1970).

하지만 실제로 의무적(fixed) 활동과 유동적(flexible) 활동을 이분법적으로 명쾌하게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Kwan, 2000). 시간지리학 방법론을 도입한 연구에서는 의무활동을 문헌에 기초하여 연구자 임의로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활동이 왜 의무활동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김현미, 2005; Kim, 2008). 또한 특정한 활동이 의무성을 띠다 하더라도 시공간적으로 고정되어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Kwan(2000)에 따르면 의무적 활동과 시공간적으로 고정된 활동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다. 즉 의무적(mandatory)이라는 것은 하루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반복적이고 대체로 반드시 행해야 하는 활동으로서 식사, 직장생활, 수업듣기 등을 들 수 있지만, 시공간적으로 고정된 활동(spatially and temporally fixed)은 특정 시간대에 특정 공간에서만 행해질 수 있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은 병원 진료시간에 병원이라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결국 시간지리학에서 재량시간을 도출할 때 빼기로 기능하는 활동은 어떤 활동인가? 결국 의무적 활동이면서 시공간적으로 고정된 활동이

어야 시간지리학에서 의미하는 ‘썰기’로서의 의무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식사는 하루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이지만 시공간적으로 고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썰기로서 의무활동이라 볼 수 없다. 반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활동은 시공간적으로 고정된 활동이지만 반복적이지 않은 행동이므로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즉 한 개인의 일반화된 시간패턴을 추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활동은 의무적이면서 동시에 시공간적인 고정성이 높은 활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썰기로서 기능하는 의무활동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의무성과 활동의 시공간적 고정성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시공간적 고정성은 ① 활동이 발생하는 상황적 맥락(context)과 ② 지속시간, 발생 시기, 위치, 다른 사람의 참여여부와 같은 활동 그 자체의 속성, ③ 성별, 가구구성, 차량유무, 직종 등과 같은 개인 및 가구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이에 Neutens et al.(2011)은 활동의 시공간적 고정성과 의무수준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자료에는 이러한 값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활동의 목적이나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Schwanen et al.(2008)은 활동을 목적이나 유형에 따라 구분할 때 이를 보다 세분화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일반적으로 자료의 제약과 다양한 영향요인으로 인해 개별 활동의 의무정도나 고정수준을 명백히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활동을 보다 세분화할 경우 이를 목적이나 유형에 따라 구분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특정 활동이 의무적인지 시공간적으로 고정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썰기로서 기능하는 의무활동을 추출함에 있어서 기존의 의무활동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그에 대한 Schwanen et al.(2008)과 Neutens et al.(2011)의 대안을 동시에 받아들인다. 즉 의무활동을 분류할 때 의무성과 시공간적 고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대한 고려함과 동시에 소분

류의 행동수준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의무적이면서 시공간적으로 고정된 활동들을 추출하는 것이다.

〈표 4-3〉 의무활동(fixed activities)의 분류

구분	내 용	사 례
1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활동	수면, 직장생활, 수업 등
2	아침에 청결을 위해 요구되는 활동	개인위생 등
3	보호가 필요한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	아이돌보기, 일상적 간호 등
4	의무활동 중의 연속된 활동	일 중 휴식 등
5	이동 전과 후의 활동이 모두 의무활동인 이동	-

위에 표에 따라 활동을 분류하면 우선 수면이나 직장생활, 수업 등의 활동들은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시공간적으로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무활동이라고 보았다. 또한 개인위생과 같은 활동은 기본적인 인간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면서 아침이라는 시간대와 집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무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 돌보기나 부모 간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결합제약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켜기로 작용하는 의무활동이 될 것이다. 또한 의무활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잠깐 나타나는 활동, 즉 직장에서 근무 중 잠깐의 휴식과 같은 것은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연속된 의무활동이라고 간주하였다. 이동의 경우는 사전적으로 의무활동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이동 전과 후의 활동을 판단하여 전후 모두가 의무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동 또한 의무활동으로, 이동 전이나 후의 활동 중 하나라도 의무활동이 아니면 의무활동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동 전과 후가 의무활동일 경우 두 활동사이에 발생하는 이동이 두 활동을 잇기 위한 이동시간임을 의미하므로 해당 시간 내에 다른 활동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

할 수 있지만, 이동 전과 후 중 하나가 의무활동이 아니라면 다른 활동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둘 사이의 이동이 최소 이동시간이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의무활동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류기준에 따르면 시공간적으로 고정된 활동이거나 의무적인 활동이면서도 의무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비 군 훈련 참석’의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특정한 시공간에서 행해지고 반드시 참석해야 하므로 의무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아파서 쉽’의 경우에도 병이 꾸준히 지속되는 일상화된 활동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활동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집에 일을 가져와서 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장일이지만 반복적이 아니라 특정 조사날짜에 국한된 행동이기 때문에 의무활동으로 분류하지 않았다²⁾. 자세한 의무활동 분류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2) 만약 원래 근무 장소가 자기 집인 경우에는 ‘주업’ 또는 ‘부업’으로 분류된다.

2. 집단 간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의 차이

가.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 재량시간의 차이

위의 의무활동 분류기준에 맞춰 개개인의 하루 재량시간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개인별로 총 48시간의 시간일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20,263명의 40,526개 시간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4-4〉 요일구분에 따른 빈곤층/비빈곤층의 재량시간 차이

구 분		표본수	평균(분)	표준편차	t
전체	비빈곤층	39,832	644.6	226.5	6.552**
	빈곤층	694	700.5	222.7	
	전 체	40,526	645.6	226.5	
평일	비빈곤층	23,825	590.1	228.8	6.012**
	빈곤층	431	657.0	238.7	
	전 체	24,256	591.3	229.2	
주말	비빈곤층	16,007	725.7	196.8	3.775**
	빈곤층	263	771.8	171.1	
	전 체	16,270	726.4	196.5	

주: ** (p<.01)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본 전체의 평균 재량시간은 645.6분으로 나타나 다른 요인들로 집단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대체로 한 개인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재량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 재량시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빈곤층이 하루에 644.6분의 재량시간을 가지고 있는 반면 빈곤층의 경우 700.5분의 재량시간을 가지고 있어 빈곤층이 평균적으로 약 1시간 정도 더 많은 재량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량시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평일인지 주말인지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평일에는 대체로 학교수업이나 직장생활 등 의무활동의

로 분류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반면, 주말에는 여가생활이나 휴식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일과 주말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평일에는 대체로 591.3분의 재량시간을 가지는데 반해서, 주말에는 130여분 정도 더 많은 726.4분의 재량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과 주말에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재량시간 차이를 살펴보면 평일에는 비빈곤층이 590.1분, 빈곤층이 657분의 재량시간을 사용하여 빈곤층이 약 1시간 정도 더 많은 재량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비빈곤층은 725.7분, 빈곤층은 771.8분으로 빈곤층이 더 많은 재량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평일보다 그 차이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

〈표 4-5〉 재량시간 1구간 당 평균 재량시간

구 분		표본수	평균(분)	표준편차
전체	비빈곤층	39,832	112.2	140.8
	빈곤층	694	127.2	161.3
	전 체	40,526	112.2	141.2
평일	비빈곤층	23,825	94.8	122.9
	빈곤층	431	108.5	144.9
	전 체	24,256	95.0	123.3
주말	비빈곤층	16,007	143.6	164.3
	빈곤층	263	167.6	185.7
	전 체	16,270	144.0	164.6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의 하루동안 재량시간 차이뿐만 아니라 각 집단별로 재량시간을 가질 때 한 번에 대략 어느 정도의 재량시간이 지속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특정 개인의 하루 전체 재량시간의 합이 크더라도 하루 24시간 내에 넓게 분산되어 있어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량시간을 통해 다른 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하루 100분의 재량시간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10분씩 10번의 재량시간을 가진 사람은 재량시간이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

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100분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사람은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원활하다. 재량시간 1구간 당 평균적으로 재량시간이 얼마나 연속해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빈곤층에 비해 비빈곤층의 재량시간의 연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빈곤층의 경우 요일에 상관없이 한 번의 재량시간 당 평균 127.2분의 재량시간을 갖는 반면, 비빈곤층의 경우 평균 112.2분의 재량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한 번의 재량시간 당 15분의 시간을 더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일과 주말을 구분해보면 주말이 평일에 비해서 재량시간의 연속성 또한 더 높게 나타난다. 즉 평일의 경우 한 번의 재량시간이 평균적으로 95분 정도 지속되는 반면, 주말은 144분으로 50분가량 주말의 재량시간 지속성이 더 높다. 또한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의 차이는 요일구분을 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빈곤층의 재량시간 연속성이 비빈곤층에 비해서 높은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재량시간만으로 따지면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특정 시설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4-6〉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빈곤층/비빈곤층의 재량시간 차이

구 분		표본수	평균(분)	표준편차	t
경제 활동함	비빈곤층	21,726	574.3	207.6	1.350
	빈곤층	172	595.9	207.7	
	전 체	21,898	574.5	207.7	
경제 활동안함	비빈곤층	18,106	728.9	219.3	0.634
	빈곤층	522	735.0	216.6	
	전 체	18,628	729.1	219.2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재량시간을 가지는 것에 관해 다양한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경제활동의 참여여부에 따른 영향력이 클 것이다. 실제로 빈곤층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비빈곤층에 비해 낮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빈곤층이 의무활동인 직장생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재량시간이 더 많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여부에 따라서 재량시간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때 재량시간은 574.5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 재량시간은 729.1분으로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때 경제활동여부에 따라서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빈곤층의 재량시간은 595.9분, 비빈곤층은 574.3분으로 평균 약 20여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더 많은 재량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7분 정도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분석에 사용된 전체 표본 수를 살펴보면 비빈곤층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전체 19,916명(39,932개 시간일지) 중에서 54.5%인 10,863명(21,726개 시간일지)에 달하지만, 빈곤층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374명(694개 시간일지) 중에서 24.8%인 86명(172개 시간일지)에 불과하다. 즉 경제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재량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빈곤층 중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중이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³⁾

3) 실제로 경제활동참여여부와 빈곤층여부를 요인으로 하여 이원배치분산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한 결과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변수와 빈곤층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경제활동참여여부만 99%의 확률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의 참여여부를 고려할 경우 빈곤층인지 비빈곤층인지의 여부는 재량시간 차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빈곤층 내 재량시간 차이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 재량시간 차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빈곤층 내에서 재량시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정도와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빈곤층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차별화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빈곤층 각각의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을 도출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빈곤층 내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재량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재량시간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실은 빈곤층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재량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평균적으로 600.3분, 여성은 평균적으로 687.3분의 재량시간을 가지며, 통계적으로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빈곤층 남성은 평균 692.8분의 재량시간을 가지고 있어 전체 표본에 비해서 약 90여분 정도 더 많은 재량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빈곤층 내 남녀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실제로 빈곤층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성의 경우 전체의 21.2%, 여성의 경우 전체의 27.7%이지만 전체 표본에서는 남성의 64.3%, 여성의 44.6%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빈곤층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간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비슷하여 둘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낮기 때문에, 전체 표본에서의 성별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시간 또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빈곤층 내에서 연령대별로 재량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대체로 연령대가 낮은 집단일수록 재량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0대의 재량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대 이상 집단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가 낮아 쉼기로 기능하는 의무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10대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수업과 같이 시공간적 고정성이 높은 의무활동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7〉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빈곤층 내 재량시간 차이

구 분		표본수	평균(분)	표준편차	t/ χ^2
성별	남자	312	697.8	219.3	-0.292
	여자	382	702.7	225.3	
연령	10대	216	569.2	202.4	$\chi^2=162.93^{**4)}$
	20대	106	691.2	181.7	
	30대	78	696.4	213.6	
	40대	114	733.9	233.5	
	50대	50	813.4	156.5	
	60대 이상	130	856.1	162.3	
근로 유형	전일제 근로	72	511.9	178.6	-3.841 ^{**}
	시간제 근로	74	637.2	210.8	

주: ^{**}($p<.01$)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빈곤층 내 임금근로자의 경우 직장활동이라는 강한 시공간적 고정성을 갖는 의무활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로 재량시간이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근로유형이 전일제인지 혹은 시간제인지에 따라서 근무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재량시간의 범위는 그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빈곤층 내에서도 전일제로 일하는 사람과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 간에는 약 2시간 정도의 재량시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일제 근로자 내에서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구분해서 살펴볼 경우 재량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p=0.078$), 빈곤층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평균 재량시간이 511.9분으로 비빈곤층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재량시간 550.1분보다 더 적은 재량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층 내 전일제 근무자들의 재량시간 확보가 비빈곤층 전일제 근무자나, 빈곤층 내 다른 집단에 비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많은 노동을 하고

4) 연령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6개 집단으로 구분되므로 t-검정이 아닌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여야 하나,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아 비모수검정인 Kruskal-Wallis 검정을 통해서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노동시장 등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지은정, 2007)과 함께 재량시간을 활용하여 훈련이나 교육을 받음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가능성 또한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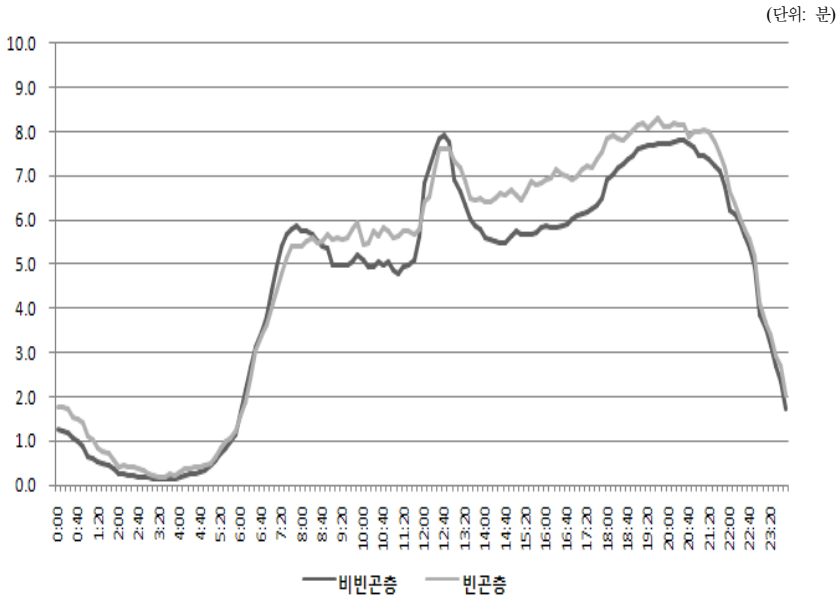
3. 집단 간 재량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차이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재량시간량을 분석한 위의 결과에 따르면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재량시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재량시간이 실제로 어떤 시간대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 재량시간의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빈곤층과 비빈곤층 전체에 대한 재량시간분포를 시간대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때 재량시간은 10분의 구간 당 평균적으로 가지는 재량시간의 양이다. 즉 12시 00분 ~ 12시 10분 구간의 값이 8이라면 그 시간동안 해당 집단의 사람들은 대체로 8분을 재량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평균 재량시간을 요일구분없이 살펴보면 대체로 두 집단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구간에서 빈곤층의 재량시간이 비빈곤층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새벽 1시 ~ 6시까지는 두 집단 모두 수면활동으로 인해 재량시간이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오전 6시 이후 재량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대략 오전 8시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6분 정도 재량시간을 지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비빈곤층의 경우 점심시간인 오후 12시 이전까지 대략 5분 정도의 재량시간을 보이다가 점심시간에 8분 정도로 재량시간이 증가하는 반면, 빈곤층의 경우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6분여 정도의 평균재량시간을 보여 비빈곤층에 비해 더 높다. 1시 이후 다시 재량시간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빈곤

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재량시간의 하락폭이 크지 않으며 오후 6시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대략 8분 정도의 재량시간분포를 보인다.

[그림 4-3] 빈곤층/비빈곤층 시간대별 평균 재량시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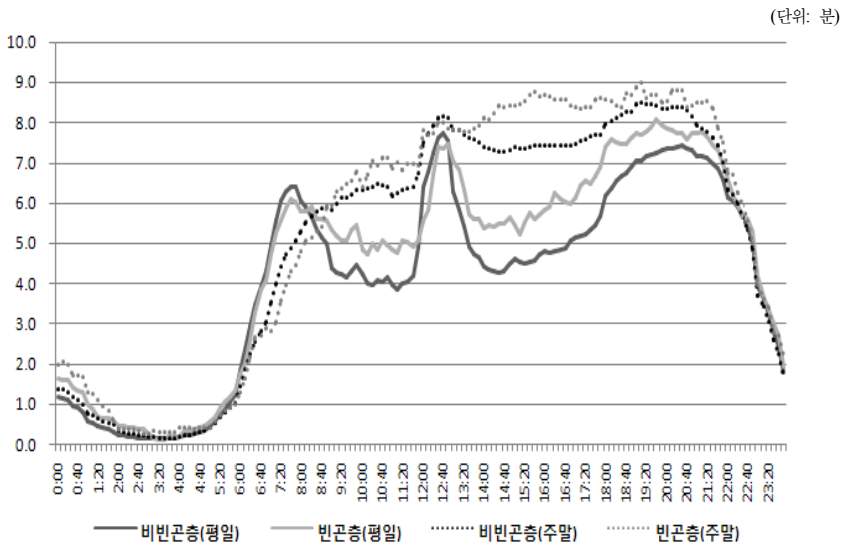


주: 표본수(비빈곤층 39,832개, 빈곤층 694개)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이를 통해 볼 때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서 더 많은 재량시간을 가지는 구간은 대체로 오전 8시 ~ 오후 12시 사이, 오후 1시 ~ 오후 8시 사이의 구간이다. 이 시간대는 대체로 일상적인 직장업무나 학업이 수행되는 시간대로서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경제활동에의 참여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 시간대별 재량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말의 경우 오전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오후에는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재량시간이 더 많은 반면, 평일에는 요일구분을 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과 오후 빈곤층의 재량시간이 비빈곤

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절대량 측면에서 평일의 경우 요일구분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일반적인 업무시간대에 재량시간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 요일구분에 따른 빈곤층/비빈곤층 시간대별 평균 재량시간 분포



주: 표본수 - 평일(비빈곤층 23,825개, 빈곤층 431개), 주말(비빈곤층 16,007개, 빈곤층 263개)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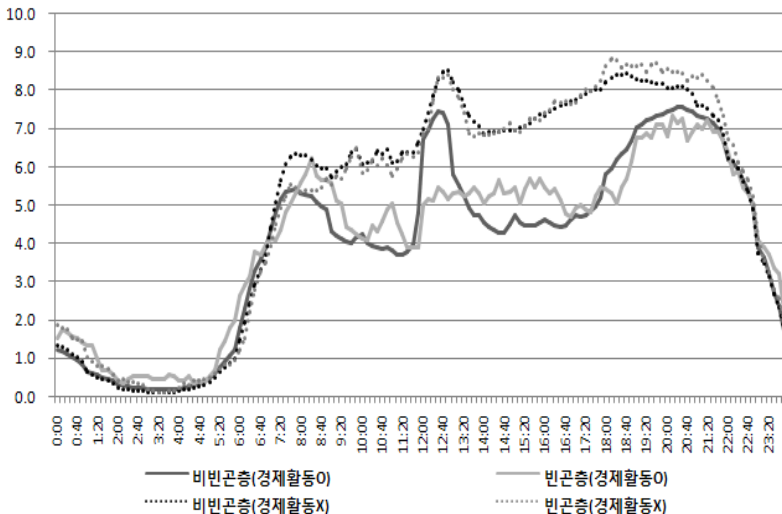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 시간대별 재량시간의 차이는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시간대별 평균 재량시간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따라 시간대별 재량시간 차이를 살펴보면 빈곤층, 비빈곤층의 구분에 상관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 재량시간의 분포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의 시간대별 재량시간 분포차이는 경제활동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빈곤여부에 따른 재량시간량이 대체로 경

제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 외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두 집단 간 일부 구간에서 나타나는 재량시간 차이는 빈곤층(96명/172개 표본)과 비빈곤층(10,863명/21,726개 표본)의 표본 차이에 따른 잡음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점은 오후 12시 ~ 오후 1시 사이에 비빈곤층은 점심시간대로서 약 7분 이상의 재량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빈곤층의 경우 해당 시간대의 평균 재량시간이 일반적인 업무시간의 재량시간과 유사한 5분여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차이는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포패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⁵⁾

[그림 4-5]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빈곤층/비빈곤층 시간대별 평균 재량시간 분포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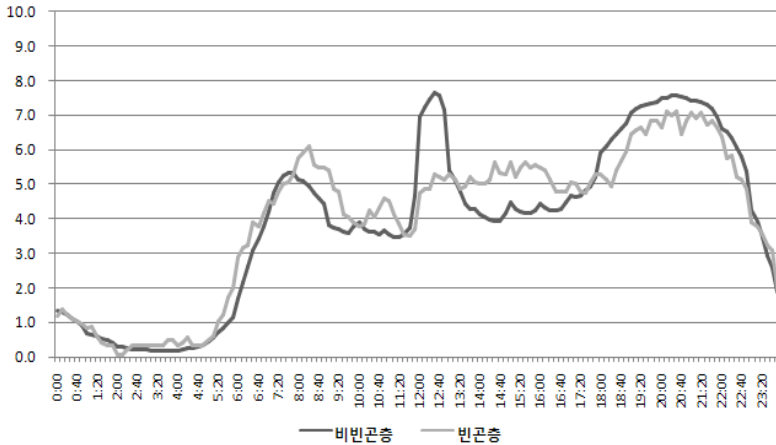


주: 표본수 - 경제활동참여○(비빈곤층 21,726개, 빈곤층 172개) 경제활동참여 X(비빈곤층 18,106개, 빈곤층 522개)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 5) 직장에서의 지위는 임금근로자 외에도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있으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빈곤층의 경우 임금근로자 외의 표본 수가 26개(13명)에 불과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4-6] 임금노동자 중 빈곤층/비빈곤층 시간대별 평균 재량시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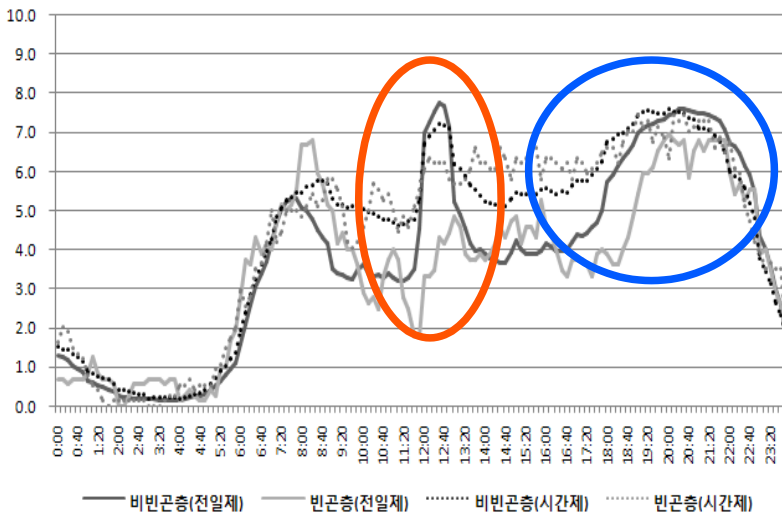
(단위: 분)



주: 표본수(비빈곤층 14,448개, 빈곤층 146개)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그림 4-7] 근로형태에 따른 빈곤층/비빈곤층 시간대별 평균 재량시간 분포

(단위: 분)



주: 표본수 - 전일제(비빈곤층 11,854개, 빈곤층 72개), 시간제(비빈곤층 2,594개, 빈곤층 74개)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실제로 근로형태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로 구분해서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 재량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일제 근로자의 재량시간이 시간제 근로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일제 근로의 경우 출퇴근이 고정되어 있어 변동이 어렵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근로시간대를 공유하고 있지만, 시간제 근로의 경우 근로시간대가 유연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근로유형에서는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에 큰 패턴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제 근로자에 비해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 격차가 심한 편이다. 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우선 전일제 근로자이면서 빈곤층인 집단의 표본수가 72개(32명)밖에 되지 않아 표본수 부족에 의한 잡음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전일제 빈곤층의 재량시간이 전일제 비빈곤층에 비해 적은 점, 빈곤층의 재량시간이 특정시간대에서 적게 나타난 점을 들어 전일제 근로자 집단에서는 비빈곤층과 빈곤층의 차이가 두드러짐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빈곤층의 경우 전일제 근무자의 점심시간대 재량시간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속되는데 이는 시공간적 고정성이 강한 전일제 근무형태에서 두 집단 간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저녁 시간대에도 동일한 전일제 근무이면서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서 재량시간이 지속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략 22시 이후에나 두 집단 간 차이가 사라진다.

이는 전일제로 일하는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12시 ~ 13시, 18시 ~ 22시 사이의 활동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2시 ~ 13시 사이에 전일제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의무활동과 재량활동을 살펴보면 위의 시간대 분포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의무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대(12~13시)에 빈곤층은 평균 69.94분을 의무활동에 사용하는 반면, 비빈곤층은 15.63분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활동별로 그 차이를 살펴보면 전일제 빈

곤층이나 비빈곤층 모두 1위 ~ 5위까지 비슷한 유형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전일제 빈곤층이 전일제 비빈곤층에 비해 해당 시간대에 주업을 수행하는 평균시간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⁶⁾. 반면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점심시간동안 식사관련활동이나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빈곤층이 대체로 점심시간을 재량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로 보고 식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로 여기는 반면, 전일제로 근무하는 빈곤층의 경우 이 시간대가 비빈곤층과 같이 식사 및 친교목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주업의 연장선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6) 12시 ~ 13시 사이에 주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전일제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는지를 t-검정을 통해 살펴보면 결과 99%의 확률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4.870$). 실제로 전일제 노동자의 전체 재량시간에 대한 t-검정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특정 시간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다 세분화해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드러낸다.

〈표 4-8〉 전일제 근로 빈곤층/비빈곤층의 의무활동 및 재량활동 순위(12시~13시)

순위	전일제 빈곤층		전일제 비빈곤층	
	의무활동(분)	재량활동(분)	의무활동(분)	재량활동(분)
1	주업 (25.42)	가족 외 사람과의 식사 (5.28)	주업 (9.84)	가족 외 사람과의 식사 (15.03)
2	수면 (5.14)	낮잠, 졸음 (3.19)	개인위생 (2.19)	간식과 음료 (3.27)
3	개인위생 (2.36)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 (1.94)	수면 (1.59)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 (2.69)
4	종교집회 · 모임참가 (1.53)	인터넷정보검색 (1.81) 가족과의 식사 (1.67)	종교집회 · 모임참가 (0.36)	TV 시청 (2.33)
5	출퇴근 (0.97)	TV 시청 (1.39)	그 외 일관련 행동 (0.30)	가족과의 식사 (2.16)
전체 합계	36.94분	23.06분	15.63분	44.37분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18시 ~ 22시까지의 패턴을 살펴보면 의무활동에 비해 재량활동의 시간 비중이 두 집단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12시 ~ 13시까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일제 빈곤층의 의무활동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두 집단 간의 의무활동 패턴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빈곤층의 경우 주업에 사용하는 시간이 비빈곤층에 비해 2배 정도 많다⁷⁾. 한편 재량시간의 경우 빈곤층과 비빈곤층 모두 TV 시청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다른 활동들을 살펴보면 비빈곤층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나 식사를 위해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만 빈곤층의 경우에는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고 타인과의 교제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재량시간이 다소 많

7) 18시 ~ 22시 사이에 전일제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 주업 종사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본 결과 99%의 확률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t=3.832$).

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하지만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를 나누어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 전일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재량시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점심시간대, 퇴근 이후 시간대)에서 전일제 빈곤층이 전일제 비빈곤층에 비해 재량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일제 빈곤층의 경우 해당 시간대에 비빈곤층에 비해 주업과 같은 의무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4-9〉 전일제 근로 빈곤층/비빈곤층의 의무활동 및 재량활동 순위(18시~2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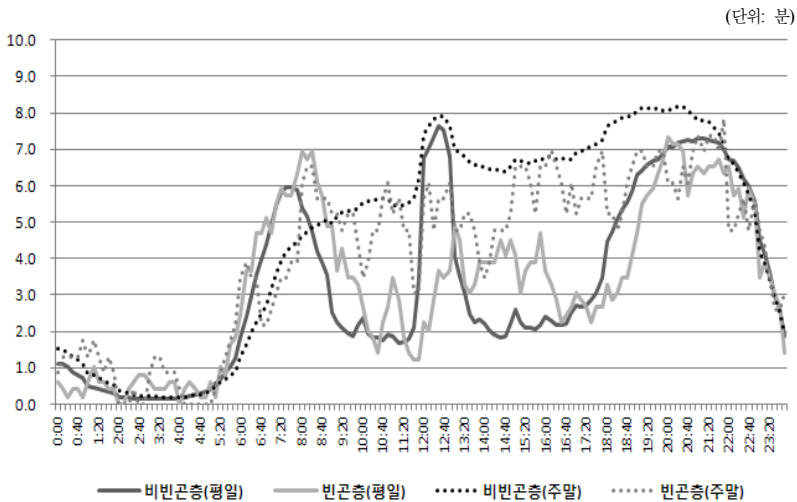
순위	전일제 빈곤층		전일제 비빈곤층	
	의무활동(분)	재량활동(분)	의무활동(분)	재량활동(분)
1	주업 (62.78)	TV 시청 (32.08)	주업 (32.66)	TV 시청 (39.17)
2	개인위생 (10.69)	출퇴근 (12.78)	개인위생 (13.17)	가족과의 식사 (15.32)
3	수면 (9.86)	가족과의 식사 (10.00)	출퇴근 (7.39)	출퇴근 (10.58)
4	출퇴근 (4.86)	혼자 식사 (7.64)	수면 (3.27)	가족 외 사람과 식사 (7.69)
5	그 외 일관련 행동 (4.72)	식사준비 (7.08)	그 외 일관련 행동 (2.29)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 (6.86)
전체 합계	98.75분	141.25분	70.11분	169.89분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대별 분포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평일과 주말로 구분해서 재량시간 분포를 시간대별로 구분하면 특이할만한 결과가 나타난다. 빈곤층의 경우 표본수가 무척 적기 때문에 일정부분 잡음을 감안하고 살펴본다면 평일의 경우 요일구분을 특별히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났던 패턴, 즉 점심시간과 18시 이후 빈곤층의 재량시간이 비빈곤층에 비

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유지된다. 다만 특징적인 패턴이 하나 더 나타나는데 점심시간 이후로 비빈곤층의 재량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반해 빈곤층의 경우 13시쯤의 평균 재량시간이 16시까지 유지되다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특히 전일제 비빈곤층의 경우 업무시간인 9시 ~ 12시, 13시 ~ 18시까지 재량시간이 2분여대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반면 빈곤층은 9시 ~ 12시까지는 비빈곤층과 비슷하다가 12시 ~ 13시까지는 비빈곤층보다 낮고 13시 ~ 16시까지 비빈곤층에 비해 재량시간이 많고 이후 18시부터 재량시간이 다소 낮은 패턴을 보인다. 한편 주말의 경우 전반적으로 비빈곤층에 비해 빈곤층의 재량시간이 시간대별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패턴은 상당히 특이하지만 표본수가 23개로 매우 작아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우나, 점심시간에도 주업의 비중이 높았던 것을 볼 때 전일제 빈곤층의 경우 주말에도 어느 정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그림 4-8] 전일제 근로 빈곤층/비빈곤층 요일별 평균 재량시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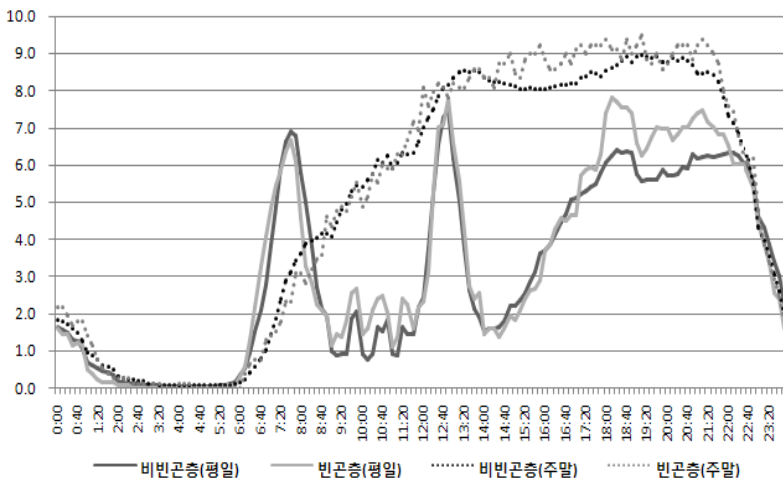


주: 표본수 - 평일(비빈곤층 7,121개, 빈곤층 49개), 주말(비빈곤층 4,729개, 빈곤층 23개)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그 외 특이한 재량시간 패턴으로는 10대를 대상으로 요일구분에 따라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의 재량시간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평일에는 대체로 학교 수업과 같은 의무활동의 영향으로 오전과 오후에 재량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주말에는 10대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의 시간패턴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평일 18시 ~ 22시까지 빈곤층의 재량시간이 비빈곤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대체로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정규수업 이외의 수강활동 등에 대해서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사용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평일 18시 ~ 22시 사이에 10대 빈곤층이 정규수업 외 수강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 10분인데 반해, 비빈곤층은 28분에 달한다⁸⁾.

[그림 4-9] 요일구분에 따른 빈곤층/비빈곤층(10대) 시간대별 평균 재량시간 분포

(단위: 분)



주: 표본수 - 평일(비빈곤층 4,292개, 빈곤층 138개), 주말(비빈곤층 2,860개, 빈곤층 78개)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8) 18시 ~ 22시 사이 10대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에 정규수업의 수강활동을 위한 시간사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t-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99%의 확률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7.393$).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재량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량시간의 연속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차이는 특히 평일보다 주말에 더 잘 드러나고 평일에는 업무시간에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 재량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경제활동 여부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업무시간에서의 집단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를 나누어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 재량시간의 패턴차이가 크지 않지만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특정 시간대(점심시간대, 퇴근 후 시간대)에 빈곤층의 재량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시간대에 대한 의무활동을 구분해보면 해당 시간대에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주업에 할애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는 빈곤층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일제 빈곤층의 경우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특정한 시설에 접근하는데 시간적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10대만을 따로 구분해서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의 재량시간 패턴을 살펴보면 주말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으나 평일의 경우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18시 ~ 22시 사이에 재량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체로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해당 시간대에 정규수업외의 수강시간이 적어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4. 빈곤층 커뮤니티 케어 접근성 분석

가. 커뮤니티 케어의 선정 및 이동수단별 속도산출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층의 하루 시간사용패턴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의무활동과 재량시간을 분리하여 개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접근성을 분석함으로써 빈곤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선 연구결과에 덧붙여 직접적으로 어떤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접근성을 도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은 매우 많다. 빈곤층의 자활과 고용을 돕기 위한 취업 및 고용센터 뿐만 아니라 이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공시설들도 중요한 커뮤니티 케어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 전체의 운영시간을 고려한 접근성을 산출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바에서 벗어난다⁹⁾. 즉 빈곤층과 관련된 수많은 커뮤니티 케어의 접근성 수치를 그 자체로 보여주기보다는 특징적인 시간대를 가지는 일반화된 커뮤니티 케어를 선정하여 운영시간의 차이가 접근성의 차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힘으로써 빈곤층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접근성을 어떻게 고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설들 중 비교적 특징적인 운영시간대를 가진다고 판단되는 은행, 보건소, 병/의원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포함시킨 이유는 은행의 영업시간이 다른 시설들에 비해 짧으면서도 중간에 공백

9)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에는 공간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결과값 그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는 결과값을 산출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요소들(재량시간의 차이, 운영시간의 차이 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없이 운영되는 시설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은 점심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운영되며, 운영종료시간 또한 일반적인 공공시설들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매우 특징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3장에서 거론된 것처럼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은행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비빈곤층에 비해서 인터넷 뱅킹이 아닌 창구업무를 주로 사용한다는 결과를 통해 판단해 볼 때 은행에 대한 빈곤층의 접근성을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둘째, 보건소와 병/의원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둘 다 의료시설이면서 하나는 공공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고 다른 하나는 사설로 운영되는 시설이라는 차이 때문이다. 빈곤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보건소의 운영시간과 병/의원의 운영시간 차이가 이들의 접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경우 공공시설로서 매우 정형화된 운영시간 패턴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지만 병/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시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개 보건소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운영시간인 9시 ~ 18시의 운영시간을 가지고 있고, 병/의원은 9시 ~ 19시 혹은 20시의 더 긴 운영시간을 가지는데 점심시간 또한 이용자의 시간패턴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시설의 접근성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의료시설이라는 특징뿐만 아니라 운영시간의 조정이 전체적인 접근성 변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분석을 위한 은행, 보건소, 병/의원의 운영시간 및 최소요구활동시간은 다음과 같이 수집하였다. 우선 운영시간은 실제 은행, 보건소, 병/의원의 운영시간을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은행의 경우 시중 은행의 운영시간 현황을 수집한 결과 대부분의 은행이 9시 ~ 16시의 운영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은행의 일반적인 운영시간으로 설정하였다. 보건소의 시간을 수집한 결과, 9시 ~ 18시의 운영시간에 12시 ~ 13시의 점심시간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나 이를 운영시간으로 설정하였다. 병/의원의 경우 운영시간은 개별 병원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개별 병/의원의 운영시간을 수집하여 가장 빈도가 높은 시간대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¹⁰⁾. 병/의원의 운영시간 빈도를 살펴본 결과 9시 ~ 19시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병/의원의 운영시간으로 설정하고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환자의 점심시간을 고려해 다소 늦게 점심시간을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심시간은 13시 ~ 14시로 설정하였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토요일에도 운영하기 때문에 토요일 운영시간은 13시 ~ 14시의 점심시간을 가지면서 9시 ~ 16시까지로 결정하였다. 이는 주말에 운영되는 시설의 접근성을 판단하고 평일과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표 4-10〉 커뮤니티 케어별 운영시간 및 최소요구활동시간

구분	운영시간		최소요구활동시간	비고
	평일	토요일		
은행	09:00 ~ 16:00	X	10분	점심시간 X
보건소	09:00 ~ 12:00	X	20분	점심시간
	13:00 ~ 18:00			12:00 ~ 13:00
병/의원	09:00 ~ 13:00	09:00 ~ 13:00	20분	점심시간
	14:00 ~ 19:00	14:00 ~ 16:00		13:00 ~ 14:00

개별 시설들의 최소요구활동시간은 이를 분석한 선행연구결과나 조사자료가 없기 때문에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포함된 수치를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생활시간조사에서 ‘의료서비스 받기’는 병원에서의 이동을 제외한 진료시간,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수치이므로 이를 통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의 최소요구활동시간을 추출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은행의 경우에도 ‘은행 또는 관공서 일보기’라는 활동분류를 통해 최소요구활동시간을 추출

10) 병/의원의 경우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 홈페이지의 D/B에 등록된 병/의원 중 내과와 소아청소년과에 속한 병/의원 488개의 자료를 수집하여 운영시간의 설정에 활용하였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소요구활동시간을 추출하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한 번에 보내는 시간은 평균이 51분, 중앙값이 40분, 최빈값이 20분으로 나타났으며, 은행의 경우에는 평균이 31분, 중앙값이 20분, 최빈값이 10분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어떤 수치를 최소요구활동시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빈값’을 최소요구활동시간으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평균의 경우 특정 표본의 이용시간이 길어 그 값이 높게 나타난 것이므로 최소요구활동시간으로서의 대표성이 떨어지며, 중앙값의 경우에도 그 의미상 전체 표본의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므로 최소요구활동시간으로 간주하기에는 부족한 반면, 최빈값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병/의원이나 은행을 방문할 때 가장 빈번하게 소비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최소요구활동시간의 의미에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4-11〉 각 이동수단별 속도 (m/분)

구 분	도보	시내 버스	전철	택시	승용차	자전거, 통근버스	고속버스 및 기차	기타
속 도	139.8	201.3	224.8	276.4	307.2	295.1	624.9	340.1

자료: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근·통학 2% 표본 원자료

한편 실제 이동가능시간을 거리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각 이동수단별 속도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근·통학 2% 표본자료를 사용하여 각 이동수단별 속도를 계산하였다. 단 시도구분에서 강원도와 같이 인구밀도가 낮은 시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이동수단의 속도가 과대추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하여 속도를 산출하였다. 이동수단의 구분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2009년 생

활시간조사의 이동수단 구분을 따랐으며¹¹⁾, 이동수단별 속도를 산출한 결과 고속버스 및 기차의 속도가 624m/분으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승용차 307.2m/분, 도보는 139.8m/분의 속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래에서 빈곤층과 비빈곤층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의 실질적인 거리를 계산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나. 빈곤층 커뮤니티 케어 접근성 분석: 은행

1) 의무활동의 위치가 다를 때

은행에 대한 접근성은 우선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다르다는 가정 하에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을 산출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앞서 개인의 재량시간과 운영시간은 몇 개의 시간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곧 개인의 재량시간과 운영시간대의 교집합 또한 몇 개의 구간을 가지는 시간집합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접근성에 있어 운영시간을 고려해서 산출한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을 하루 동안 개인별로 합산한 수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구간에서 얼마만큼 잠재적으로 이동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재량시간의 연속성과 같이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의 양이 많을수록 더 멀리 떨어진 시설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1)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통근버스, 스쿨버스 등을 하나의 항목으로 표기하고 있다. 실제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통근 및 스쿨버스의 속도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료의 특성 상 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본래의 구분을 따랐다. 따라서 자전거 및 통근버스 항목의 속도는 다소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

〈표 4-12〉 은행에 대한 빈곤층/비빈곤층의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구 분			표본수 ²⁾	구간수 ³⁾	구간 평균 (분)	표준 편차	개인별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최대값의 평균(분)
은행 ¹⁾	전체	비빈곤층	23,786	63,110	105.9	165.3	207.9
		빈곤층	426	1,141	127.0	190.9	258.6
		전 체	24,212	64,251	106.3	165.8	208.8
	경제 활동 참여자	비빈곤층	12,947	33,891	72.1	112.5	137.4
		빈곤층	107	301	85.5	131.0	179.4
		전 체	13,054	34,192	72.2	112.6	137.7
	전일제 근로자	비빈곤층	7,098	17,966	51.8	87.6	98.4
		빈곤층	49	142	56.8	95.9	119.8
		전 체	7,147	18,108	51.9	87.6	98.5

주 1) 조사시점이 평일인 표본만 고려

2) 한 구간이라도 시설이용가능 필요조건을 만족시키는 표본의 수

3) 재량시간과 시설운영시간이 중복되는 시간대 중 시설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구간의 수

은행에 대한 1구간 당 평균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을 살펴보면 재량시간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경향이 나타난다. 첫째,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특히 전일제로 일할 경우 잠재적인 이동가능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집단에 대한 구분 없이 은행으로 이동하는데 할애할 수 있는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은 106.3분인데 반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72.2분,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51.9분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의무활동에 할애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량시간의 양이 줄어들어 있다는 점과 대부분의 의무활동이 특정한 시간대에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9시 ~ 18시 사이에 재량시간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 시간대가 대부분의 전일제 근로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므로 특정 시설에 참여하기 위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두드러진 경향은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평균적으로 1구간 당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활

동 여부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빈곤층은 127.0분, 비빈곤층은 105.9분의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을 확보하고 있어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서 약 22분 정도 은행에 접근하기 위해 더 많은 이동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반적으로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은행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경제활동의 참여여부와 근로유형(전일제/시간제)에 따라서 그 차이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빈곤층의 1구간 당 평균적인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은 85.5분, 비빈곤층은 72.1분으로 13분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전일제 근로일 경우에 빈곤층은 56.8분, 비빈곤층은 51.8분으로 약 5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앞서 재량시간에 대한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의 비교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제활동의 참여여부가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재량시간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밝혔던 바와 같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특히 전일제로 일할 경우 은행에 대한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에서 보이는 접근성의 차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량시간과 시설운영시간의 교집합으로써 개별 구간 당 평균적인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을 산출하는 것과 함께 각 개인별로 하루 동안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의 최대값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접근성을 보여주는 수치가 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보건소, 병/의원과 같은 시설을 이용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설의 운영시간을 고려했을 때 개인의 하루 재량시간 분포에서 어떤 경우에 가장 오랫동안 재량시간을 이동에 할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의 접근성 수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한 개인이 하루에 직면하는 여러 번의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중 최대값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향성이 나타난다. 특별한 구분이 없을 때 개인이 하루 동안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의 최대값은 평균적으로 208.8분이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137.7분, 전일제

로 근무할 경우 98.5분으로 급격하게 감소한다. 빈곤유무에 따라서도 빈곤층일 경우 특별한 구분을 하지 않았을 때 한 번에 평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의 최대값이 258.6분인 반면, 비빈곤층의 경우 207.9분에 불과해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50분 정도 더 오랫동안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특히 전일제로 근무할수록 개인별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의 최대치가 감소하며, 빈곤여부에 따라서는 빈곤층일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개인별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의 최대치가 더 높아 각 구간별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의 평균이 보여주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잠재적인 이동가능거리로 나타내기 위해 앞서 제시한 속도를 고려하면 대체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즉,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전일제 근로자일 경우 1구간 당 잠재적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와 각 개인이 하루 동안 최대한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또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유무에 따른 영향도 대체로 유사하여 빈곤층일 경우 더 많은 재량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더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빈곤층의 1구간 당 평균적인 이동가능거리가 비빈곤층에 비해 짧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의 은행에 대한 잠재적 이동가능성은 대개 유사해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 4-13〉 은행에 대한 빈곤층/비빈곤층의 잠재적 이동가능거리

구 분			1구간 당 평균 이동가능거리(km)	개인별 최대 이동가능거리의 평균(km)
은행 ¹⁾	전체	비빈곤층	21.27	41.72
		빈곤층	22.69	46.38
		전 체	21.29	41.80
	경제활동 참여자	비빈곤층	16.90	32.29
		빈곤층	17.41	35.91
		전 체	16.91	32.32
	전일제 근로자	비빈곤층	12.94	24.57
		빈곤층	12.68	26.79
		전 체	12.94	24.59

주 1) 조사시점이 평일인 표본만 고려

2) 의무활동의 위치가 같을 때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같을 경우 은행에 대한 접근성 수치는 은행을 이용하고 다시 동일한 위치로 돌아와야 하므로 은행 이용 전이나 후에 남은 재량시간의 값 중 작은 값을 접근 가능한 최대범위로 채택하게 된다. 또한 최대범위를 시간거리로 표현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동에 있어서 편도이동의 의미를 지니므로, 시설까지의 이동과 시설에서 다음 의무활동까지의 이동을 모두 포함하는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에 비해 이론적으로 더 작은 수치를 가진다.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같을 경우 한 번에 접근 가능한 은행의 범위는 평균적으로 45.7분의 시간거리만큼 떨어진 은행까지이다. 하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32.3분,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22.5분의 시간거리만큼 떨어진 은행까지 평균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의 유무와 근로 유형의 차이가 개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빈곤층의 경우 더 많은 재량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비빈곤층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멀리 떨어진 은행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비빈곤층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만 시설

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4〉 빈곤층/비빈곤층의 접근가능한 은행범위(시간)

구 분			표본수 ²⁾	구간수 ³⁾	구간 평균 (분)	표준 편차	개인별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최대값의 평균(분)
은행 ¹⁾	전체	비빈곤층	23,786	63,110	45.6	76.9	93.6
		빈곤층	426	1,141	54.5	89.4	115.2
		전 체	24,212	64,251	45.7	77.2	94.0
	경제 활동 참여자	비빈곤층	12,947	33,891	31.2	50.9	61.6
		빈곤층	107	301	35.3	58.3	75.0
		전 체	13,054	34,192	32.3	51.0	61.7
	전일제 근로자	비빈곤층	7,098	17,966	22.5	38.7	43.9
		빈곤층	49	142	23.3	42.0	50.3
		전 체	7,147	18,108	22.5	38.7	44.0

주 1) 조사시점이 평일인 표본만 고려

2) 한 구간이라도 시설이용가능 필요조건을 만족시키는 표본의 수

3) 계량시간과 시설운영시간이 중복되는 시간대 중 시설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구간의 수

의무활동의 위치가 다를 때 개인별로 하루 동안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의 최대값을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같을 때에도 동일하게 각 개인이 최대로 얼마만큼 떨어진 은행까지 접근 가능한지를 판단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94분의 시간거리만큼 떨어진 은행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접근 범위가 감소한다. 또한 특별한 구분이 없을 경우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약 20분 정도 더 멀리 떨어진 은행까지 접근이 가능하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그 값이 줄어들며 비빈곤층과의 차이 또한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실질적인 거리의 형태로 바뀌보면 시간거리의 형태로 분석했던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전일제 근로여부에 따라 점차 접근 가능한 은행의 범위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빈곤유무에 따른 구분은 다소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전일

제로 근무할 경우 한 번에 접근 가능한 은행의 평균거리가 비빈곤층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별로 접근 가능한 은행의 최대거리는 여전히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빈곤층의 경우 승용차와 같이 속도가 빠른 이동수단보다 도보나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동일한 이동가능시간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짧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이동가능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경우에도 실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짧은 거리만큼만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15〉 빈곤층/비빈곤층의 접근가능한 은행범위(거리)

구 분			1구간 당 평균 이동가능거리(km)	개인별 최대 이동가능거리의 평균(km)
은행1)	전체	비빈곤층	9.17	18.80
		빈곤층	9.77	20.70
		전 체	9.18	18.84
	경제활동 참여자	비빈곤층	7.35	14.52
		빈곤층	7.23	15.06
		전 체	7.34	14.52
	전일제 근로자	비빈곤층	5.64	11.03
		빈곤층	5.23	11.21
		전 체	5.64	11.04

주 1) 조사시점이 평일인 표본만 고려

나. 빈곤층 커뮤니티 케어 접근성 분석: 보건소

1) 의무활동의 위치가 다를 때

보건소의 경우 공공에서 의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이다. 우선 의무활동의 위치가 다르다는 가정 하에 잠

채적 이동가능시간의 측면에서 접근성을 살펴본다. 특별한 구분이 없을 경우 보건소에 대해 176분을 이동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108.9분,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83.9분으로 점차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은행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빈곤유무에 따라 구분해보면 빈곤층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은 214.5분인데 반해, 비빈곤층은 175.3분에 불과해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약 40분 정도 이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빈곤층이 116.8분, 비빈곤층이 108.8분으로 약 8분의 차이 밖에 나지 않아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차이가 상당부분 경제활동 유무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와는 다르게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빈곤층이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평균적인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의 양이 비빈곤층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별로 하루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최대값의 평균은 빈곤층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볼 때, 빈곤층의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의 지속성이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수준은 빈곤층이 비빈곤층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일반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16〉 보건소에 대한 빈곤층/비빈곤층의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구 분			표본수 ²⁾	구간수 ³⁾	구간 평균 (분)	표준 편차	개인별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최대값의 평균(분)
보건소 ¹⁾	전체	비빈곤층	22,027	55,504	175.3	206.1	228.9
		빈곤층	410	1,042	214.5	227.9	280.9
		전 체	22,437	56,546	176.0	206.5	229.9
	경제 활동 참여자	비빈곤층	11,607	28,273	108.8	146.2	152.3
		빈곤층	102	279	116.8	159.5	182.0
		전 체	11,709	28,552	108.9	146.3	152.5
	전일제 근로자	비빈곤층	5,981	12,728	84.0	126.0	113.3
		빈곤층	46	118	72.2	117.4	119.8
		전 체	6,027	12,846	83.9	125.9	113.3

주 1) 조사시점이 평일인 표본만 고려

2) 한 구간이라도 시설이용가능 필요조건을 만족시키는 표본의 수

3) 계량시간과 시설운영시간이 중복되는 시간대 중 시설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구간의 수

보건소에 대한 개인별 하루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최대값의 평균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전일제에 근무할수록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최대값이 평균적으로 낮아진다. 또한, 빈곤층일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서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의 최대값이 평균적으로 높다. 하지만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이를 거리의 형태로 바꿔보면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의 차이가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 빈곤층의 경우 비용 등의 문제로 속도가 빠르고 이동이 편리한 수단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실제로 이동가능한 공간적 거리는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의 차이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 경제활동에 대한 구분 없이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1구간 당 평균 이동가능거리는 각각 38.12km, 34.49km이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8분의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음에도 실제 이동가능거리는 23.45km로 비빈곤층의 25.07km에 비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개인별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의 최대값 또한 30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실제 이동가능거리는 단지 1km 정도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더 많은 재량시간을 확보하고, 그만큼 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수단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먼 거리에 있는 시설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 4-17〉 보건소에 대한 빈곤층/비빈곤층의 잠재적 이동가능거리

구 분			1구간 당 평균 이동가능거리(km)	개인별 최대 이동가능거리의 평균(km)
보건소 ¹⁾	전체	비빈곤층	34.49	45.65
		빈곤층	38.12	50.03
		전 체	34.55	45.73
	경제활동 참여자	비빈곤층	25.07	35.55
		빈곤층	23.45	36.57
		전 체	25.05	35.56
	전일제 근로자	비빈곤층	20.59	28.05
		빈곤층	16.34	26.96
		전 체	20.55	28.05

주 1) 조사시점이 평일인 표본만 고려

2) 의무활동의 위치가 같을 때

보건소에 대한 접근성을 산출함에 있어서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같다고 가정할 경우 한 번에 닿을 수 있는 보건소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이전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1구간 당 평균적으로 접근 가능한 보건소의 범위를 살펴 보면 평균적으로 한 번에 65.4분 정도 떨어진 곳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보건소의 경우 경제활동의 참여여부에 따라 접근 가능한 범위가 크게 감소하는데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한 번에 39.2분의 시간거리만큼 떨어진 보건소에만 갈 수 있으며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그 거리는 더 줄어들어 28.5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에 대한 구분이 없을 경우 빈곤층이 81분, 비빈곤층이 65.1분의 시간거리만큼 접근가능하여 빈곤층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그 차이가 4분여로 감소하고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빈곤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8〉 빈곤층/비빈곤층의 접근가능한 보건소의 범위(시간)

구 분			표본수 ²⁾	구간수 ³⁾	구간 평균 (분)	표준 편차	개인별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최대값의 평균(분)
보건소 ¹⁾	전체	비빈곤층	22,027	55,504	65.1	88.1	101.3
		빈곤층	410	1,042	81.0	99.2	125.9
		전 체	22,437	56,546	65.4	88.3	101.8
	경제 활동 참여자	비빈곤층	11,607	28,273	39.1	60.8	62.7
		빈곤층	102	279	43.6	66.3	79.0
		전 체	11,709	28,552	39.2	60.8	62.9
	전일제 근로자	비빈곤층	5,981	12,728	28.5	50.6	41.8
		빈곤층	46	118	28.5	52.2	52.4
		전 체	6,027	12,846	28.5	50.6	41.9

주 1) 조사시점이 평일인 표본만 고려

2) 한 구간이라도 시설이용가능 필요조건을 만족시키는 표본의 수

3) 재량시간과 시설운영시간이 중복되는 시간대 중 시설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구간의 수

한편 접근성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것은 개인별로 가장 멀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보건소의 시간거리를 살펴보는 것이다. 각 구간별 접근 가능거리의 최대값을 집단별로 평균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인 결과와 유사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접근 가능한 최대범위가 감소하고 빈곤층일수록 평균적으로 더 멀리까지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징적인 것은 비빈곤층의 경우 시설이용이 가능하면서도 접근 가능한 최대 범위가 0인 표본(시설이용가능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면서도 재량시간과 시설운영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의 값이 최소요구활동시간과 같아 개념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동을 위해 소모할 수 있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표본)이 전체의 17.7%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반면 빈곤층의 경우 6.5%로 비빈곤층에 비해서는 그 수치가 낮다. 이러한 패턴은 전일제 비빈곤층의 경우 점심시간과 저녁 퇴근 이후에 재량시간이 많은데 비해 실제 보건소의 운영시간은 점심

시간이 12시 ~ 13시 사이에 설정되어 있어 이 시간대에 비빈곤층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고, 18시 이후에는 보건소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이용가능 하더라도 이동을 위해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은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전일제 빈곤층의 경우 평일 점심시간에는 전일제 비빈곤층에 비해 재량시간이 낮지만 13시 이후 재량시간이 비빈곤층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시설이용이 가능하면서 접근 가능한 최대 범위가 0이 되는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 때 접근 가능한 보건소의 범위를 거리의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 개인별로 이동수단을 가정하고 각 수단별 속도를 곱하여 한 번에 접근 가능한 보건소의 평균거리와 개인별로 접근 가능한 보건소의 최대 범위를 산출해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접근 가능한 공간범위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만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실제 이동가능한 시간이 비빈곤층과 유사해지면서 이동수단이 비빈곤층에 비해 열악한 빈곤층은 접근 가능한 보건소의 공간범위가 비빈곤층에 비해 더 작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과 유사한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빈곤층과 유사한 수준의 이동수단을 사용하거나 비빈곤층에 비해 더 많은 이동가능시간을 확보해야만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4-19〉 빈곤층/비빈곤층의 접근가능한 보건소의 범위(거리)

구 분			1구간 당 평균 이동가능거리(km)	개인별 최대 이동가능거리의 평균(km)
보건소 ¹⁾	전체	비빈곤층	12.73	19.99
		빈곤층	14.44	22.48
		전 체	12.76	20.04
	경제활동 참여자	비빈곤층	8.99	14.51
		빈곤층	8.78	15.89
		전 체	8.99	14.53
	전일제 근로자	비빈곤층	6.97	10.31
		빈곤층	6.40	11.92
		전 체	6.96	10.32

주 1) 조사시점이 평일인 표본만 고려

다. 빈곤층 커뮤니티 케어 접근성 분석: 병/의원

1) 의무활동의 위치가 다를 때

마지막으로 병/의원의 경우를 고려해보자. 병/의원의 경우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다를 때 접근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을 산출해보면 평일의 경우 1구간 당 평균적으로 한번에 159.4분 정도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토요일의 경우 248.7분으로 약 100분 정도 더 많은 시간을 이동에 할애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집단의 구분에 관계없이 재량시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0〉 병/의원에 대한 빈곤층/비빈곤층의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구 분			표본수 ³⁾	구간수 ⁴⁾	구간 평균 (분)	표준 편차	개인별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최대값의 평균(분)
병/의원 (평일) ¹⁾	전체	비빈곤층	23,640	68,892	158.7	193.5	234.5
		빈곤층	421	1,184	200.8	220.8	236.0
		전 체	24,061	70,076	159.4	194.1	235.4
	경제 활동 참여자	비빈곤층	12,856	37,375	102.8	135.2	168.0
		빈곤층	105	309	120.0	155.6	196.4
		전 체	12,961	37,854	102.9	135.3	168.2
	전일제 근로자	비빈곤층	7,037	18,754	81.4	113.6	137.7
		빈곤층	47	128	87.2	125.5	139.8
		전 체	7,084	18,882	81.5	113.7	137.8
병/의원 (주말) ²⁾	전체	비빈곤층	7,915	19,263	248.0	235.2	312.0
		빈곤층	139	339	292.5	238.6	368.1
		전 체	8,054	19,602	248.7	235.3	313.0
	경제 활동 참여자	비빈곤층	4,267	10,136	190.2	211.7	243.6
		빈곤층	34	76	202.2	216.0	240.9
		전 체	4,389	10,212	190.3	211.7	243.6
	전일제 근로자	비빈곤층	2,289	5,278	202.4	219.0	253.1
		빈곤층	13	33	118.8	156.7	152.3
		전 체	2,302	5,311	201.9	218.8	252.5

주 1) 조사시점이 평일인 표본만 고려

2) 조사시점이 토요일인 표본만 고려

3) 한 구간이라도 시설이용가능 필요조건을 만족시키는 표본의 수

4) 재량시간과 시설운영시간이 중복되는 시간대 중 시설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구간의 수

병/의원의 경우에도 앞에서 나왔던 특징적인 패턴은 여전히 존재한다. 평일 기준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102.9분,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81.5분의 평균적인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이 나타나 경제활동의 참여여부가 접근성의 차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토요일의 경우 그 경향성이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여부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오히려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경제활동 참여자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어 토요일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량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더 적

은 수준의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표 4-21〉 병/의원에 대한 빈곤층/비빈곤층의 잠재적 이동가능거리

구 분			1구간 당 평균 이동가능거리(km)	개인별 최대 이동가능거리의 평균(km)
병/의원 (평일) ¹⁾	전체	비빈곤층	34.27	50.86
		빈곤층	37.86	53.92
		전 체	34.33	50.91
	경제활동 참여자	비빈곤층	22.86	37.40
		빈곤층	22.19	37.09
		전 체	22.85	37.40
	전일제 근로자	비빈곤층	18.27	30.94
		빈곤층	15.08	25.34
		전 체	18.25	30.90
병/의원 (주말) ²⁾	전체	비빈곤층	52.96	66.97
		빈곤층	53.37	67.49
		전 체	52.96	66.98
	경제활동 참여자	비빈곤층	45.93	59.13
		빈곤층	42.15	50.72
		전 체	45.90	59.07
	전일제 근로자	비빈곤층	51.09	64.00
		빈곤층	31.26	41.69
		전 체	50.97	63.88

주 1) 조사시점이 평일인 표본만 고려

2) 조사시점이 토요일인 표본만 고려

빈곤여부별 따르면 기존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빈곤층이 더 많은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을 고려할 경우 두 집단 간의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의 차이 또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부분은 전일제 근로자이면서 빈곤층의 경우 평균적인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이 118.8분으로서 같은 전일제 근로자이면서 비빈곤층이 202.4분의 평균적인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비해 그 값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는 표본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전일제 근로자의 요일별 재량시간 분포패턴에 대한 앞의 분석결과로

비추어볼 때, 전일제 빈곤층의 경우 주말에도 재량시간의 확보가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각 개인별로 하루 동안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의 최대값 또한 전일제 빈곤층이 전일제 비빈곤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이 상대적으로 접근제약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개인별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최대값을 살펴보면 평일에 235.4분, 토요일에 313.0분으로 평일에 확보할 수 있는 이동시간이 토요일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이 짧고, 빈곤층일 경우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나,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의 평일 개인별 잠재적인 이동가능시간 최대값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은 기존의 은행이나 보건소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특별히 집단별로 구분하지 않았을 때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이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약 50분 정도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1구간 당 평균적인 이동가능거리는 3.5km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더 많은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실제 이동가능한 거리는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간거리 측면에서는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접근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동수단을 고려할 경우 접근성이 오히려 낮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의무활동의 위치가 같을 때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같을 때 한 번에 접근 가능한 병/의원의 범위를 살펴보면 특별한 구분이 없을 경우 평일에는 60.9분의 시간거리만큼, 토요일에는 87.9분의 시간거리만큼 떨어진 병/의원까지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같은 경우에도 두 의무활동의 위치가 다를 경우 나타났던 경향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즉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접근 가능한 병/의원의 범위가 감소한다. 평일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 번에 평균적으로 37.7분, 토요일에는 66.6분의 시간거리만큼 이동할 수 있으며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평일에는 29분, 토요일에는 70.0분만큼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여부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접근 가능한 병/의원의 범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평일에 비해 토요일의 재량시간이 증가하지만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경제활동 참여자 집단의 경우 재량시간의 증가폭이 전일제 근로자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4-22〉 빈곤층/비빈곤층의 접근가능한 병/의원의 범위(시간)

구 분			표본수 ³⁾	구간수 ⁴⁾	구간 평균 (분)	표준 편차	개인별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최대값의 평균(분)
병/의원 (평일) ¹⁾	전체	비빈곤층	23,640	68,892	60.6	83.8	104.4
		빈곤층	421	1,184	79.3	97.8	131.4
		전 체	24,061	70,076	60.9	84.1	104.8
	경제 활동 참여자	비빈곤층	12,856	37,375	37.7	56.1	68.2
		빈곤층	105	309	43.4	65.4	83.5
		전 체	12,961	37,854	37.7	56.2	68.3
	전일제 근로자	비빈곤층	7,037	18,754	29.0	45.0	50.7
		빈곤층	47	128	28.7	50.3	55.4
		전 체	7,084	18,882	29.0	45.0	50.7
병/의원 (주말) ²⁾	전체	비빈곤층	7,915	19,263	87.5	99.2	134.5
		빈곤층	139	339	106.5	104.1	159.8
		전 체	8,054	19,602	87.9	99.3	135.0
	경제 활동 참여자	비빈곤층	4,267	10,136	66.4	85.5	102.4
		빈곤층	34	76	81.0	91.5	113.7
		전 체	4,389	10,212	66.6	85.5	102.5
	전일제 근로자	비빈곤층	2,289	5,278	70.2	87.6	105.0
		빈곤층	13	33	48.8	70.7	70.8
		전 체	2,302	5,311	70.0	87.5	104.8

주 1) 조사시점이 평일인 표본만 고려

2) 조사시점이 토요일인 표본만 고려

3) 한 구간이라도 시설이용가능 필요조건을 만족시키는 표본의 수

4) 계량시간과 시설운영시간이 중복되는 시간대 중 시설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구간의 수

한편 빈곤유무를 고려한 결과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빈곤층일 경우 평일이나 주말에 관계없이 비빈곤층에 비해 약 20분 정도 더 멀리 떨어진 병/의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경제활동 여부를 고려하면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차이는 감소하여 평일에 빈곤층은 43.4분, 비빈곤층은 37.7분의 시간거리만큼 떨어진 곳까지 이동할 수 있다. 전일제 근로의 경우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접근성이 약간 낮으나 대체로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토요일의 경우 전일제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접근 가능한 범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대로 주말에 전일제 빈곤층의 재량시간이 적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별 접근가능한 병/의원의 최대범위 또한 위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평일의 경우 개인별로 평균 104.8분의 시간거리만큼 접근이 가능하며, 토요일은 135분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평일은 68.3분, 전일제 근로자는 50.7분으로 평일의 경우 경제활동의 참여여부에 따라 그 차이가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이 나타나는 반면, 주말은 위와 같이 전일제 근로자의 접근가능한 최대범위가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대체로 접근가능한 병/의원의 최대범위가 더 크지만 전일제 빈곤층만 그 경향성이 역전되어 나타난다.

〈표 4-23〉 빈곤층/비빈곤층의 접근가능한 병/의원의 범위(거리)

구 분			1구간 당 평균 이동가능거리(km)	개인별 최대 이동가능거리의 평균(km)
병/의원 (평일) 1)	전체	비빈곤층	12.03	20.90
		빈곤층	14.07	23.42
		전 체	12.07	20.94
	경제활동 참여자	비빈곤층	8.80	16.05
		빈곤층	8.70	16.77
		전 체	8.80	16.05
	전일제 근로자	비빈곤층	7.24	12.68
		빈곤층	6.35	12.56
		전 체	7.23	12.68
병/의원 (주말) 2)	전체	비빈곤층	18.66	28.71
		빈곤층	19.91	29.77
		전 체	18.68	28.72
	경제활동 참여자	비빈곤층	16.06	24.75
		빈곤층	17.08	24.16
		전 체	16.07	24.74
	전일제 근로자	비빈곤층	17.76	26.58
		빈곤층	13.13	19.70
		전 체	17.73	26.54

주: 1) 조사시점이 평일인 표본만 고려

2) 조사시점이 토요일인 표본만 고려

접근 가능한 병/의원의 범위를 거리의 형태로 나타내면 은행이나 보건소의 경우와 유사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빈곤층이 더 많은 이동가능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시간거리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접근 가능한 시설의 거리는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나타난다. 특히 전일제 빈곤층이 접근 가능한 병/의원의 최대거리 또한 비빈곤층에 비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층이 실질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동시간의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라. 빈곤층 커뮤니티 케어 접근성 분석: 세 시설의 비교

각 시설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성 수준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에는 시설 간의 비교를 통해 운영시간의 차이가 각 집단별 채량시간의 분포특성과 맞물렸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표 4-24〉 빈곤층/비빈곤층의 접근가능한 병/의원의 범위(시간)

구 분		전체		경제활동 참여자		전일제 근무자	
		시간(분)	거리(km)	시간(분)	거리(km)	시간(분)	거리(km)
은행 ¹⁾	비빈곤층	105.9	21.27	72.1	16.90	51.8	12.94
	빈곤층	127.0	22.69	85.5	17.41	56.8	12.68
	전 체	106.3	21.29	72.2	16.91	51.9	12.94
보건소 ¹⁾	비빈곤층	175.3	34.49	108.8	25.07	84.0	20.59
	빈곤층	214.5	38.12	116.8	23.45	72.2	16.34
	전 체	176.0	34.55	108.9	25.05	83.9	20.55
병/의원	평일 ¹⁾	비빈곤층	158.7	34.27	102.8	22.86	81.4
		빈곤층	200.8	37.86	120.0	22.19	87.2
		전 체	159.4	34.33	102.9	22.85	81.5
	주말 ²⁾	비빈곤층	248.0	52.96	190.2	45.93	202.4
		빈곤층	292.5	53.37	202.2	42.15	118.8
		전 체	248.7	52.96	190.3	45.90	201.9

주 1) 조사시점이 평일인 표본만 고려
2) 조사시점이 토요일인 표본만 고려

우선 은행과 보건소, 병/의원의 평일 운영시간의 차이는 병/의원의 전체 운영시간은 총 9시간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보건소 8시간, 은행 7시간으로 은행의 운영시간이 가장 짧다는 점이다. 이는 1구간 당 평균적인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에서도 나타난다. 즉 은행의 경우 전체적으로 106.3분, 보건소는 176.0분, 병/의원은 159.4분으로 은행의 평균적인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은행은 16시에 마감하기 때문에 대체로 18시 이후에 재량시간이 확보되는 경제활동 참여자나 전일제 근무자의 경우 그 패턴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병/의원에 비해 실제 운영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커뮤니티 케어별 시설이용이 불가한 표본의 비율을 고려할 경우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은행이나 병/의원의 경우 전체 표본 중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은 1% 미만이다.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전체의 7.5%, 경제활동을 할 경우 10.56%, 전일제 근무자의 경우 15.94%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개인의 재량시간과 시설 운영시간을 매칭시킨 후 최소요구활동시간을 고려할 경우 시설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비율이 대략 10% 내외가 된다. 따라서 보건소의 접근성 수치를 산출할 경우 평균에 포함되지 않는 표본의 수가 다른 시설에 비해 많아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표본들이 제거되어 전체 구간 수가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25〉 커뮤니티 케어별 빈곤층/비빈곤층의 1구간 당 접근가능한 범위

구 분		전체		경제활동 참여자		전일제 근무자	
		시간(분)	거리(km)	시간(분)	거리(km)	시간(분)	거리(km)
은행 ¹⁾	비빈곤층	45.6	9.17	31.2	7.35	22.5	5.64
	빈곤층	54.5	9.77	35.3	7.23	23.3	5.23
	전 체	45.7	9.18	32.3	7.34	22.5	5.64
보건소 ¹⁾	비빈곤층	65.1	12.73	39.1	8.99	28.5	6.97
	빈곤층	81.0	14.44	43.6	8.78	28.5	6.40
	전 체	65.4	12.76	39.2	8.99	28.5	6.96
병/의원	평일 ¹⁾	비빈곤층	60.6	12.03	37.7	8.80	7.24
		빈곤층	79.3	14.07	43.4	8.70	6.35
		전 체	60.9	12.07	37.7	8.80	7.23
	주말 ²⁾	비빈곤층	87.5	18.66	66.4	16.06	17.76
		빈곤층	106.5	19.91	81.0	17.08	13.13
		전 체	87.9	18.68	66.6	16.07	17.73

주 1) 조사시점이 평일인 표본만 고려

2) 조사시점이 토요일인 표본만 고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보건소에 대한 시설이용불가비율이 다른 시설에 비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보건소와 다른 시설 간의 운영시간 패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건소의 경우 운영시간은 9시 ~ 12시, 13시 ~ 18시로 일반적인 관공서의 운영패턴과 동일한 반면 은행의 경우 공백 없이 9시 ~ 16시, 병/의원의 경우 평일기준으로 9시 ~ 13시, 14시 ~ 19시의 운영시간을 가진다. 따라서 각 시설들과 재량시간이 중복되는 시점은 9시 ~ 19시 사이의 시간대로 이 시간대에 충분히 재량시간이 확보되어 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시간대는 업무시간대로 의무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간대이다. 단 한 시점, 즉 일반적인 점심시간대인 12시 ~ 13시 사이에 재량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은행이나 병/의원의 경우 해당 시간대에도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보건소의 경우 해당 시간대에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 즉 상당수의 사람들이 12시 ~ 13시에 존재하는 재량시간을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에는 활용할 수 없고 보건소는 18시 이후로 운영하지 않

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다시 재량시간이 증가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건소에 대한 이용 자체를 할 수 없는 결과에 처한다. 특히 빈곤층의 경우 점심시간 이외에도 재량시간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이용불가비율이 비빈곤층에 비해 낮지만 비빈곤층의 경우 상당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더욱 낮게 나온다.

〈표 4-26〉 커뮤니티 케어별 빈곤층/비빈곤층 시설이용불가비율(%)

구 분		전체		경제활동 참여자		전일제 근무자		
은행 ¹⁾	비빈곤층	0.16	(39/23825)	0.28	(37/12984)	0.32	(23/7121)	
	빈곤층	1.16	(5/431)	0	(0/107)	0	(0/49)	
	전 체	0.18	(44/24256)	0.28	(37/13091)	0.32	(23/7170)	
보건소 ¹⁾	비빈곤층	7.55	(1798/23825)	10.61	(1377/12984)	16.01	(1140/7121)	
	빈곤층	4.87	(21/431)	4.67	(5/102)	6.12	(3/49)	
	전 체	7.50	(1819/24256)	10.56	(1382/13091)	15.94	(1143/7170)	
병/의원	평일 ¹⁾	비빈곤층	0.78	(185/23825)	0.99	(128/12984)	1.18	(84/7121)
		빈곤층	2.32	(10/431)	1.87	(2/105)	4.08	(2/49)
		전 체	0.80	(195/24256)	0.99	(130/13091)	1.20	(86/7170)
	주말 ²⁾	비빈곤층	1.44	(116/7915)	2.00	(87/4354)	2.10	(49/2338)
		빈곤층	2.11	(3/142)	2.86	(1/35)	7.14	(1/14)
		전 체	1.46	(119/8054)	2.01	(88/4389)	2.13	(50/2352)

주 1) 조사시점이 평일인 표본만 고려

2) 조사시점이 토요일인 표본만 고려

〈표 4-27〉 시설이용이 가능한 표본만 포함한 하루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및 거리 최대값의 평균

구 분		전체		경제활동 참여자		전일제 근무자	
		시간(분)	거리(km)	시간(분)	거리(km)	시간(분)	거리(km)
은행 ¹⁾	비빈곤층	207.9	41.72	137.4	32.29	98.4	24.57
	빈곤층	258.6	46.38	179.4	35.91	119.8	26.79
	전 체	208.8	41.80	137.7	32.32	98.5	24.59
보건소 ¹⁾	비빈곤층	228.9	45.65	152.3	35.55	113.3	28.05
	빈곤층	280.9	50.03	182.0	36.57	119.8	26.96
	전 체	229.9	45.73	152.5	35.56	113.3	28.05
병/의원	평일 ¹⁾	비빈곤층	234.5	50.86	168.0	37.40	137.7
		빈곤층	236.0	53.92	196.4	37.09	139.8
		전 체	235.4	50.91	168.2	37.40	137.8
	주말 ²⁾	비빈곤층	312.0	66.97	243.6	59.13	253.1
		빈곤층	368.1	67.49	240.9	50.72	152.3
		전 체	313.0	66.98	243.6	59.07	252.5

주 1) 조사시점이 평일인 표본만 고려
2) 조사시점이 토요일인 표본만 고려

〈표 4-28〉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표본을 포함한 하루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및 거리 최대값의 평균

구 분		전체		경제활동 참여자		전일제 근무자	
		시간(분)	거리(km)	시간(분)	거리(km)	시간(분)	거리(km)
은행 ¹⁾	비빈곤층	207.6	41.65	137.0	32.20	98.1	24.49
	빈곤층	255.6	45.84	179.4	35.91	119.8	26.79
	전 체	208.5	41.73	137.4	32.23	98.2	24.51
보건소 ¹⁾	비빈곤층	211.7	42.20	136.1	31.78	95.1	23.56
	빈곤층	267.2	47.59	173.5	34.86	112.4	25.31
	전 체	212.7	42.30	136.4	31.80	95.2	23.57
병/의원	평일 ¹⁾	비빈곤층	232.7	50.46	166.3	37.03	136.1
		빈곤층	279.4	52.67	192.7	36.40	134.1
		전 체	233.5	50.50	166.5	37.03	136.1
	주말 ²⁾	비빈곤층	307.5	66.00	238.8	57.95	247.8
		빈곤층	360.4	66.06	234.0	49.27	141.4
		전 체	308.4	66.00	238.7	57.88	247.1

주 1) 조사시점이 평일인 표본만 고려
2) 조사시점이 토요일인 표본만 고려

〈표 4-29〉 시설이용이 가능한 표본만 포함한 접근가능한 시설의 최대범위에 대한 평균

구 분		전체		경제활동 참여자		전일제 근무자	
		시간(분)	거리(km)	시간(분)	거리(km)	시간(분)	거리(km)
은행 ¹⁾	비빈곤층	93.6	18.80	61.6	14.52	43.9	11.03
	빈곤층	115.2	20.70	75.0	15.06	50.3	11.21
	전 체	94.0	18.84	61.7	14.52	44.0	11.04
보건소 ¹⁾	비빈곤층	101.3	19.99	62.7	14.51	41.8	10.31
	빈곤층	125.9	22.48	79.0	15.89	52.4	11.92
	전 체	101.8	20.04	62.9	14.53	41.9	10.32
병/의원	평일 ¹⁾	비빈곤층	104.4	20.90	68.2	16.05	50.7
		빈곤층	131.4	23.42	83.5	16.77	55.4
		전 체	104.8	20.94	68.3	16.05	50.7
	주말 ²⁾	비빈곤층	134.5	28.71	102.4	24.75	105.0
		빈곤층	159.8	29.77	113.7	24.16	70.8
		전 체	135.0	28.72	102.5	24.74	104.8

주 1) 조사시점이 평일인 표본만 고려

2) 조사시점이 토요일인 표본만 고려

〈표 4-30〉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표본을 포함한 접근가능한 시설의 최대범위에 대한 평균

구 분		전체		경제활동 참여자		전일제 근무자	
		시간(분)	거리(km)	시간(분)	거리(km)	시간(분)	거리(km)
은행 ¹⁾	비빈곤층	93.4	18.77	61.4	14.48	43.8	11.00
	빈곤층	113.8	20.46	75.0	15.06	50.3	11.21
	전 체	93.8	18.80	61.5	14.48	43.8	11.00
보건소 ¹⁾	비빈곤층	93.7	18.48	56.1	12.97	35.1	8.66
	빈곤층	119.8	21.38	75.3	15.14	49.2	11.19
	전 체	94.2	18.53	56.2	12.99	35.2	8.67
병/의원	평일 ¹⁾	비빈곤층	103.6	20.73	67.5	15.89	50.1
		빈곤층	128.3	22.88	82.0	16.49	53.2
		전 체	104.0	20.77	67.7	15.89	50.1
	주말 ²⁾	비빈곤층	132.6	28.29	100.4	24.25	102.8
		빈곤층	156.4	29.14	110.4	23.47	65.7
		전 체	133.0	28.31	100.4	24.25	102.6

주 1) 조사시점이 평일인 표본만 고려

2) 조사시점이 토요일인 표본만 고려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표본들을 함께 고려하여 개인별로 하루 동안 잠재적으로 이동가능한 최대시간과 접근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계산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시설불가이용비율이 낮았던 은행이나 병/의원의 경우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표본들을 고려하더라도 수치에 큰 변화가 없으나 보건소의 경우에는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의 최대값이 10분 정도 감소한다. 특히 시설이용불가비율이 높았던 전일제 비빈곤층의 경우 큰 폭의 시간감소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시설의 운영시간이 짧았던 은행에 비해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건소의 경우 운영시간이 은행에 비해서 길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간활용패턴과 적절하게 매칭되지 못하면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개인별 하루 잠재적 이동가능시간 최대값의 평균이나 접근가능한 시설의 최대범위는 병/의원이 보건소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가 전일제 비빈곤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일제 비빈곤층의 경우 시설이용가능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만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이나 접근 가능한 최대범위는 0인 표본이 전체의 17.7%를 차지하지만 병/의원의 경우 시설이용이 가능하면서도 접근 가능한 최대 범위가 0인 표본은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값이 병/의원에 비해 더 작게 산출되는 것이다.

위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의 참여여부와 근로형태에 따라 동일한 운영시간을 가지는 시설 내에서도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이나 접근 가능한 시설의 범위가 달라진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전일제로 근무할수록 접근성이 감소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전반적으로 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빈곤층의 경우 재량시간을 비빈곤층에 비해 더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다만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근로형태를 고려할 경우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차이는 그만큼 감소하며, 상당한 경우 둘 간의 차이가 사라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

활동에 관한 변수를 고려할 경우 두 집단 간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셋째,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많은 이동가능시간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수단을 고려하여 실제 이동가능한 공간거리를 계산할 경우 그 차이가 상쇄된다. 즉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이동수단이 열악하기 때문에 빈곤층의 경우 충분한 이동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실제 거리로 표현되는 접근성 측면에서 비빈곤층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접근 가능한 범위가 더 작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넷째, 은행, 보건소, 병/의원의 총 운영시간에 따라 시설에 대한 접근 범위에 차이가 존재한다. 은행의 경우 총 운영시간이 7시간에 불과하여 접근범위가 전반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반면 보건소나 병/의원의 경우 운영시간이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범위가 넓게 나타난다. 다섯째, 총 운영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운영시간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있느냐는 각 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큰 차이를 낳는다. 보건소의 경우 일반적인 업무시간인 9시 ~ 12시, 13시 ~ 18시의 운영시간을 보이는데 대개 점심시간에 재량시간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패턴을 고려할 때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다른 시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건소의 접근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운영시간과 함께 각 집단의 재량시간의 패턴 또한 매우 중요한데, 점심시간에 재량시간이 높게 나타나는 비빈곤층의 경우 보건소에 대한 최대 접근가능범위가 낮게 나타나거나 시설이용불가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빈곤층의 경우 점심시간에 재량시간이 낮고 점심시간 이후로 오히려 비빈곤층에 비해 재량시간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접근가능범위가 더 크고, 병/의원에 있어서는 점심시간의 시설이용불가비율을 상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재량시간 분포패턴과 각 시설의 운영시간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특히 일반적인 공공시설의 운영시간으로 간주되는 9시 ~ 12시, 13시 ~ 18시 패턴을 확일적으로 고수하

기 보다는 시간적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나 최대의 효용을 낼 수 있는 운영시간 패턴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전반적인 분석결과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시설에 대한 시간거리로 표현된 접근가능범위와 이동가능시간이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접근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빈곤층이 재량시간이 많기 때문에 비빈곤층에 비해서 더 많은 이동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재량시간에 대한 시간대 분포차이가 경제활동여부에 의해서 상당부분 설명된다고 보았을 때 빈곤층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잠재적 이동가능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하다. 하지만 이동수단을 고려해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접근가능한 공간범위는 시간적인 차이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빈곤층이 비빈곤층과 접근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반대로 이들 집단이 접근성 동일함에도 빈곤층과 비빈곤층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그 자체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비빈곤층에 비해 효율적인 이동수단에 대한 비용지불능력이 낮은 빈곤층은 이동에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많아야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가능성이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비빈곤층과 동일해진다면 이들은 접근성에 있어 비빈곤층에 비해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소득에 대한 제약과 활동에 대한 제약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취약한 집단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분석결과는 빈곤층, 특히 근로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서 시간제약에 직면하여 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5. 소결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지리학적 접근을 통해 빈곤층의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이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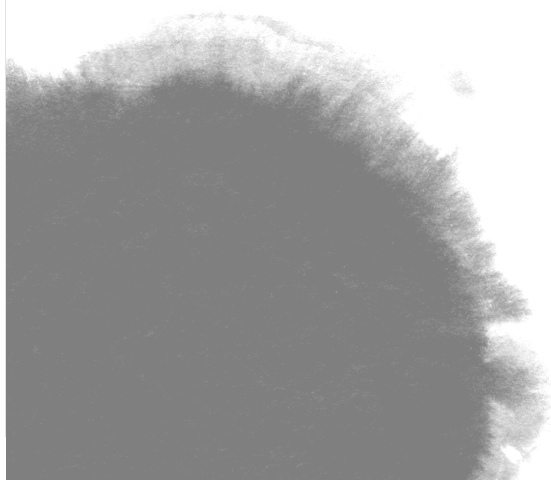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더 많은 재량시간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히 경제활동의 참여여부에 따른 영향력이 반영된 것으로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의무활동에 따른 제약이 적어 다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재량시간이 더 많다. 둘째, 빈곤층 내부에서는 연령에 따라 재량시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근로유형에 따라 재량시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셋째, 재량시간을 하루 24시간의 시간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업무시간인 9시 ~ 12시, 13시 ~ 18시 사이에는 재량시간이 적고 점심시간인 12시 ~ 13시와 퇴근시간인 18시 이후로 재량시간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빈곤층의 경우, 전일제로 근무하는 비빈곤층에 비해 점심시간에 재량시간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이는 일반적인 점심시간에도 주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비빈곤층보다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다섯째,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접근성을 은행, 보건소, 병/의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특히 전일제로 근무할수록 접근 가능한 공간범위나 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층일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재량시간의 양이 더 많고 시간대 분포가 보다 유연적이므로 더 많은 이동가능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섯째,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이동가능시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비빈곤층과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게 되며, 이동수단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이동가능거리와 접근가능한 시설의 공간범위

를 거리로 변환시키면 오히려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시에는 이동가능시간의 차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동수단이 비빈곤층에 비해 열악한 빈곤층의 경우 더 먼 거리에 위치한 시설까지 접근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는 그만큼 빈곤층, 특히 근로 빈곤층이 시공간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곱째, 시설의 운영시간을 고려할 경우 일반적으로 재량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12시 ~ 13시, 18시 이후로 시설의 운영시간이 정해지면 접근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산출하는데 있어 운영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특정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동에 소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더 많지만 이동수단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접근성 수준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빈곤층은 이동수단이 열악하고 빈곤층으로서 이동에 따른 비용부담 또한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접근성이 비빈곤층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이 재량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간대로 시설의 운영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이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빈곤층이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빠른 이동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이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때, 빈곤층이 직면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5장

사례 중심의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제5장 사례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제1 절 생활시간 분석의 시사점

시간 사용에 대한 분석은 일상적인 삶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연구이다. 빈곤층과 비빈곤층 등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시간 사용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시간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이며, 따라서 동일한 시간을 활용하여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빈곤층과 비빈곤층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비교의 관점에서 목적별 혹은 용도별 시간 사용량, 시간대별 시간 이용의 패턴에 특징적인 양상이 있다면, 이러한 결과는 빈곤의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빈곤층과 비빈곤층이 시간 사용량과 사용 패턴의 차이를 보인다면,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것은 빈곤 예방과 탈빈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시간 사용량과 시간 사용의 패턴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의 제거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공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빈곤정책의 질적 발전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층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는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하는 시간 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리고 시간 사용 패턴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시간 사용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차이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빈곤층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간 사용의 영역은 개인, 관계 그리고 경제활동으로 구분한다. 개인 영역은 개인유지와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 활용을 의미하며, 관계 영역은 가정(족)을 벗어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교제 및 여가활동 등에 관련된 시간 활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사회 영역은 부가 가치 혹은 소득을 얻기 위한 시간 활용을 의미하며, 학생의 경우에 학교생활 및 학습을 위한 시간 활용을 지칭한다.

개인 영역의 시간 활용에 있어서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서 수면시간과 의료서비스 중 자가치료 및 질병으로 인한 휴식 등에 활용하는 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곤층은 하루 중 8시간 이상을 수면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비빈곤층은 8시간 미만을 쓰고 있었다. 총 수면시간을 밤에 자는 수면과 낮잠 및 졸음으로 구분해서 비교했을 때에도 빈곤층의 수면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개인의 건강을 위한 활동시간은 빈곤층이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가치료와 아파서 쉬는 시간의 경우가 빈곤층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진료나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집 안에서 특별한 방법 없이 휴식이나 자가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위생, 식사준비, 외모관리 등의 자기관리를 위한 시간 그리고 청소, 의료수선 등의 가정관리에 관련된 시간의 경우는 빈곤층이 비빈곤층보다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으며, 따라서 빈곤층과 비빈곤층이 동일한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의 경우,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평균 두 배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층은 빈곤하지 않은 계층에 비해 은행 및 관공서로 일을 직접 보러가는 빈도가 많거나, 한번 방문 시에도 업무를 마치는데 더 오래 걸렸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표 5-1〉 빈곤층 시간 활용의 특징

영역		빈곤층 시간 활용의 특징
개인		• 수면시간은 빈곤층이 길게 나타남 • 개인위생, 자기관리 등은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차이가 없음 • 의료서비스 중 자가치료와 휴식은 빈곤층이 길게 나타남 • 식사준비, 청소, 의류 등 가정관리 시간은 통계적인 차이가 없으나,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는 빈곤층이 길게 나타남
	관계	•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교제활동은 빈곤층이 길게 나타남 •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인터넷(게임) 등은 빈곤층이 긴 반면에 취미활동 및 운동, 대면접촉을 통한 교제활동은 비빈곤층이 길게 나타남 • 종교활동 시간이 빈곤층이 길게 나타남
사회	취업자	• 일과 관련된 시간은 비빈곤층이 전반적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으나, 취업자의 경우에는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차이가 없음 • 구직활동은 빈곤층이 길고, 부업은 비빈곤층이 길게 나타남
	학생	• 학교내 정규시간내 활동 시간은 차이가 없음 • 학교내 수업 이외의 활동 시간은 빈곤층이 길게 나타남 • 학교외 정규시간 이외의 활동시간은 비빈곤층이 길게 나타남

관계 영역에 있어서 시간 활용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매체를 활용한 교제 활동은 빈곤층이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층은 제한적인 공간에서 타인과의 소통 및 관계 유지를 하는 것으로 비빈곤층에 비해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간활용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매체 이용 관련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TV를 더 오랜 시간 보고, 잡지 읽기, 라디오 듣기, 음악듣기,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제 활동과 동일한 맥락에서 제한적 공간에서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유추할 수 있다. 빈곤한 성인들은 학생의 정규 수업과 같은 의무 사항이 아닌 여가 활동으로서의 학습을 하는데 일정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분야는 외국어, 컴퓨터, 자격증 학습이었다. 이는 빈곤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참여를 위한 학습 관련 활동을 많이 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빈곤층이 제한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및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¹²⁾ 반면에 비빈곤층은 대면접촉에 의한 교제활동과 운동, 등산, 하이킹 등과 같은 활동적인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교제 및 여가활동의 양상이 빈곤층과 비빈곤층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비용부담 능력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빈곤층은 제한적인 공간에서 비용을 동반하지 않은 교제 및 여가에 치중하는 것이며, 비빈곤층은 비용부담과 더불어 활동적인 유형의 대면접촉과 여가활동에 시간을 할애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관계 영역의 시간 활용에 있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서 대면접촉 중심의 종교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빈곤층이 종교활동에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다른 교제활동에 비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종교기관의 자선적 특징과 재분배적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영역의 시간 활용 분석에 의하면,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하여 구직활동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적다는 점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과 관련된 시간 활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비빈곤층이 빈곤층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활동 참여 비율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일과 관련한 사용 시간을 분석한 결과 빈곤층과 비빈곤층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주업이 아닌 부업의 경우 비빈곤층이 빈곤층에 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시간 활용에 있어서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차이는 재량 시간 분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평균적

12) 빈곤층이 대면접촉의 교제활동이 적고 제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가에 치중하고 있음은 식사와 관련된 활동에서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식품섭취관련 행동은 비빈곤층이 빈곤층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빈곤층의 경우에 혼자서 식사하는 시간은 비빈곤층에 비해서 더 길은 것을 나타냈다.

으로 더 많은 재량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량시간의 연속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 재량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를 나누어 소득계층간의 차이를 보면,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재량시간의 패턴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특정 시간대(점심시간대, 퇴근 후 시간대)에 빈곤층의 재량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해당 시간대에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주업에 의무시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점심시간과 통상적인 퇴근 이후 시간에 재량시간이 적다는 것은 빈곤층의 근무시간과 형태가 불규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빈곤층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시설이나 기관의 접근성에 제약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0대 학생들의 경우에 학교 내 정규시간의 활동 시간은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정규시간 이외의 활동 시간은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의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 내 정규시간 이외의 학습관련 행동시간은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길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학교외 부에서 정규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활동 시간은 비빈곤층은 빈곤층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³⁾. 이는 비빈곤층이 빈곤층에 비해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13) 정규수업시간 이후에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시간 활용은 차이는 재량시간 분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평일의 경우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18시 ~ 22시 사이에 재량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체로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해당 시간에 사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고, 반면에 자율학습과 같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빈곤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1. 개인 영역의 시간 사용과 커뮤니티 케어

개인 영역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빈곤층은 수면, 휴식, 청소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 사용은 개인의 역량 제고, 생산적 활동,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빈곤층의 시간 사용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뚜렷한 목적 의식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 활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빈곤의 원인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빈곤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로 빈곤층은 건강, 신체 기능, 직업능력 등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의 구성 역시 노인가구, 소득자 부재 가구, 편부모 가구, 단독 가구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층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활동과 목적을 위해서 시간 활용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즉 빈곤층의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이로 인하여 시간 활용이 단순하고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빈곤의 예방과 탈빈곤은 경제적 자원과 소득의 획득이 가장 핵심인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빈곤층의 행태(behavior)와 인식 변화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빈곤층의 행태와 인식의 전환은 공적 제도를 통한 소득을 높이는 것보다 어려운 과제이다. 사람들의 행태와 인식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본적으로 가치관, 인지구조, 동기 유발 등과 같은 심리적·내적 과정의 산물이다. 따라서 빈곤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와 지원 서비스는 소득 증대, 생계 지원 등과 같은 가시적인 목표 달성에 국한되지 않고, 심리적·내적인 측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빈곤층의 근로의욕,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취업을 위한 기능교육이나 기

슬습득과는 별도로 삶의 목표 설정과 동기유발(motivation)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적·심리적 과정을 통한 행태와 인식 변화는 자신의 인격과 자기존중감(self-esteem)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발적인 선택과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역 인근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과 철학 강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은 사례가 있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대다수가 아닌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노숙자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선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층에게 인문학과 철학 강의를 필수적으로 강제하거나, 성과 중심의 사고를 기반으로 양적 확대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계몽적 사명감과 교훈 주입방식의 교육으로 변질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빈곤층이 우리 사회의 이방인이 아닌 동반자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소수의 사람에게 자기존중감의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사회교육 담당 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빈곤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빈곤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와 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은 시간관리 및 계획의 중요성이다.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이나 단위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시간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가치를 지니는 핵심 자원¹⁴⁾이다. 시간의 활용과 관리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동시에 습관화를 통한 생활방식의 정착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의무사항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하고, 일과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빈곤층 생활시간의 패턴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시간을 관리하고,

14) 시간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자원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예는 노동시간과 생활시간을 구분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이란 고용주가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피고용인을 전체적으로 지휘 관리하여 노동시키는 시간을 의미하며, 생활시간이란 자연일을 기초로 하여 노동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서 임금근로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다. 노동시간과 생활시간의 구별은 일반적 법률(노동법)에 의해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표준노동일을 제정하면서부터 확립되었다.

이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빈곤층의 자활과 탈빈곤을 위한 지원에 구체적인 목표 설정, 시간관리, 계획 세워 실천하기, 가계부 작성과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행동과 인식 변화, 시간관리, 계획 수립과 실천 등은 개인의 자발적 노력과 선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빈곤층의 생활시간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의료적 건강관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서 질병 보유와 낮은 건강상태에 있으며, 그 결과 의료적 건강관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을 이용한 서비스 시간은 빈곤층과 비빈곤층간에 차이가 없다. 이는 빈곤층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없는 의료급여 대상자라는 점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의 비용에 의한 접근성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빈곤층은 의료기관 이용을 제외한 자가치료와 질병으로 인한 휴식 시간이 비빈곤층에 비해서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빈곤층이 만성질환 보유율이 높고 이로 인하여 장기간의 약물 복용과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나 대응 방안이 없이 소극적인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성이 있다면, 빈곤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는 만성질환 관리, 정확한 의료정보 제공, 적극적인 건강관리 방안 등에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질병 진단과 처치, 투약의 사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운동, 일상생활의 습관 교정, 생활환경 개선 등 사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관계 영역의 시간 사용과 커뮤니티 케어

관계란 인간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간관계(human relation)란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행위의 양식이다. 즉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내면적·감정적인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이다. 또한 집단이나 조직 구성원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규율, 제도 등을 지칭하는 사회관계(social relation)를 포함한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강조¹⁵⁾되는 것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며, 인간관계 혹은 사회관계에 편입되지 못하고 고립적인 삶의 방식을 영위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빈곤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생활시간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직접적인 대면 접촉보다는 간접적인 접촉을 통한 인간관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게임, 산책 등과 같이 혼자서 하는 취미활동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식사の場合에도 가족, 친구, 동료 등과 같이 하기보다는 혼자서 식사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인간관계 혹은 사회관계에서 배제되어 고립적인 형태의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층에게 사회적 관계망에 편입 가능성을 높이고, 인간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와 지원 서비스는 인간관계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훈련하고, 이를 습득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인간관계의 출발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고,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은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의견을

15) 조직이나 집단내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인간관계론(human relation approach)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관계론이란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적·심리적 욕구와 조직 내 비공식집단 등을 중시하며, 조직의 목표와 조직구성원의 목표간 균형 유지를 위한 민주적·참여적 관리방식을 처방하는 조직이론을 말한다. 인간관계론은 기계적 인간관과 경제적 이윤동기에 기반하고 있었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으며, Mayo를 중심으로 미국의 Western Electric 회사 Hawthorne 공장에서 1927년부터 1932년까지 수행한 일련의 실험에 의해 이론적 틀이 마련되었다. 인간관계론은 핵심 내용은 첫째, 조직구성원의 생산성은 경제적 동기만이 아니라 사회·심리적 요인도 중요하다는 점, 둘째, 이러한 비경제적 보상을 위해서는 대인관계·비공식집단 등을 통한 사회·심리적 욕구의 충족이 중요하며, 셋째, 조직내 의사소통과 참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하기, 상대방의 이야기 경청하기 등의 방법적 측면과 상대방과 자신의 이해관계 조정하기 등의 내용적 측면을 포함한다. 또한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다양한 시도와 경험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와 지원 서비스에는 가족상담, 공공근로, 취미활동,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 등이 있으며, 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적 활동 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관계영역의 시간 사용에서 주목할 점은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서 종교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빈곤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 종교기관이나 단체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종교기관은 상당한 비중이 있으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개인의 가치관과 인식에 있어서 종교가 갖는 중요성과 더불어 빈곤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는 종교기관을 중요 거점으로 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 영역의 시간 사용과 커뮤니티 케어

사회 영역의 시간 사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경제활동 여부이다. 생활 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취업 여부와 근로 형태에 따라 평일의 시간 사용 양상이 정해지며, 특정 시간대의 의무시간과 재량시간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일)과 관련된 시간은 빈곤층에 비해서 비빈곤층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취업률(경제활동 참여율)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 소득의 중단 혹은 감소는 빈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소득의 원천은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 참여이다. 따라서 빈곤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목표는 빈곤예방과 탈빈곤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소득보장과 취업이다. 빈곤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보장은 공적제도에 의한 현금급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취업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고용 지원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는 빈곤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 시간의 결과분석에 의하면 빈곤층의 취업자와 비빈곤층의 취업자는 일을 하는 시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대별 재량시간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빈곤층의 취업자가 점심시간과 통상적인 퇴근 시간 이후에 비빈곤층의 취업자에 비해서 재량시간이 적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 빈곤층의 경우 근로 형태가 불규칙적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은 비정규직에 많음을 시사한다. 빈곤층은 동일한 시간의 일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낮고, 직업의 안정성이 낮은 형태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층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는 취업 뿐 아니라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취업을 위한 서비스는 고용알선, 공공근로 등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는 취업훈련과 교육이 핵심이다. 그런데, 현재의 노동시장 내에서 취업 가능성은 자격증 보다 졸업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빈곤층이 구직알선과 공공근로 등의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의 존속기간이 짧고, 임금 수준이 낮아 고용의 안정성에 문제가 많다.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단순기술 중심의 단기 직업훈련은 빈곤층의 취업 여부와 고용의 질 제고에 제한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취업가능성과 직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층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는 소수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장기간의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직업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빈곤층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은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서 근로 빈곤층은 취업 유무가 핵심 요인이라면, 취약 연령대의 빈곤층은 학습활동의 양상이 핵심 요인이다. 학교의 정규수업 시간의 시간 사용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만, 정규수업 이후의 시간 사용의 양상은 빈곤층과 비빈곤층에서 대조적인 양상을 보

인다. 빈곤층 학생은 정규수업 시간 이후 학교 내에서 자율학습 등의 방식으로, 그리고 비빈곤층 학생은 정규수업 이후 학원에서 사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비 부담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학습과 교육의 누적 효과를 감안한다면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격차를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의 생활시간 분석 결과, 빈곤층 학생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와 지원서비스는 크게 2가지 방향성과 내용을 필요로 한다. 첫째는 방과 후 학습 지원으로, 이는 비빈곤층 학생들의 사교육에 따른 소득계층간 학습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이다. 현재 빈곤 아동들을 위한 학습지원은 교육청과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바우처사업과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이 핵심이다. 방과 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학습 격차의 완화보다는 보육의 연장선에서 아동들의 보호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는 인터넷, 게임 중심의 학생 놀이문화의 변화를 위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개인주의적 그리고 고립적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지양하고 중독·의존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단체운동과 같이 많은 동료들이 함께하는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과 인간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와 지원 서비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4. 소결: 커뮤니티 케어 제공 방안 및 접근성 제고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서 소득계층간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제공방안을 모색하였다. 개인 영역의 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케어는 개인의 행태와 인식 변화라는 목표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삶의 목표 설정, 동기유발, 자이존중감,

자발적 선택과 의사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또한 수단적 측면에서 시간관리, 가계부 작성 등 계획과 실천행위를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내용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참여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빈곤층의 경우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커뮤니티 케어는 만성질환 관리, 의료정보 제공 및 상담, 활동 중심의 건강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다.

관계 영역의 시간 사용과 관련된 커뮤니티 케어는 의사소통 증진, 인간관계 지식 및 기술의 훈련과 습득이 중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은 가족상담,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취미·여가활동이 중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며, 빈곤층의 시간 사용의 특성상 종교기관 및 단체의 활용이 필요하다.

사회 영역의 시간 사용과 관련된 커뮤니티 케어는 근로계층과 학생을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 빈곤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는 구직알선, 공공근로 등을 통한 취업 지원과 비교적 장기의 직업훈련과 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이 필요하며, 고용지원 서비스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빈곤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협업과 인간관계 증진을 핵심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 케어의 내용은 사교육을 인한 학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과 인터넷, 온라인 게임 중심의 놀이문화를 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2가지 영역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5-2〉 빈곤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영역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성과 내용
개인		• 행태 및 인식의 변화를 목표로 설정 : 삶의 목표 설정, 동기유발, 자이존증감, 자발적 선택과 의사결정 등의 교육 프로그램
		• 인문학, 철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민교육, 사회교육에 대한 빈곤층의 접근성 제고
		• 시간관리, 가계부 작성 등 계획과 실천의 지속적 훈련
		• 만성질환 관리, 의료정보 제공 및 상담, 활동 중심의 건강관리
관계		• 의사소통, 인간관계 지식 및 기술의 훈련과 습득
		• 가족상담,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취미·여가활동
		• 종교기관 및 단체의 활용
사회	취업자	• 구직알선, 공공근로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 • 장기 직업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직업능력 제고 •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학생	• 사교육으로 인한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과후 학습지원 • 인터넷, 온라인 게임 중심의 놀이문화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 협업과 인간관계 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 비용적 측면의 접근성 제고 : 사회교육기관, 장기 취업훈련, 방과후 학교, 의료상담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등 • 시간적 측면의 접근성 제고 : 재량시간을 고려한 기관 운영시간 변화, 휴일 프로그램의 신설 • 공간적 측면의 접근성 제고 :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지역 공공장소 및 종교기관의 활용

지역사회 차원의 커뮤니티 케어 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이다. 생활시간에 대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성에 대한 제약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접근성의 비용, 시간, 공간·지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비용적 측면의 접근성 제고이다. 빈곤층은 비용부담의 제약으로 인하여 앞에서 제시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장기 직업교육 및 훈련, 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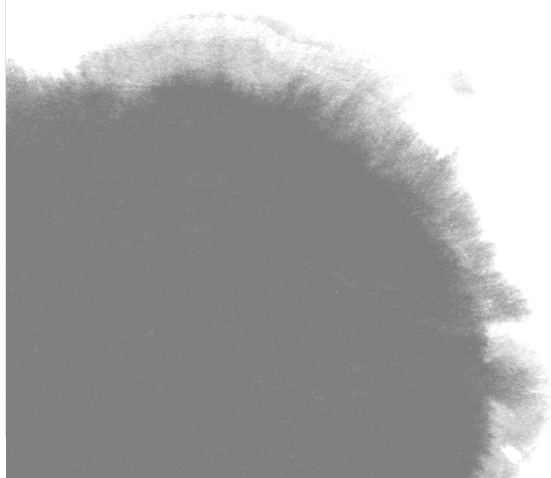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공공 영역이 대체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교육을 대신해서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 후 학습지원, 민간 의료기관이 아닌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통한 상담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이 있다.

둘째는 시간적 제약의 완화를 통한 접근성 제고이다. 근로 빈곤층의 경우 재량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커뮤니티 케어의 제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특히 평일에 재량시간을 확보하기 용이한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로 빈곤층은 커뮤니티 케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량시간 확보에 있어서 빈곤층과 비빈곤층, 그리고 취업자와 비취업자간의 차이가 없는 휴일 프로그램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공간적 제약의 완화를 통한 접근성의 제고이다. 공간적·지리적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빈곤층이다. 또한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나 장애인의 경우 공간적 제약을 크게 받고 있다. 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은 이용자들의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방안, out-reach 방식을 활용한 케어 및 지원 서비스의 대상자 발굴,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시설(농어촌 지역의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방문서비스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6장

결론 및 제언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 절 주요결과요약

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및 비빈곤층과의 시간사용량 비교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건강관리 등 ‘개인유지’와 관련된 시간 사용결과이다. 낮잠과 수면을 모두 포함한 수면 총시간에서 빈곤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에 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식사 및 간식으로 대표되는 식품섭취관련 행동은 비빈곤층이 빈곤층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의료건강을 위한 활동시간은 빈곤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자가치료와 아파서 쉬는 시간의 경우가 빈곤층에서 많이 나타났다.

둘째, ‘일’과 관련된 시간활용 결과이다. 빈곤여부별 일 관련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구직활동을 위해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정규수업, 정규수업 외 학습 등 ‘학습’에 관련한 시간활용이다. 학생의 정규 활동 관련 시간은 학령기의 아동기구원을 살펴보기 위해 10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학생의 정규 활동 관련 시간은 별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에서의 기타 학습관련 행동시간은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길게 나타나 학교에서 기타 학습관련 활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의 정규수업시간 외 관련 활동시간은 비빈곤층은 빈곤층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학교 밖의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었다.

넷째,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 활용 결과이다. 가정경영 관련 활동시간 중, 괄목할만한 점은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의 경우, 빈곤층 평균이 비빈곤층 평균에 비해 두 배 가량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층은 빈곤하지 않은 계층에 비해 은행 및 관공서로 일을 직접 보러가는 빈도가 많거나, 한번 방문시에도 업무를 마치는데 더 오래 걸렸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다섯째, ‘교제 및 여가활동’과 관련한 시간사용 결과이다.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매체를 활용한 교제 활동은 빈곤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이용 관련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TV를 더 오랜 시간 보고, 잡지 읽기, 라디오 듣기, 음악듣기, 인터넷 사용과 같은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시간을 더 길게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빈곤한 성인들은 학생의 정규 수업과 같은 의무 사항이 아닌 여가 활동으로서의 학습을 하는데 일정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빈곤층 커뮤니티케어의 접근성 분석 결과이다.

첫째,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더 많은 재량시간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빈곤층 내부에서는 연령에 따라 재량시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근로유형에 따라 재량시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재량시간을 하루 24시간의 시간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업무시간인 9시 ~ 12시, 13시 ~ 18시 사이에는 재량시간이 적고 점심시간인 12시 ~ 13시와 퇴근시간인 18시 이후로 재량시간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빈곤층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특히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점심시간에 재량시간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이는 일반적인 점심시간에도 주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비빈곤층보다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다섯째,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접근성을 은행, 보건소, 병/

의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특히 전일제로 근무할수록 접근 가능한 공간범위나 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층일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재량시간의 양이 더 많고 시간대 분포가 보다 유연적이므로 더 많은 이동가능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이동가능시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비빈곤층과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게 되며, 이동수단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이동가능거리와 접근가능한 시설의 공간범위를 거리의 형태로 변환시키면 오히려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곱째, 시설의 운영시간을 고려할 경우 일반적으로 재량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12시 ~ 13시, 18시 이후에 시설이 운영될 경우 접근성이 보다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산출하는데 있어 운영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 제공 방안 및 접근성 제고에서는 개인 영역의 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케어는 개인의 행태와 인식 변화라는 목표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삶의 목표 설정, 동기유발, 자아존중감, 자발적 선택과 의사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또한, 수단적 측면에서 시간관리, 가계부 작성 등 계획과 실천행위를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내용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관계 영역의 시간 사용과 관련된 커뮤니티 케어는 의사소통 증진, 인간관계 지식 및 기술의 훈련과 습득이 중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 영역의 시간 사용과 관련된 커뮤니티 케어는 근로계층과 학생을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 빈곤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는 구직알선, 공공근로 등을 통한 취업 지원과 비교적 장기의 직업훈련과 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이 필요하며, 고용지원 서비스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커뮤니티 케어 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이며, 생활시간에 대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성에 대한 제약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비용적 측면의 접근성 제고이다. 빈곤층은 비용부담의 제약으로 인하여 앞에서 제시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장기 직업교육 및 훈련, 사교육,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공공 영역이 대체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간적 제약의 완화를 통한 접근성 제고이다. 근로 빈곤층의 경우 재량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커뮤니티 케어의 제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특히 평일에 재량시간을 확보하기 용이한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로 빈곤층은 커뮤니티 케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간적 제약의 완화를 통한 접근성의 제고이다. 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은 이용자들의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방안, out-reach 방식을 활용한 케어 및 지원 서비스의 대상자 발굴,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시설(농어촌 지역의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방문서비스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시간 사용을 통해 빈곤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들이 어떤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어떤 영역에서 시간 활용이 미미한지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빈곤층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고려할 점을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연구 과정상의 경험들에 근거하여 앞으로

의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 설계 시 응답자의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헌과 데이터의 사용가능한 범위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나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나 기초생활수급 여부, 영구임대주택 거주 여부와 같은 변수들이 제공되었다면 응답자 수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소득과 관련한 문항은 사회과학 기초 조사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항목이므로 앞으로도 필수 항목으로 포함 될 터인데, 이에 대한 보완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시간 사용과 빈곤을 연구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간지리학 기법은 개인의 공간정보를 알고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연구 방법이 달라진다. 개인의 공간 정보란 주거지역, 목적지, 출퇴근 지역, 이동 거리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정보가 있을 때 보다 세분화되고 자세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응답자의 지리적 위치를 포함하는 변수가 제공되지 않아, 분석 모형을 수정한 뒤 개인의 공간 정보를 모를 때 거쳐야 할 가정들을 고려한 후에 계산을 하였다. 이 때 응답자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닌, 읍면동 단위의 자료나 직장의 대략적 위치만 가지고도 대중교통 접근도나 이동 거리 산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와 같은 공적 데이터의 경우 응답자 보호와 연구적 역량 확보라는 두 가지 이슈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자와 연구자가 함께 고민하여 심층적인 연구 설계가 가능하도록 조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공한 분석 모델은 다른 종류의 서비스 제공 시설의 사·공간적 접근성을 평가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활용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를 디자인·개발하고 제공하는 전달 체계를 다룰 때 있어 본 연구와 같은 방식을 접목해 봄으로써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되는 면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 분석 예로 제시하였던,

보건소, 병원, 은행을 다른 영역의 커뮤니티 케어 시설로 대치해 보면 이용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맞는 접근성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
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1), 82-112.
- 김경혜·김준현·박은철, 2011, 다차원적 빈곤관점에서의 서울시 빈곤실태와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남줄, 2005, 빈곤층의 거주지역에 따른 근린환경과 사회적 관계, 아세아
연구, 50(2), 69-180.
- 김문길·김태완·박신영·이병화·임병인·이서현, 2011, 2011 빈곤통계연보,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주현, 2007, 생활시간사용으로 본 노년기 생산적 활동, 한국노년학, 27(4),
739-754.
- 김진욱, 2006,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
료에 나타나 노인의 일, 가족, 여가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
지학회, 32, 149-177.
- 김현미, 2005, GIS를 이용한 접근성의 공간적 패턴 분석: 공간적 접근성
측정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한지리학회지, 40(5), 514-532.
- 김현미, 2007, 성역할, 접근성, 그리고 젠더화된 공간성, 대한지리학회지
42(5), 808-834.
- 김현미, 2008,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도시기회 접근성의 시·공간적 구축성에

-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3(3), 358-374.
- 나금실, 2005, 빈곤층의 노동시장과 생애노동, 박경숙·김남줄·김수영·김진수·나금실·박병철·손태홍·최희경 편, 빈곤의 순환고리들: 부산, 울산, 경남지역 빈곤층의 생활과 의식, 동아대학교 출판부, 168-200.
- 남상호, 2009, 저소득층 자산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최승아, 2004,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시학, 1994, 서울시 노령인구의 통행패턴 분석, 한국노년학, 14(2), 1-16.
- 노시학, 1996, 도시교통의 사회적 영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 37-47.
- 노시학, 2000, 서울시 여성 취업자의 취업형태와 통근통행패턴간의 연관성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3(1), 43-56.
- 노시학·조창현, 2011, 수도권 노인 통행행태의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46(6), 781-796.
- 노혜진·김교성, 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159-187.
- 대전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2011, 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출처 http://www.withway.or.kr/xe/index.php?mid=menu41&document_srl=24615 (방문일 2010.11.25)
- 문정란, 2011,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33, 131-160.
- 배미애, 2007, 빈곤계층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연계성, 대한지리학회지, 42(2), 177-195.
- 성은숙, 2007, 동일역할 수행시 성(sex)에 따른 시간사용의 차이,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453-459.
- 손문금, 2005, 여성의 이중부담과 유급노동시간의 주변화, 한국인구학, 28(1), 277-311.
- 손문금, 2010, 서울시민의 이동행동에 있어서의 젠더차이, 한국인구학,

- 33(1), 1-25.
- 손정렬·오수경, 2007, GIS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한 서울시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접근성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5), 576-594.
- 송경언·박삼옥·김상빈, 2008, 수도권 노인 주거·의료 서비스 시설과 그 이용자 생활의 공간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4), 394-417.
- 송호근, 200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36(1), 23-50.
- 유소이·최윤지, 2002,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 및 여가시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13(3), 53-68.
- 유승호, 2005, 디지털시대의 문화욕구와 라이프스타일,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윤대식·안영희, 2003, 고령자의 통행특성과 통행행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8(7), 91-107.
- 이원호, 2006, 사회적 배제의 측정과 빈곤현상의 공간적 패턴: 서울시의 사례연구, 지리학연구, 40(3), 367-379.
- 이은숙·정희선, 2003, 서울시 주부의 일상생활 공간의 불평등성, 지리학연구, 37(3), 241-255.
- 이현주·안서연·박경희, 2009,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김미곤·노대명·강석훈·노병돈·유진영·임원섭, 2006,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10.
- 정원봉, 2002, 생활시간조사를 통한 실업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 실업자의 교체활동을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59, 106-132, 한국도시연구소.
- 장원봉·정수남, 2005,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과 빈곤화에 관한 연구, 도시와 빈곤, 77, 53-73.

- 정현주, 2007, 공간의 뒷에 갇힌 그녀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동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53-68.
- 지은정, 2007,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3), 147-174.
- 최옥금, 2005;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5(1), 1-42.
- 허우금, 2006, 도시와 교통, 김인·박수진 편, 2006, 도시해석, 푸른길, 95-109.
- 홍경준, 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 사회복지학, 57(2), 119-142.
- Boulin, J., 2005, Is the societal dialogue at the local level the future of social dialogue?, Transfer: 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11(1), 439-448.
- Burkhardt, J., McGavock, A., Nelson, C., and Mitchell, C., 2002, Improving public transit options for older persons.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Washington, D.C.
- Casas, I., 2007, Social Exclusion and the Disabled: An Accessibility Approach, Professional Geographer, 59(4), 463-477.
- Cervero, R., Rood, T. and Appleyard, B., 1999, Tracking accessibility: employment and housing opportunities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Environment and Planning A, 31, 1259-1278.
- Chung, C., Myers, S. L. and Saunders, L., 2001, Racial Difference in Transportation Access to Employment in Chicago and Los Angeles, 1980 and 1990,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1(2), 174-177.
- Church, R. L. and Marston, J. R., 2003, Measuring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a Disability, Geographical Analysis, 35(1), 83-96.

- Gautier, P. A. and Zenou, Y., 2008, Car Ownership and the Labor Market of Ethnic Minorities,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TI 2008-106/3.
- Goodman, J., 2008, Who does the grocery shopping, and when do they do it? Retrieved from <http://timeuseinstitute.org/Grocery%20White%20Paper%202008.pdf> on October 23, 2012.
- Hägerstrand, T., 1970, What about people in regional science?,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24, 7-21.
- Hawthorne, T. L. and Kwan, M. P., 2012, Using GIS and perceived distance to understand the unequal geographies of healthcare in lower-income urban neighbourhoods, The Geographical Journal, 178, 18-30.
- Jamie, E., Spinneya, L., Scott, M. and Newbold, 2009, Transport mobility benefits and quality of life: A time-use perspective of elderly Canadians, Transport Policy, 16, 1-11.
- Kain, J. F., 1992, The Spatial Mismatch Hypothesis: Three Decade Later, Housing Policy Debate, 3(2), 371-392.
- Kawabata, M. and Shen, Q., 2006, Job accessibility as an indicator of auto-oriented urban structure: a comparison of Boston and Los Angeles with Tokyo, Environment and Planning B, 33, 115-130.
- Kim, H. M. and Kwan, M. P., 2003, Space-time accessibility measures: a geocomputational algorithm with a focus on the feasible opportunity set and possible activity duration, Journal of Geographical Systems, 5(1), 71-91.
- Kim, H., 2005, Gender and Individual Space-time Accessibility: A GIS-based Geocomputational Approach, The Ohio State

University Ph.D, Dissertation.

Kwan, M. P. and Weber, J., 2003, Individual Accessibility Revisited: Implications for Geographical Analysis in the Twenty-first Century, *Geographical Analysis*, 35(4), 341-353.

Kwan, M. P., 1999, Gender and Individual Access to Urban Opportunities: A Study Using Space-Time Measures, *Professional Geographer*, 51(2), 210-227.

Kwan, M. P., 2000, Gender differences in space -time constraints, *Area*, 32 (2), 145 - 156.

Kwan, M. P., Murray, A. T., O'Kelly, M. E. and Tiefelsdorf, M., 2003, Recent advances in accessibility research: Representation, methodology and applications, *Journal of Geographical Systems*, 5, 129-138.

Metz, D. H., 2000, Mobility of older people and their quality of life, *Transport Policy*, 7(2), 149-152.

Miller, H. J., 1991, Modelling accessibility using space-time prism concepts within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International Journal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cience*, 5(3), 287-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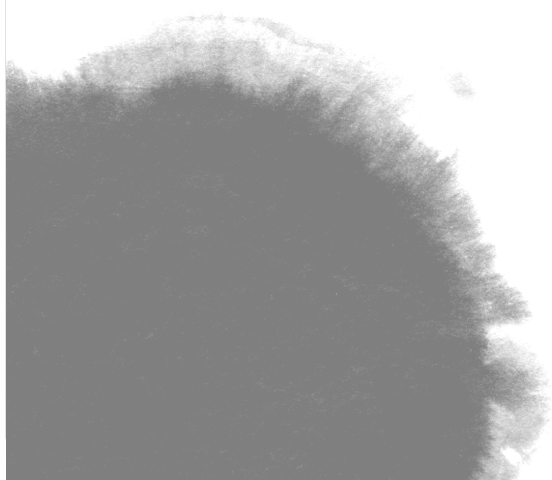
Mückenberger, U. and Boulin, J. Y., 2002, Times of the city: new ways of involving citizens, *Concepts and Transformation*, 7(1), 73 - 91.

Neutens, T., Delafontaine, M., Schwanen, T. and Weghe, N. V.,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opening hours and accessibility of public service delivery,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in press), doi:10.1016/j.jtrangeo.2011.03.004.

Neutens, T., Schwanen, T., Witlox, F. and de Maeyer, P., 2010a, Evaluating the Temporal Organization of Public Service

- Provision Using Space-Time Accessibility Analysis, *Urban Geography*, 31(8), 1039-1064.
- Neutens, T., Versichele, M. and Schwanen, T., 2010b, Arranging place and time: A GIS toolkit to assess person-based accessibility of urban opportunities, *Applied Geography*, 30(4), 561-575.
- Preston, V. and McLafferty, S., 1999, Spatial mismatch research in the 1990s: progress and potential, *Papers in Regional Science*, 78(4), 387-402.
- Raphael, S., 1998, The Spatial Mismatch Hypothesis and Black Youth Joblessness: Evidence from the San Francisco Bay Area, *Journal of Urban Economics*, 43, 79-111.
- Schwanen, T., Kwan, M. P. and Ren, F., 2008, How fixed is fixed? Gendered rigidity of space-time constraints and geographies of everyday activities, *Geoforum*, 39(6), 2109-2121.
- Timmermans, H., Arentze, T. and Joh, C. H., 2002, Analysing space-time behaviour: new approaches to old problem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6(2), 175-190.
- Wachs, M. and Kumagai, T. G., 1973, Physical Accessibility as a Social Indicator,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s*, 7, 437-456.

100



부록

〈부록〉 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및 비빈곤층과의 시간사용량 비교시 활용변수

내 용		코드 번호	코드명
요일구분(평일,토요일,일요일)		1	평일
		2	토요일
		3	일요일
조사요일		1~7	1:일요일, 2:월, 3:화, 4:수, 5:목, 6:금, 7:토
농기구분		1	농가
		2	비농가
I 가 구 관 련 사 항			
소유형태		1	자기집
		2	전세
		3	월세,사글세,보증부월세
		4	무상주택, 사택
II 개 인 관 련 사 항			
1	가구주와의 관계	1	가구주
		2	배우자
		3	미혼자녀
		4	기혼자녀 및 그배우자
		5	손자녀 및 그 배우자
		6	부모(배우자쪽 포함)
		7	조부모
		8	미혼형제,자매(배우자쪽 포함)
		9	기타
2	성별	1	남자
		2	여자
3	연령코드	1	10대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이상

내 용		코드 번호	코드명
4	혼인상태	1	미혼
		2	배우자 있음
		3	사별
		4	이혼
5	교육정도	0	무학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4년제 미만)
		5	대학교(4년제 이상)
		6	대학원 석사과정
6	평소바쁜가?(시간부족)	1	예, 항상
		2	예, 가끔
		3	아니오, 거의
		4	아니오, 전혀
7	경제활동여부	1	일을 했음
		2	일을 하지 않았음
8	직장에서의 지위	1	임금근로자
		2	고용주
		3	자영자
		4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인 경우 근로형태	1	전일제 근로
		2	시간제 근로
9	월평균소득	1	없음
		2	50만원 미만
		3	50만원~100만원 미만
		4	100만원~150만원 미만
		5	150만원~200만원 미만
		6	200만원~250만원 미만
		7	250만원~300만원 미만
		8	300만원~350만원 미만
		9	350만원~400만원 미만
		10	400만원~500만원 미만
		11	500만원 이상
Ⅳ 생 활 시 간 사 용 만 족 도			
생활시간사용 만족도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그저 그렇다	
	4	만족하지 않는다	
	5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부록〉 의무활동분류표 (○: 의무활동, △: 조건에 따라 의무활동)

CODE	행동분류	의무활동 여부	비 고
S111	수면	○	
S112	낮잠, 졸음		
S121	가족과의 식사		
S122	그외의 식사		
S1221	혼자 식사		
S1222	가족외 사람과의 식사		
S123	간식과 음료		
S131	개인위생	○	
S132	외모관리(화장, 옷갈아입기 등)		
S133	이미용관련 서비스 받기		
S141	자가치료		
S142	의료서비스 받기		
S143	아파서 쉬		
S199	기타 개인유지		
S211	주업	○	
S212	부업	○	
S213	일 중 휴식	○	연속행동
S214	일관련 연수	○	
S215	집에 가져와서 일함		비반복적
S216	그외 일관련 행동	○	
S220	무급가족 종사일(농림어업제외)	○	
S230	농림어업의 무급가족 종사일	○	
S240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S250	구직활동		비반복적
S260	일관련 물품구입		
S2601	일관련 직접 쇼핑		
S2602	일관련 무점포쇼핑(인터넷·TV홈쇼핑 등)		
S299	기타 일관련 행동		
S311	수업	○	
S312	정규수업사이의 휴식	○	연속행동
S313	학교에서의 스스로 학습	○	
S314	학교행사		비반복적
S319	학교에서의 기타 학습관련 행동	○	
S321	정규수업외 수강	○	
S322	학교외에서의 스스로 학습		
S329	학교외에서의 기타 학습관련 행동		
S330	학습관련 물품구입		

CODE	행동분류	의무활동 여부	비 고
S3301	학습관련 직접쇼핑		
S3302	학습관련 무점포쇼핑(인터넷·TV홈쇼핑 등)		
S411	식사준비		
S412	설거지, 식후정리		
S413	간식 및 비일상적 음식 만들기(저장식품 등)		
S421	세탁 및 세탁물 널기		
S422	옷 정리(세탁물 걷기, 옷장정리 등)		
S423	다림질, 바느질, 의류손질		
S424	의류수선, 세탁 서비스 받기		
S425	재봉, 뜨개질		
S431	방·물품 정리		
S432	집안 청소(쓸기, 닦기)		
S433	그외 청소 및 정리		
S441	가재도구·집손질 및 관련 서비스 받기		
S4411	가재도구·집 직접 손질하기		
S4412	가재도구·집 손질관련 서비스받기		
S442	세차,차량관리 및 관련 서비스 받기		
S4421	세차,차량 직접 관리하기		
S4422	세차,차량 관련 서비스받기		
S443	그외 집 관리		
S4431	그외 집 직접 관리하기		
S4432	그외 집 관련 서비스받기		
S451	생활용품 관련 직접쇼핑		
S452	내구재 관련(생활용품 제외) 직접쇼핑		
S453	무점포 쇼핑		
S4531	생활용품 관련 무점포쇼핑(인터넷·TV홈쇼핑 등)		
S4532	내구재 관련(생활용품 제외) 무점포쇼핑(인터넷·TV홈쇼핑 등)		
S461	가계부 정리		
S462	가정계획		
S463	은행 및 관공서 일 보기		
S499	기타 가사일		
S511	신체적 돌보기(씻이기, 먹이기, 재우기 등)	○	
S512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	
S5121	공부 봐주기, 책 읽어주기	○	
S5122	놀아주기	○	
S519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	
S5191	미취학 아이 간호	○	
S5192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	

CODE	행동분류	의무활동 여부	비 고
S521	씻기, 등·하교 도와주기	○	
S522	숙제 및 공부 봐주기		
S523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방문		
S529	기타 학생 보살피기		
S5291	초·중·고등학생 간호		비반복적
S5292	기타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S530	배우자 보살피기		
S5301	배우자 간호		
S5309	기타 배우자 보살피기		
S540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S5401	부모 및 조부모 간호		
S5409	기타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S550	그외 가족 보살피기		
S5501	그외 가족 간호		
S5509	기타 그외 가족 보살피기		
S610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S6101	소득이 있는 활동 돕기		
S6102	가사활동 돕기		
S6109	기타 일 돕기		
S621	참여활동		
S6211	의무적 참여활동		
S6212	자발적 참여활동		
S631	국가 및 지역 행사 관련		
S632	자녀교육 관련		
S63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관련		
S634	재해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S639	기타 자원봉사(헌혈, 무료상담 등)		
S711	전화를 이용한 교제(문자메시지 포함)		
S712	가족·친척과의 교제		
S713	그외 사람들과의 교제		
S714	인터넷을 이용한 교제(채팅 등)		
S715	성묘, 벌초		
S719	기타 교제관련 행동		
S721	외국어 관련 학습	○	취업관련
S722	컴퓨터 관련 학습	○	
S723	자격증, 취업 관련 학습(기능, 기술 등)	○	
S724	취미 관련 학습		
S729	기타 일반인의 학습	○	
S731	신문		

CODE	행동분류	의무활동 여부	비 고
S732	잡지		
S733	TV		
S734	비디오, DVD, PMP, DMB		
S735	라디오		
S736	CD,TAPE, Mp3 등		
S737	컴퓨터 정보이용(인터넷)		
S7371	인터넷 정보검색(무선인터넷 포함)		
S7372	인터넷 기타(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관리, 영화 등)		
S741	개인적 종교 활동		
S742	종교 집회·모임 참가	○	
S743	그외 종교 관련 행동		
S751	영화(극장,비디오방)		
S752	연극, 콘서트		
S753	전시회, 박물관		
S754	스포츠 경기 관람		
S755	기타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관련 행동		
S761	걷기, 산책		
S762	등산, 하이킹		
S763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 운동		
S764	그외의 단체 스포츠		
S765	드라이브, 소풍, 관광 및 구경		
S766	그외 집밖의 레저활동		
S771	독서		
S772	컴퓨터 게임(휴대용 게임기 포함)		
S773	놀이(바둑, 장기, 화투, 카드, 아이들놀이 등)		
S774	그외 취미활동		
S775	유흥(술, 춤, 노래방)		
S776	담배 피우기		
S777	아무것도 안하고 쉬		
S780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S7801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직접쇼핑		
S7802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무점포쇼핑 (인터넷·TV홈쇼핑 등)		
S799	기타 여가 관련 행동		
S800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S811	개인유지 관련 이동	△	이동전·후 의무활동 일 경우
S821	출·퇴근	△	
S822	그외 일 관련 이동	△	
S831	통학 및 학습관련 이동	△	

CODE	행동분류	의무활동 여부	비 고
S841	가정관리 관련 이동	△	의무활동 이동전· 후 의무활동 일 경우 의무활동
S851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	
S861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	
S871	교제활동 관련 이동	△	
S872	그외 여가활동 관련 이동	△	
S8721	일반인의 학습 관련 이동	△	
S8722	그 외 여가활동 관련 이동	△	의무활동
S891	기타 이동		
S919	생활시간조사 조사표 기입		
S999	그 외 기타		
SA	재택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농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이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29	장애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해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민간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자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판-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4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42	취약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환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31	현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변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I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개발,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통계조사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립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난임 사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인공수정 대상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세증가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현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립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요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백세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각국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6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공적 전달체계 개편 방안: 공적전달체계의 수직적편제와 수평적배열의 재구조화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6년 및 2011년 결과 보고서 -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 연구: 빈곤정책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II: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한국의복지실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인구집단별생활실태와복지육구의동태분석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 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정립 방향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지표·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